



자 율 형 사 립 고
보인고등학교
BOIN HIGH SCHOOL

05742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길 18
Tel : 02-2043-6021 · Fax : 02-449-8063
<http://www.boin.hs.kr>

2019년 1학기
輔仁

BOIN HIGH SCHOOL MAGAZINE

편집국 이메일



Play BOIN HIGH SCHOOL MAGAZINE *Boin*

Vol. **21**



SPRIT OF BOIN 보인의 세 가지 교훈의 모범이 되는 보인 가족들

SCHOOL HAPPENINGS 2019년을 물들였던 보인의 큰 행사

QUEST FOR KNOWLEDGE 대입 합격 후기, 토론 기사, 경시대회 우수작

TEACHERS AT BOIN 보인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시는 강이숙, 백기곤, 정다희 선생님

열정이 넘치는 학교 · 학생이 행복한 학교 ·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학교

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입니다



BOIN HIGH SCHOOL MAGAZINE

Play
Boin



CONTENTS

01. MESSAGES

- 04 인사말 | 김석한 이사장님
- 06 인사말 | 김종환 교장 선생님
- 08 인터뷰 | 추봉세 선배님

02. SPIRIT OF BOIN



- 16 교훈 소개글
- 18 날로 새롭게 | 보인고 축구부 이재익 선수
- 22 바르게 살자 | 역사 동아리 메모리얼
- 24 베풀며 살자 | 국립 소록도 병원 봉사반찬 만들기 봉사

03. SCHOOL HAPPENINGS



- 30 산시대학교 부속고등학교 MOU 협약 체결
- 32 1학년 수련회
- 34 2학년 수학여행
- 36 보인 천년제 (축제)
- 38 동아리 인터뷰 (BISI, BOMI, 리보숨)

04. QUEST FOR KNOWLEDGE



- 46 대입 합격 후기
- 58 토론 기사
- 62 백일장 장원 작품
- 66 경제 보고서 대회 우수작
- 70 자기주도학습 후기 대회 우수작
- 72 보인 서평단 우수작

05. STRIVING FOR DREAMS



06. TEACHERS AT BOIN



- 78 진로 기사
- 102 직업 인터뷰 (유튜버)

- 108 인터뷰 ❶ | 강이욱 선생님
- 112 인터뷰 ❷ | 백기곤 선생님
- 114 인터뷰 ❸ | 정다희 선생님

07. BOIN SURVEY

- 120 양케트
- 128 롤링페이퍼

2019 보인고 교지·통권 제21호

발행인 | 교장 김종환 기획·취재 | 교지편집부(지도교사 황희주)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49길 18 전화 : 02)2043-6021 · <http://www.boin.hs.kr>

기획·편집 : 사회작기업·장매인기업 스쿨프린팅그룹(주) 02)2285-3366 · <http://schoolpt.co.kr>

뜨거운 겨울의 시작에서

다시 추운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꽃필 계절을 위해 제작의 고통과 추위를 인내하는 학생들의 열정과 학구열을 볼 때마다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마음이 듭니다. 교복을 입고 보인의 교정을 활보하며 재담을 나누는 여러분의 젊음과 발랄함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면서도, 성인이 되어 엄중한 사회를 오로지 자신에게 의지해 쉽지 않은 걸음걸음을 내딛어야 할 여러분의 앞길이 너무 괴롭지를 않기를 늘 바라는 마음입니다.



불투명한 앞날과 당장의 괴로움에 시달려 고뇌의 밤을 보내는 여러분들, 청춘의 아픔을 겪고 있을 여러분들에게 성현의 말씀이 위안이 될 수 있을까 하여, 문득 떠오른 맹자 말씀을 나누어 보렵니다. 맹자(孟子)의 「고자장구(告子章句)」下 15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天將降大任於斯人也인대 / 必先勞其心志하고
苦其筋骨하고 / 餓其體膚하고
窮乏其身行하여 / 拂亂其所爲하나니
是故는 動心하고 忍性하여 / 增益其所不能이니라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 뼈마디가 꺾여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들기고 참을성을 길러 주어 지금까지 해내지 못했던 일도 능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을 둘러싼 시련은 각각이 다른 모양새일 것입니다. 학업에 관련한 것일 수도, 가족과 친구에 관련한 것일 수도, 혹은 진로에 관련한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깊게 들여다보고 씩씩하게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곳곳이 맞선 사람에게 시련은 더 깊은 성숙을 위한 질료로서 기능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씩씩하고 꿋꿋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맹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시련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해내지 못할 일을 능히 하'게 되는 상태를 늘 마음속으로 그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통과하고 있을 아픔은, 여러분이 어리다고 한들 결코 가벼운 무게가 아닐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선행 세대가 더 나은 사회를 물려주지 못한 것에 대한 여파가 여러분들에게 짐지워져 있다는 생각을 하면 그 책임이 무겁게 다가오고, 또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담금질이 필요하다는 사실만큼은 이제나 저제나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물려주고자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먼 미래 어디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사회적 쓰임을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삶이란 결코 우연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의지와 희망을 가진 이에게 세계와 삶은 필연으로, 거미줄처럼 서로 이어져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와 과거를 해명할 수 있고,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거시적 안목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춥고 힘든 계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외피가 되어 줄 것입니다. 보인고의 교육 가치와 훌륭한 선생님들의 열정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외투처럼 여러분을 감싸 줄 것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나날과 마음에도, 평온하고도 뜨거운 열의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여 따뜻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과 품을 들여 보인의 사계절을 담아 낸 교지편집부 학생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건네며 글을 단습니다.

학교법인 대주학원 이사장 김 석 한



부푼 설렘을 안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며

또 다시 10년이 지나갑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2010년대가 이제 우리
에게 작별을 고하고, 공상과학 소설과 영화에 종종 먼 미래로 등장하곤
했던 2020년대가 어느새 우리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소설과
영화에 등장했던 가상의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실제의 현실 역시
도 차라리 하나의 가상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나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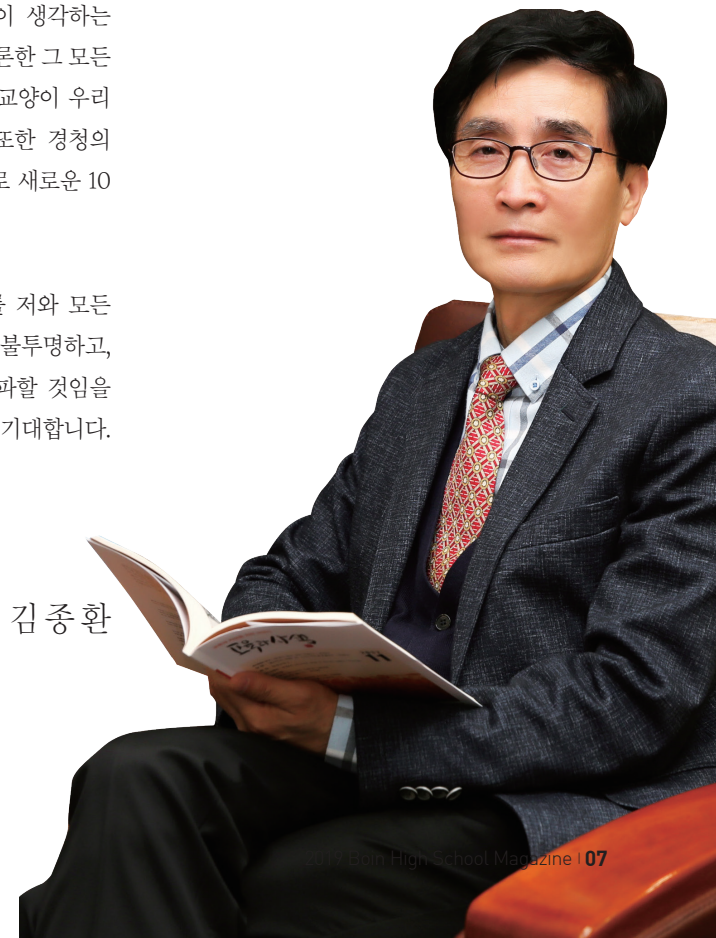
하루마다 그간 상상조차 못 해 보았던 기술이 현실화되고, 우리 삶의 양식도 그에 맞춰 획획 바뀌고 있습니다. 한편 어떤 곳에서는 불의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불우한 이웃들도 쉽사리 줄지 않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측하기 힘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저와 보인고의 여러 선생님들은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걱정 반 설렘 반일 것입니다.

쉽게 뒤집히고, 꺾기하면 다른 것이 되곤 하는 정보와 의견의 범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 세파世波에 휩쓸리지 않고 무겁게 중심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교육자의 자존심을 걸고, 저는 그것이 바로 교육의 책무이고 또 교육만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렵니다.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 인간다워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 기준을 스스로의 안에 자립시키고, 세상 속에 탐침을 찔러 넣어 그러한 신념을 관철시키도록 길러내는 것이 바로 교육일 터입니다. 지난날 보인이 길러 낸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신념을 지키며 이 세상을 좀 더 진실하도록, 무겁고 단단하도록 만들었음을 믿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은 새롭되 새롭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계를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너그러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마찬가지로 ‘열린 마음’입니다. 오래된 것은 새로운 것에 공간을 내 주고, 지난 십 년은 다가올 십 년에 시간을 내어 줍니다. 그러한 교체와 갱신의 범칙만큼 오래도록 변치 않은 것은 없습니다. 변화는 가장 오랜 전통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계의 변화를 관찰하여, 그것을 과거와 미래에 각각 비추어 그른 것은 바로잡고, 옳은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행하는 것을 무게중심 없이 맹종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갱신되지 않은 것을 비판의식 없이 수구하지 아니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욕적으로 듣고, 또 끊임없이 생각하는 경청이 몹시도 중요하겠습니다. 잘 듣는 것만이 마음을 여는 길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한 그 모든 성현들 중 ‘잘 듣는’ 것을 강조하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이는 세계시민의 민주적 교양이 우리 사회에 영원한 가치로 보전되어 내려왔던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경청의 본질은 매 순간 새로운 변화를 포용하고, 다른 것을 관용의 자세로 끌어안는 것이므로 새로운 10년의 세련된 감각이란 여전히도 경청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보인의 교육 가치가 여러분에게 스며들어, 여러분이 더 잘 들리는 귀를 가졌기를 저와 모든 선생님들은 바라며, 또 그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십 년은 아직 불투명하고, 예측되지 않는 일들 투성이겠지만, 여러분들을 주역으로 하여 그것을 현명하게 돌파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10년과 불안하지 않은, 반가운 눈인사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합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10년을 맞이합시다.

보인고등학교 교장 김 중 환





보인을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 추봉세 씨엔에프 회장

새로운 밀레니엄도 10년이 지났다. 세상이 세기적 전환을 맞이할 것이란 사람들의 기대에 걸맞는 변화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다. 2020년은 2001년과는 또 다른 큰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각자의 진로에 맞게 보인의 교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2020년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각오와 다짐으로 또 새로운 10년을 맞이해야 할까? 교지 편집부는 이런 우리들에게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동문 선배님을 찾아보았고 담당 선생님께서 추봉세 선배님을 추천 받았다. 추봉세 선배님은 보인 32기 졸업생으로 연 매출 2,000억이 넘는 화장품회사 씨엔에프의 회장이다. 연 초 바쁜 일정으로 인터뷰가 가능할까 하는 걱정과 달리 흔쾌히 후배들의 방문을 허락해 주셨다.

씨엔에프는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회사로 제1공장(건축면적 8,087.33m²)과 제2공장(건축면적 18,704.07m²)에서 하루 250만장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고 있다. 1년에 찍어내는 마스크팩만 6억 5천만장이다. 전제 직원은 모두 정규직이며 난임 휴직과 남성 육아 휴직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원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사 1층에 들어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기업의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일과 시간 내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개방형 컨퍼런스 룸, 카드 게임장, 스크린 야구장, 스크린 골프장, 음료 자판기, 북카페까지 갖춘 시설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엿볼 수 있는 Google의 이미지와 너무 흡사했다.



놀라움에 취할 시간도 잠깐, 우리는 안내를 받아 약속된 인터뷰 장소로 이동했다. 후배들을 온화한 미소로 맞아 주신 선배님은 실내라 추위를 느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실 보다 더 따뜻한 곳에서 인터뷰를 하자시며 우리를 직접 회장실로 안내해 주셨다. 궁금했던 내용들을 모아 하루 전 질문지를 보내드렸기에 질문에 맞게 인터뷰를 진행하려 했던 우리의 계획은 시작부터 어긋났다. 선배님께서 미리 정해진 딱딱한 질의응답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원하셨고 그렇게 인터뷰는 시작되었다.

질문) 회사 곳곳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업 공간과 전혀 다릅니다. 특히 1층의 경우가 그런데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셨습니까?

답) 나는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들과 같으면 앞서 나갈 수 없죠. 기업 공간은 직원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바이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해요. 해외 바이어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받는 첫인상에서부터 그들의 상상을 깨 주는 것, 아! 여기는 다르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점이 달라지는 거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 못지않게 그 환경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 1년 정도는 직원들이 1층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회의도 1층에서, 작은 파티도 1층에서 직원들을 모아 놓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경험의 기회를 늘려 준거죠.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1층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1층은 모든 공간이 활기 넘치는 직원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우리 후배들에게도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네요.

질문) 경험의 중요성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 나는 95년 창업 후 지금까지 사업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없어요. 사업계획서대로 되지도 않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계획을 세우느라 1년의 한 달을 소비해요. 나는 계획보다 변화의 '조짐'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변화의 조짐을 느꼈다면 리스크 테이킹이 있더라도 바로 행동에 옮기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조짐을 파악한다는 것은 '직관'을 의미하는데

정확한 직관을 위해서는 감각과 안목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능력이에요. 능력을 키우려면 경험을 키워야죠.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질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선배님의 성공 비결인가요?

답) 나는 스스로 '성공'이란 단어를 써 본 적이 없어요.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고 생각해 왔죠. 나는 '인연'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화장품도 하나의 인연이고, 인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선택'인데 다른 말로 '기회'를 의미해요. 그런데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해요. 내 경험에 의하면 부지런한 사람이 선택을 잘해요. 사람은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본능



이 있어서 편안함의 유혹을 뿌리치고 스스로를 부지런한 사람으로 단련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국가도 개인과 같아서 자꾸 편안한 것을 추구하면 어려워 질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서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맹점을 안고 있는 거죠. 나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식만 가르치면 직접 경험을 하면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편안함 속에서는 깨어 있기 어려워요. 우리 사회는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한 곳만 쳐다보게 유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양성과 개인성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이예요.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면 발전하기 어려워요. 다양성이 존재해야 사회가 건전하



INTERVIEW

게 발전할 수 있는데 자사고 폐지도 이 맥락에서 보면 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다시 돌아와서, 편안함에 취하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남들보다 앞설 수 있었던 비결인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하자면 ‘견제’를 잘 운영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쉬운 말로 나를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나쁜 것에 대한 ‘견제’를 잘 하라는 의미입니다.

질문) 어려운 이야기인데도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희도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끊임없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실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 나는 항상 직원들에게 하루에 하나의 명언을 실천하라고 강조해요. 양서 한 권을 읽는 것보다 명언 한 줄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그 명언에 따라 하루를 생활하다 보면 그릇된 경로로 이탈하는 것을 ‘견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우리 후배들은 꼭 명언이 아니더라도 단어 하나를 선택해서 그 단어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효도’라는 단어가 내가 오늘 실천해야 할 단어라면 오늘 하루만큼은 부모님을 대하는 내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질문) 선배님께서 지역사회 아동 100명에게 청약통장을 개설해 주셨고 작년 7월에는 의료재단에도 1억 원을 기부하시는 등 꾸준히 베풀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선배님께 기부란 어떤 의미인가요?

답)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까 했었죠.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있죠. 기부도 그 연장에 있어요. 기부를 경험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 의미가 달라요. 나는 그냥 단순한 기부보다는 의미가 있는 기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포 지역 불우 아동들에게 청약통장을 기부한 것이 그 예 중 하나예요. 통장에 담겨 있는 작은 기부금이 아이들 스스로 자립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매년 5천만원 이상은 꾸준히 기부할 계획인데 한 번 주고 끝나는 기부가 아니라 그것을 발판으로 무언가를 탄생시키고 성장시키는 기부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모

교에도 기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사장님과 조율 중에 있어요.

질문) 약 50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학창시절의 이사장님은 기억이 나시나요? 선배님의 학창시절은 어떠셨어요?

답) 당연히 이사장님은 기억이 나죠. 저한테는 1년 선배님이시고 학창 시절 이사장님이 전교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기억하는 학창시절의 에피소드는 운동장이 매우 작았다는 것이예요. 당시 학교가 종로구 내수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사대문 안이라 땅값은 비싼데 보인 중고가 함께 있으니 3천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좁은 운동장에서 뒤섞였던 기억이 나요. 이사장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보인고등학교의 교훈이 ‘날로 새롭게’로 시작하죠. 교훈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예요. 교훈은 이사장으로부터 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흔들림 없는 하나의 중심축인데 나는 이사장님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의 축이 되어 ‘날로 새롭게’를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가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이야기가 잠시 길었던 탓일까 선배님께서 ‘내 이야기가 괜찮니’하고 물어 보셨고 ‘네’하고 대답하자 ‘그럼 수업료를 내야지’ 하시며 분위기를 풀어 주는 농담을 하셨다.)

[인터뷰 시간도 어느덧 한 시간을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피곤한 내색 없이 인터뷰에 응해 주신 선배님은 더 궁금한 건 없는지 질문을 재촉하셨다.]

질문)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답) 나는 결재할 때를 빼곤 책상에 앉아 있질 않아요. 빨리 걷는 것과 힘주어 자신 있고 당차게 말하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하루 30분씩 꼭 땀 흘리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과 운동을 병행하다보면 하루가 금방 가는데 나는 “하루가 인생이다”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질문) 선배님께서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이세요?

답) (한참을 생각하신 후) 나는 사람들이 목표를 너무 쉽게 세운다고 생각해요. 목표를 세울 때는 그 목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나는 목표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가치를 깊게 생각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목표를 세우면 그 사람은 늘 시간이 부족하고 게을러 질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며 열심히 사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남은 인생 ‘사람답게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뺏는 것이 죄송스럽다고 느낄 시간이 되어 인터뷰는 종료되었다. 마침 점심 시간이라 우리는 선배님을 따라 구내식당으로 이동했다. 선배님께서 근사한 회장님 식탁이 아닌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같은 식단을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오늘의 메뉴인 삼계탕을 먹으며 선배님과 오붓한 점심 식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우리 학교 급식이 이런 맛이라면 학교생활을 6년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1층 로비로 이동했는데 식사를 먼저 마친 사무직원들이 스크린 야구, 골프를 즐기고 있었고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풍경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물론 처음에는 1년이라는 ‘경험’의 시간을 거쳐야 했지만,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무료 카페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레몬에이드를 주셔서 후식까지 완벽히 끝낼 수 있었다. 우리가 가장 놀랐던 점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선배님이 계단을 따라 1층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리고 1층에서 만난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회장님을 너무 자연스럽게 대한다는 것이었다. 시설 복지 못지않게 직원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소통의 복지가 소속감의 원천이고 회사 발전의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이제 생산 공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생산 라인 견학만이 남았다. 그런데 아쉽게도 생산 라인 직원들의 점심시간이 시작

되는 시점이라 라인 가동이 중단되어 견학을 할 수 없었다. 물론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었지만 멀리서 찾아온 후배들을 위해 귀한 시간 내어 주신 선배님의 시간을 마냥 빼앗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대신 선배님으로부터 직접 생산 라인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씨엔에프 본사의 생산 공장은 바로 우리가 감탄 했던 1층 로비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다. 항공 우주산업 설비를 갖춘 지하 공장은 먼지 하나 들어갈 수 없도록 반도체 공장에서처럼 모든 직원들이 특수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한다. 궁금한 학생들은 유튜브에 ‘씨엔에프’를 검색해 보면 어떤 공정으로 제품이 생산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인터뷰 모든 과정을 마치고 서울로 출발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선배님은 화장품 선물 꾸러미를 손수 챙겨 주셨다. 꼭 엄마 갖다 드려야지 여자 친구 주면 안 된다는 농담과 함께, 1층 로비에서 직접 사진 구도까지 점점 해가시며 몇 컷, 그리고 건물 밖에서 역시 가장 좋은 각도를 찾아주시며 몇 컷, 그렇게 인터뷰는 끝났다.

그런데 주차장에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밴이 눈에 띄었다. 선배님도 가끔 연예인 기분을 내고 싶으신 걸까? 사실 그 밴은 외국 바이어들을 위한 것이었다. 서류 가방을 들고 공항에 도착한 외국 바이어들 대부분은 공항에서 본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조차 서류를 꺼내 보기 일쑤인데 승용차보다는 실내 공간이 넓은 밴이 업무를 보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밴을 구입하셨다고 한다. 1층 로비에 최고의 휴게 시설을 만들어 주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자신이 직접 그 공간을 활용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셨던 사례나 후배들을 위해 일일이 사진 찍을 장소와 구도까지 챙겨 주시는 모습이 밴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머릿속에 오버랩 되었다. 아마 선배님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시는 ‘배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를 마무리하며 선배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정리해 본다.

1. 남들보다 앞서고 싶다면 부지런해라!
2.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관을 키우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키워라!
3. 편안함을 견제해라!
4. 가치 있는 목적을 먼저 생각하며 목표를 세워라!
5. 가장 소중한 시간인 오늘을 의미 있게 할 명언이나 단어를 찾아 실천해라!



SPIRIT OF BOIN

2019년의 보인에게 '111'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다. 2019년은 **보인 개교 111주년**이 되는 해라는 것. '111'을 나누어 '**1+1+1**'로 본다면, '**날로 새롭게**', '**바르게 살자**', '**베풀며 살자**'라는 **보인의 세 가지 교훈**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 갑자기 교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의아할 수 있겠지만, 2019년 보인의 학교 목표는 '교훈의 실천'과 '애교심 함양'이었던 만큼, 올해 보인고에서 '교훈'이라는 두 글자는 단연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키워드였을 것이다.

여기서는 보인의 세 가지 교훈의 모범이 되는 보인의 가족들을 각각 소개해보려 한다.

먼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통해 나날이 발전하는 **보인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 그리고 국가대표 수비수로서 보인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재익 선수**(보인고 통산 109회 졸업생)의 이야기를 통해 보인의 '우신(又新, 날로 새롭게)' 정신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송파구청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에 맞춰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데 출발점이 되었던 **역사 동아리 '메모리얼'**을 통해 '바르게 살자'를 실천하는 보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인고 학생들의 '소록도 봉사 활동'**과 **학생과 학부모님이 함께 하는 '반찬 만들기 봉사 활동'**을 통해 보인의 '베풀며 살자' 정신까지 느껴본다면 이 글을 읽은 보인인(輔仁人)들의 마음은 애교심과 자부심으로 충만할 것이다.

SPIRIT OF BOIN

보인고등학교의

교훈 소개

날로 새롭게 바르게 살자 배풀며 살자



1. 날로 새롭게

유교 경전 ‘예기(禮記)’의 대학(大學)편에는 ‘一新이면 日日新하고 又日新’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끊임없이 보다 나은 사람이 되어 가자’라는 뜻, 즉 ‘날로 새롭게’를 의미한다. 이 구절은 탕 임금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는데, 그는 자신의 반명(盤銘, 제사 때 손을 씻는 대야)에 ‘일일신 우일신(日日新 又日新)’이라는 글귀를 새겨두고 손을 씻을 때마다 이를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

그렇다면 날로 새롭게 사는 삶의 자세는 어떻게 만들어 가면 좋을까? 첫째, 바람직한 목표를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의 자세를 갖자. 둘째, 자신의 삶에 대해 냉정하게 반성하고 평가하자. 셋째,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찾으며 자기를 존중하는 삶을 살자.

‘진실로 하루라도 새롭게 하자면,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 우리는 안일함과 나태함에 몸을 맡기지 말고, 매일 자신을 다잡아갈 필요가 있다. 과거의 익숙함과 구습에 매여 새로워지기를 포기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진정한 소통도 중단된다.

2. 바르게 살자

두 번째 교훈이 강조하는 것은 ‘신뢰’와 ‘정직’이며, 이는 『대학』과 『중용』에서 강조하는 ‘신독(愼獨)’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신독’이란 다른 사람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스스로를 지키고 돌아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남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착한 일을 행하고, 남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곳에서 고운 말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위험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 겉으로는 어질고 자비로운 척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고 어떤 순간에는 행동으로 옮

길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앞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동서양의 여러 사상가는 예로부터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행일치(知行一致)’를 도덕적 삶의 모습으로 강조하였다. 우리가 지행일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덕적 사고를 도덕적 행동으로 옮기려는 노력과 용기가 필요하다.

3. 배풀며 살자

배우는 삶이란 자신이 가진 시간과 능력, 노력을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는 것이다. 고등학생인 우리가 다른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배움의 가치는 ‘진실한 마음’에 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봉사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보자. 봉사 활동에는 금전적, 육체적, 시간적 손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을 타인과 나누었을 때에 얻게 되는 뿌듯한 기쁨과 보람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삶의 활력소이며 새로운 에너지가 된다.

진정한 나눔이란 자발성, 지속성, 무대가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행해야 하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지속성을 갖는 것이 좋다. 또한, 나눔이란 돈이나 칭찬, 명성과 같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른 무엇을 바라고서 하는 나눔은 위선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첫 번째 교훈 날로 새롭게

20716 오제우

① 보인고등학교 축구부

보인고등학교 축구부는 뛰어난 실력과 좋은 성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국대회 및 지역 고등 리그 입상은 물론, 구자철, 이재익 등과 같은 유명한 축구선수들을 많이 배출해내기도 하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날로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그들을 만나보았다. 인터뷰에 응해준 보인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간절한 목표와 꿈을 위해 힘든 훈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축구부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Q1. 축구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 일과가 궁금합니다.

● A1. 6시 반에 기상을 한 후 운동장을 걸으며 아침 체조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3교시까지지만 정규수업을 듣고 11시 반에 점심을 먹는데, 축구부 숙소 안에 식당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훈련은 4시부터 시작됩니다. 운동장에서 2시간 동안 운동한 후에는 짧은 휴식을 가집니다. 휴식 후에는 건물 지하에 있는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하고 있어요. 헬스장에서의 운동을 끝으로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보니 정말 하루 일과가 운동만으로 딱 차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노력 없이는 어떤 성취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평일을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나면, 주말 동안에는 본가에 돌아가 휴식을 취합니다. 대부분의 보인고 학생들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듯, 우리도 대부분의 일과를 운동에 투자하고, 운동 이외의 시간에는 다른 학생들처럼 친구들을 만나거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는 등 자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Q2. 축구선수를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진학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문제였을 것 같아요. 보인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A2. 첫째는 당연히 보인고등학교 축구부가 다른 고등학교 축구부보다 축구 실력이 뛰어나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뛰어난 실력은 높은 대학 진학률을 통해 증명되고 있고, 소위 명문대에 진학하는 선배님들도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우리 학교의 경기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선배님들이 프로 리그로 진출하셨고 좋은 대학교로 진학하신 선배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둘째는 경험이 많고 실력이 뛰어난 선배님들과의 훈련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입학하기 전에는 체감하지 못했지만, 실제로 보인고에 진학해보니 우수한 실력의 선배님들이 많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멋진 선배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실력적으로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고,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그것이 큰 힘이 돼요.

Q3. 운동하면서 힘든 순간이 많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순간은 언제이고 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A3. 중학교 때는 걱정 없이 운동을 했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축구부 학생들은 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축구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떡하지?’와 같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드는 순간이 많아요. 하지만 축구로 인한 고민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축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민을 잠시 미루어두고 나의 모든 것을 운동에 쏟아 부을 때면 이런 걱정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것은 힘들어도 계속 훈련해야 하는 이유이자, 동시에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Q4. 보인고 축구부원으로서의 목표와 여러분 개개인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 A4. 보인고 축구부원으로서의 목표는 내년에 2, 3학년 선배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축구부원 개개인의 목표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프로팀에 입단하여 멋진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겠죠. 모두가 멋진 축구선수가 되어 각자의 이름을 빛내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② 축구 선수 이재익 (2018년 제 74회(통산 109회) 졸업생)

2019년 6월, 전 국민의 마음을 뜨겁게 뒤흔들며 우리를 하나로 만든 그것을 기억하는가. 정정용호 태극전사들은 폴란드에서 개최한 2019 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이라는 한국 축구 사상 최고의 결과를 얻어냈다. 그리고 이재익 선수는 조별리그 1차전인 포르투갈전부터 결승전인 우크라이나전까지 모든 경기에 출전하여, 주전 수비수로서 견고한 수비 라인의 한 축을 맡아 대한민국의 준우승에 크게 일조하였다. 이후 7월에는 카타르 알 라이안으로 이적하였고, 10월에는 A매치를 앞두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되어 2022 카타르 월드컵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인고등학교, 나아가 대한민국을 드높이고 있는 자랑스러운 동문 이재익 선수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2016년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우승 당시

Q1. 지난 8월, 카타르 스타스 리그 움살랄과의 개막전에서 멋진 골을 넣은 것 축하드립니다. 알 라이안으로 이적한 이후 카타르 무대 데뷔골이었는데,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 A1. 사실, 데뷔골을 넣은 바로 그 순간에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짜릿하다,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텅텅했던 것 같아요. 골은 넣었지만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집중의 끈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경기가 모두 끝나고 나서 숙소로 돌아와 골 넣는 장면을 돌려보고 난 후 그때서야 굉장히 기쁘고 뿌듯하더라고요.



▲ 이재익 선수 프로필



▲ 보인고 재학 당시 훈련 모습



▲ 보인고 재학 당시 훈련 모습



▲ 고등학교 시절 스페인 전지훈련 모습

Q2. 중학교 때까지는 공격수, 미드필더로 활약했고 보인고등학교에 와서 수비수로 전향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전향하게 되었나요? 또, 전향한 이후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 A2. 보인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 심덕보 감독님의 추천으로 포지션을 변경했어요. 감독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나요.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친구들보다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큰 용기를 얻었어요. 어떤 포지션이든 자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니 포지션을 변경한 후에도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까지는 적극적인 면이 떨어졌었는데, 보인고등학교에 오면서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고1때부터 대학생 선수들과 연습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을 많이 보완할 수 있었어요. 보인고를 통해 가장 크게 성장한 점은 멘탈 관리 방법이에요. 제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작은 실수에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패스ミス 하나도 용납을 못했을 정도였는데,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실수를 하더라도 금방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Q3. 이재익 선수에게 보인고등학교에서의 3년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 A3. 보인고등학교에서의 3년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간절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꿈을 향한 간절함으로 3년을 보냈고, 그것이 현재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절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보인고등학교의 감독님과 코치님을 덕이었고요. 감독님, 코치님, 선생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것은 지금도 여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던 3년은 보인고 축구부 성적이 특히 좋았던 시기여서 고등학교 생활은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Q4. 축구선수로서 이재익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무엇인가요?

● A4. 축구선수로서의 신념이면서 동시에 ‘이재익’이라는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삶의 신념은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쉽게 성취

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부딪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5. 이재익 선수와 같은 멋진 축구선수를 꿈꾸고 있는 보인고 축구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나 격려 부탁드립니다.

● A5.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위치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조언하기에는 저부터도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요. 보인고 축구부 후배들을 생각하면 조언이라기보다는 응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후배들이 현재는 고등학생 신분이지만 스스로가 이미 프로 선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다면 좋겠어요. 그래야 축구 선수로서의 목표도 더 뚜렷해지고 간절함도 더 커지거든요. 뭐든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어요. 힘든 순간도 많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필드에서 꼭 만날 수 있길 바라요.

Q6. 축구선수로서 앞으로의 목표를 말해주세요.

● A6. 현재로선, 앞으로의 가장 큰 목표는 당연히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경기를 뛰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책임감도 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의 무게를 견디며 맞서 싸워 이기고 싶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현재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은 이재익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이전이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에 대한 축하를 전한다.)



◀ 2019년 7월 카타르 알 라이안 이적 당시

두 번째 교훈 바르게 살자

20104 김민재

역사 동아리 ‘메모리얼’,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

2018년 7월 12일 보인고등학교 역사탐구 동아리 메모리얼은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게시했다.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보인 학생들의 의지는 건립추진 서명운동으로 이어져 2019년 1월 25일에는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후 각계각층의 131개 단체 2800여 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기 위해 뜻을 모았고, 6개월 만에 시민 성금 1억 원이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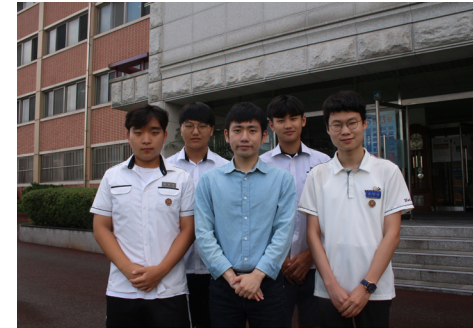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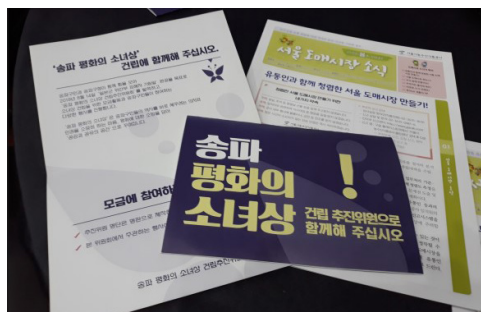
그 결과, 2019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에 맞추어 송파책박물관에서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식이 개최되었고, 평화의 소녀상 조형물은 ‘기억과 인권과 평화의 정원’에 설치되었다. 또한, ‘메모리얼’은 제 28회 송파구민의 날에서 송파구민상 모범청소년 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번 기사에서는 메모리얼 동아리 부장 2학년 최지명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와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실천에 옮겨 소녀상 건립을 주도한 메모리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Q1. 역사탐구 동아리 ‘메모리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 A1. 안녕하세요. 역사탐구 동아리 ‘메모리얼’ 부장 최지명입니다. 메모리얼은 역사를 좋아하고 역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자신이 심층적으로 연구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의 및 토론 활동을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Q2.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A2.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우리가 직접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우리끼리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고자 했는데, 좀 더 넓은 곳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서 ‘송파구 구청장에게 말한다.’라는 사이트에 송파구에 소녀상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건의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흔쾌히 저희의 제안을 수용해 주셔서 실제 건립까지 추진될 수 있었어요.



Q3. ‘평화의 소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A3. 부장인 저와 차장인 2학년 김성원 학생이 저희 메모리얼을 담당해 주신 김민준 선생님과 함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회의에 여러 번 참여하며 건립 추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 실제적인 무언가를 주도하는 경험이 처음이었고, 동료 학생들이 아닌 각 분야에 다양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 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일도 처음이라, 매 회의마다 긴장된 마음으로 참석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이 모두 저희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저희도 힘을 얻어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아우르는 청소년·청년 서포터즈 활동에도 참여하여, 거리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의 홍보활동에도 힘썼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계시는 평화의 집도 방문하여, 소녀상 건립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어요.

Q4.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메모리얼 부원들도 느낀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 A4. 물론입니다. 부당하게 몸과 마음, 청춘을 빼앗겨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까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에게도 일본은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작은 노력이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와 합당한 보상을 가져올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분들의 상처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Q5.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기 위해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바가 있을까요?

● A5.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겠죠.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단순히 아는 차원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실들을 주체적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많은 학생들이 유튜브나 여러 커뮤니티들을 통해 잘못된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검증된 여러 자료들을 다각적으로 참고하여 올바른 역사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메모리얼이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기까지 많은 도움과 관심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메모리얼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 베풀머 살자

20620 이동훈

① 국립 소록도 병원 봉사활동

소록도,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리에 위치한 섬으로, 우리나라의 많고 많은 섬 중 하나지만, 특별한 것이 하나 있다.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작은 사슴을 닮은 섬이라고 하여 ‘소록도’라는 이름이 붙은 아름다운 이 섬에는 슬픈 역사가 있다. 과거 일제는 한센병 환자들을 모아 치료하겠다는 목적으로 환자들을 소록도에 수용했다. 하지만 환자 치료는 명분이었을 뿐, 일제는 고립된 곳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감금하고 착취했다. 보인고등학교에서는 3박 4일간 7, 9, 11월 세 차례에 걸쳐 국립 소록도 병원으로 봉사활동을 간다. 한센병 환자들의 슬픈 역사를 직접 보고 들으며, 미약할지라도 진심을 담아 ‘베풀’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보인고 학생들의 모습을 담아 보았다.

소록도로 떠나기 전 봉사 활동을 떠나는 보인고 학생들의 마음에는 기대보다는 조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앞섰다고 한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에 격리되어, 부정적 편견들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신체적 고통만큼이나 컸을 한센병 환자들에게 혹여나 실례가 되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다르게, 국립 소록도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과 관계자분들께서는 학생들을 따뜻하고 편안히 맞아주셨고, 한센병을 앓고 계신 노인분들께서는 몸이 조금 불편하시긴 했지만 오히려 소록도의 공기가 서울보다 더 맑은 탓인지, 일반 노인 분들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도 계셨다.

우리 학생들이 봉사자로서 맡았던 일들은 환자분들을 위해 물 갈아드리기, 식판 가져다드리기, 식사하시는 것 도와드리기 등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다만,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 드리는 일은 다소 낯설었다. 어르신



과의 대화 경험이 적었기에 그것이 익숙한 일은 아니었지만,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친해지고 우리 학생들을 손주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신 덕분에 학생들도 곧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록도에 장기간 봉사를 하고 계시는 개인 봉사자분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은 소록도 봉사 활동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우리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힘들었다고 한 것은 4시 20분 기상이었다.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 보인고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은 4시 20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마치고 병원에 도착한 뒤에야 서서히 잠이 깨기 시작했을 정도로 새벽 기상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일단 봉사가 시작되고 나면 학생들은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고, 물을 갈아드리고, 식사를 도와드리면서 새벽봉사를 성실히 수행했다. 새벽봉사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갈 때쯤에도 아직 해가 뜨지 않아 하늘은 어둡고 몸도 다소 지쳐, 마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숙소에 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한다.

새벽 봉사가 끝난 후 숙소에서 잠시 잠을 보충하고 나면 오전 일과가 시작된다. 오전 일과도 새벽 일과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어르신들 직접 뵙고 말동무 해드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르신들께서는 말벗이 되어 드리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재미있는 옛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 그러다보면 어느새 오전 일과가 끝나 있다.

오전 일과 후 잠깐의 휴식을 가지게 되는데, 많은 학생들은 소록도의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하며 산책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의 자유 시간을 보낸다. 휴식 시간 이후의 오후 일과

역시 어르신들과 즐겁고 다정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봉사 활동을 다녀온 학생들은 자신이 도움을 드린 것보다 봉사를 통해 얻은 것이 더 많다고 한다. 학생들과 한센병 환자분들 사이에 오간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들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배려와 사랑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바쁘게 병실들을 오가며 언제나 어르신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러 노력했고, 환자분들 역시 봉사 활동이 낯설었을 보인고 학생들을 언제나 따뜻이 대해주시고 배려해주시려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보인고등학교의 소록도 봉사 활동을 통해 우리는 봉사의 참 뜻을 알 수 있다. 나누고 베푸는 정신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하고 서로 배려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봉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소록도 봉사가 끝나고 몇 달이 지난 지금에도 환자분들의 안부가 궁금하고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가 그리워지는 것은, 그들이 봉사를 통해 배려와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 아닐까.



세 번째 교훈 베풀며 살자

20331 진현승, 10211 김승현

②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

보인고등학교에서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장애인분들과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기 봉사활동이 진행되었고, 2019년 9월부터 2기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10일, 교지편집부에서는 '송파구립 인성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자세한 내용을 취재하고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보인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베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약 10여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아침 9시 30분부터 복지관에 모여 봉사활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이었지만 모두 피곤한 기색 없이 환한 얼굴로 봉사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품은 모습이었다. 먼저, 학생들은 봉사활동에 대한 간단한 교육을 듣고, 지역사회 봉사의 일환으로 복지관 주변 지역 정화활동을 한다. 그 사이 학부모님들은 독거노인분들께 드릴 반찬을 준비하고, 정화활동을 마친 학생들이 그 반찬을 직접 독거노인 분들 댁으로 배달한다. 봉사활동에서 준비하는 반찬 식단은 1년치를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육류, 나물 종류는 물론 제철음식까지



골고루 갖춘 식단이라고 한다. 봉사활동은 총 3시간이 걸리지만, 뜨거운 여름날 정화 활동을 하는 것이나, 반찬을 준비하는 일, 독거노인 분들 댁을 찾기 위해 지도를 보며 직접 발로 뛰어다니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처럼 육체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활동이지만, 그만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보람과 깨달음을 주는 활동이기도 했다.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앞서 소양교육이 진행되는데, 이때 강사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 봉사활동이 약자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표현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었다. 즉, 이 봉사활동의 목표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므로, 그것이 가벼운 동정의 표현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8년 9월부터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학부모님은 이 봉사활동을 통해 얻는 기쁨이 자신에게 큰 활력을 주며, 다른 학부모님들과 함께 반찬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반찬을 만드는 방법도 새롭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이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삶의 자세를 배웠다고 한다.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이 더 의미 있는 것은, 이 활동이 학교의 주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 주체적으로 마음을 모아 시작된 활동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중학생이었을 때에도 다른 곳에서 반찬 만들기 봉사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는 보인고등학교에서 기회가 닿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한다. 학부모와 학생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봉사를 한다는 점에서 '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이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는 굉장히 크다. 2020년에도 진행될 이 봉사활동에 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기원해 본다.





1908

SCHOOL HAPPENINGS

보인고 학생들에게 2019년은 어떤 의미로 기억될까. 2019년이 자신에게 남긴 강렬한 기억들은 각자 다르겠지만, 분명 그 기억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우리 학교 보인일 것이다.

산시대학교 부속고등학교와의 MOU협약 체결, 파릇한 봄날처럼 따스한 기억을 안겨다준 **1학년 수련회와 2학년 수학여행**, 숨겨왔던 자신의 끼와 흥을 유감없이 발산할 수 있었던 **보인 천년제**,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 자발적으로 모여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보인고의 정규 및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 꿈을 향한 보인고의 치열한 날갯짓을 느껴보고자 한다. 올해 있었던 크고 굵직한 행사들을 돌아보며 2019년이라는 기억의 서랍에 담겨 있는 추억의 향기를 다시 한번 맡아보자.

SCHOOL HAPPENINGS

보인고등학교 산시대학교 부속고등학교 MOU 협약 체결



2019년 6월 24일, 서울시 송파구의 자립형 사립고 보인고등학교와 중국 산시성의 산시대학교 부속고등학교와의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식(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각 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의 교류와 함께 상호협력관계를 맺어, 세계로 뻗어 나가는 보인고등학교가 되기 위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보인고 학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자, 중국 산시성 5개 대학교 (산시대학교, 산시의과대학교, 산시사범대학교, 산시대학교 재정-경제대학교, 태원이공대학교) 에서 입학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2019년 보인고등학교는 111살이 되었습니다. 이번 산시대학교 부속고등학교와의 MOU 체결로,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학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천 년의 미래로 달려가는 보인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보인고등학교- 산시대부속고등학교 MOU 체결

2019년 6월 24일
서울시 송파구의 사립고 보인고등학교와
중국 산시성의 산시대학교 부속고등학교와의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식(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대주학원
김석한 이사장님



산시성 교육청장
Wu Junging



보인고등학교 교장 김종환(좌) 산시대학부속고등학교장 Li Wei(우)



中·高等學校 2019.6.24.(月) 中國山西大學校附

학교간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협약

각 학교의 교사 및 학생들의 교류와 함께
상호협력관계를 맺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보인고등학교가
되기위한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1학년 수련회

(3/13~15)



10619 이종현, 11130 조현준

① 첫째 날

입학한지 3주가 지나고, 손꼽아 기다리던 수련회의 아침이 왔다. 수련회의 시작을 알리는 담임 선생님의 인원 점검과 함께 버스는 출발했다. 학기 초의 어색함 때문인지 버스 내부는 떠들썩하기보다는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자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 분위기는 수련회가 끝난 후 정반대가 된다.

도착 후 우리는 강당에 모여 입소식을 치르고 '학교사랑 O/X 퀴즈'를 진행했다. 문화상품권이 걸려있는 이 활동은 학교와 선생님들에 관한 O/X 퀴즈였다. 3번 문제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되었으나 '우리 학교의 교훈이 '중용'에서 온 것이다'라는 4번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대거 탈락했다. 이후로도 '원어민 선생님(Mr. Pike)께서 가장 좋아하는 국내 관광지가 무엇일까?' 등의 문제가 출제되었다. 답이 공개될 때마다 오답자들의 탄식과 정답자들의 기쁨이 강당을 가득 채웠다.

긴장감 넘치던 퀴즈 활동이 끝나고 본격적인 수련활동이 시작되었다. '우리의 이익을 최대로'라는 경영 서바이벌 게임은 반별로 사업 상품을 홍보하는 활동이었는데, 반마다 개성적인 상품들이 가득했다. 어떤 반은 담임 선생님의 과목이 역사라는 점을 살려 텍스트를 판매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또 여러 직급의 사원들이 나와 자신의 상품과 회사의 복지를 과시하고 홍보하며 손님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윽고 1학년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던 '서바이벌' 활동이 이어졌다. 강당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총을 들고 상대 팀의 머리에 있는 센서를 맞춰서 팀 점수를 올리는 활동으로, 게임 '배틀 그라운드'와 비슷했다. 활동이 시작되자 우리는 게임 속 캐릭터라도 된 듯 활동으로 빠져들었다. 상대 진영으로 달려가 난사하기도 하고 멀리서 맞추려고도 하는 등 각자 다양한 전술을 펼쳐보였다.

저녁 식사 후에는 레크레이션 및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다. 랩 무대를 선보인 학생이 제일 많았고, 발라드 무대를 통해 가창력을 선보인 학생들도 있었다. 매 무대가 끝날 때마다 함성과 환호가 수련원을 꽉 채워주었다. 브레이크 댄스 무대를 끝으로 뜨거웠던 장기자랑 시간이 마무리 됐다.

② 둘째 날

'Team Demonstration'이라는 활동으로 둘째 날 활동이 시작되었다. 반별로 자신의 반을 소개하고 율동을 만들어서 다른 반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이었는데,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어서 큰 종이에 우리가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쓴 포스트잇을 붙여 채우는 시간인 '교훈 실천 다짐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는데, 교훈의 의미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높은 탑에서 오로지 줄에만 매달려 여러 다리를 건너는 '도전! 챌린지' 활동, 학급 단체 줄넘기를 수행하는 '공동체 활동'이 이어졌다.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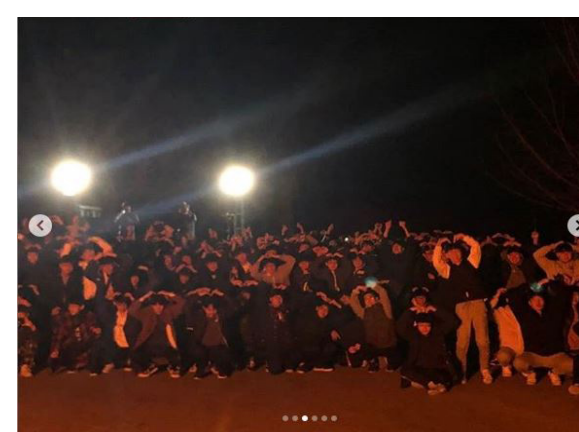
히 '공동체 활동'은 반별 팀워크를 다지기에 좋았던 시간이었다.

저녁을 먹은 후, 수련회의 꽃인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 우리는 공터로 내려갔다. 나무를 쌓아놓은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선생님들께서 불을 붙여 주셨다. 학부모회에서 준비해주신 닭강정과 함께 친구들, 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③ 셋째 날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다. 마지막이 아쉬웠던 것인지 아니면 그 전날의 피로가 다 풀리지 못한 탓인지 다들 기상하는 데 매우 힘든 모습이었다. 수련회의 마지막 활동은 '스마트 오리엔티어링'이었는데, 반별로 수련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숨겨진 QR코드를 찾아 핸드폰으로 스캔해서 나오는 사진처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활동이었다. '얼굴 몰아주기', '영화 패러디', '동물 표정 짓기' 같은 다양한 테마의 사진을 남길 수 있어 수련회가 끝난 후에도 친구들과 사진을 돌려 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활동이 모두 끝나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는 모두 아쉬운 눈치였다. 그러나 수련회로 인해서로 친해진 덕분에, 앞으로 함께 할 학교생활을 기대하며 우리의 수련회는 마무리되었다.



2학년 수학여행

전라도 여수, 순천
(5/15~17)

20313 변진형

① 첫째 날

지난밤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로 잠을 설치고 아침부터 용산역까지 오느라 피곤했던 우리들은 순천행 KTX에 몸을 실었다. 순천역에서 내리니 맑은 날씨가 우리를 환영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갈비찜 정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의 첫 번째 행선지는 순천만 국가정원이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이다. 이곳에는 23개국이 참여하여 각 나라들의 특징을 살려 만든 정원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호수가 조화롭게 꾸며져 있었고,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던 우리들의 폐는 그곳의 맑은 공기로 정화될 수 있었다.

스카이큐브를 타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순천만 습지였다. 스카이큐브는 순천만 습지를 배기가 스나 교통 혼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무인 모노레일(Personal Rapid Transit)이다.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를 편하게 순천만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순천만에 도착해서 우리는 아주 먼 길을 걸어야 했다. 용산전망대까지 가는 길은 정말 멀고 높았다.



맑은 날씨도 너무나 뜨겁게 느껴졌고 포기하여 하산하고자 했던 학생들도 많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망대까지 도착해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순천만 습지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② 둘째 날

둘째 날 우리는 먼저 갯 라인을 탔다. 타기 전에 갯 라인의 거리를 보니 끝이 없어보였지만 막상 타보니 금방 끝나서 다시 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 후 아쿠아리움에 방문하여 바다거북, 해파리 등 희귀한 바다생물들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구경하였다. 다음 목적지는 이순신대교 전망대였다. 이순신대교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이 일어난 경상남도 남해군 노량리와 하동군 노량리 사이를 흐르는 노량해협과 인접한 곳에 건설된 다리로, 여수시 모도와 광양시 금호동 사이를 연결하는 총길이 2260M의 현수교이다. 바다의 풍경과 다리의 웅장함이 잘 어우러져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었다.

맑은 하늘도 우리들이 멋진 사진을 찍는데 큰 몫을 해주었다.

③ 셋째 날

수학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먼저 레일바이크를 타러 출발했다. 레일바이크를 타면서 바라본 바다 경치는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푸른 바다를 보면서 폐달을 굴리다 보면 힘든지도 모르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다음으로 갔던 곳은 이순신 광장이었다. 이순신 광장에는 이순신 동상과 거북선을 축소시켜 만들어놓은 모형이 있었다. 주변에는 TV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도 출연한 꿈 트라볼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고민하느라 애

를 먹었던 곳이다. 우리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광양 제철소였다. 빨강계 녹은 철이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제철소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길고도 짧은 수학여행은 끝이 났다. 학업으로 지친 우리들을 편히 쉬게 해준 수학여행은 앞으로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보인 천년제

20233 정지민, 20413 박재형, 10129 윤영규

지난 2019년 7월 19일, 전교생이 손꼽아 기다리던 우리 학교의 축제, 보인 천년제가 열렸다. 복고를 주제로 삼았던 이번 2019년 축제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로, 보인고 1, 2학년들에게는 고등학교에 와서 처음 맞이하는 축제였기에 축제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다.

축제 당일 이른 아침부터 각 동아리에서는 분주하게 행사 부스 운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학생회는 학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축제 포스터를 붙이는 등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바빠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10시,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리며 보인 천년제 전반부 행사가 시작되었다. 전반부 행사는 2018년에 진행되었던 동아리 발표회처럼 각 동아리가 다양한 흥미로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역시 2년 만에 돌아온 축제답게,

동아리 발표회보다 좀 더 다양하고 스케일이 큰 활동들이 많았다. 프로그래밍동아리

에서는 남고하면 빠질 수 없는 게임을 소재로 토너먼트 대회를 열어 게임왕을 정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우승자에게 상금이 주어졌고 교실 TV 화면에 게임 화면을 띄우는 등 실제 대회장처럼 만들어 구경하는 사람들도 몰입하며 즐길 수 있게 했다. 또, 글로벌경영경제동아리에서는 바와 노래방을 소재로 부스를 운영했다. 일반 노래방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개적인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는 길거리 노래방처럼 운영한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이색적인 노래방 체험 덕에 이 노래방 부스 참여를 예약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음악실 안은 항상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또한, 음악실 한 쪽에서는 시원한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바를 마련하고 음료 판매 수익금을 유기전 보호소에 기부하여, 재미뿐만 아니라 따뜻한 나눔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여러 동아리들이 각 동아리의 특색에 맞게 재미있고 독특한 부스를 운영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동아리 부스에는 이번 축제의 복고 컨셉에 잘 어울리는 수제 간판이 붙어있어 많



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더운 날씨였지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70~80년대의 유행 게임을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시어 축제 진행에 큰 도움을 주셨다. 특히, 상품으로 주신 맛있고 든든한 간식을 덕분에 보인의 학생들은 여러 부스를 체험하느라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다.

동아리 부스 체험은 4시 30분에 마무리되었고 5시부터 축제 공연이 시작되었다. 공연은 방송부가 만든 재치 넘치는 홍보 영상과 에티켓 안내 영상으로 시작되었다. 축제 공연은 보인 천년제의 하이라이트 행사로, 최재훈 학생이 감미로운 피

아노 연주로 그 문을 열어주었다. 두 번째 무대는 우리 학교 밴드부인 CROSS ROAD와 영동일고 밴드부 FS의 합동공연이었는데, 신나는 밴드음악과 각 밴드부 보컬들의 환상적인 하모니, 독특한 퍼포먼스로 내부 분위기는 금세 달아올랐다. 이후 중대부고 댄스부 FAME,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보인 WITH LUV의 댄스 공연이 이어졌고 영파여고 댄스부 YCD의 무대를 끝으로 축제 공연 1부가 마무리되었다. 2부에서는 동대부여고 댄스부 ROOKIE, 선일이미지니스고 댄스부 AD, 2학년 힙합 자율동아리 L.I.M.B.O, 1학년 조인성학생의 솔로 무대와 건대부고 댄스부 ADC, 영등포여고 댄스부 BLOSSOM, 보인고 학생회 C.O.B가 멋진 공연을 보여주었다. 2부 무대들 역시 1부 무대 못지않은 강렬한 무대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자아냈다. 특히, 1학년 조인성 학생의 '셀럽파이트', '뽕뽕' 단독 공연이 돋보였는데, 많은 학생들 앞에서도 긴장한 기색 하

나 없이 위트 있고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객들의 가장 큰 함성과 환호를 불러온 무대 중 하나였다. 외부 찬조팀들의 공연 역시 반응이 뜨거웠는데, 공연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들의 무대를 더 가까워서 보고자 좋은 자리를 맡으려는 학생들이 많았을 정도로 찬조 공연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찬조팀들의 화려하고 칼 같은 군무에 대주관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마지막으로는 학생회가 '폼생폼사', '어젯밤 이야기' 등과 같은 옛날 히트곡들에 맞춰 댄스 무대를 선보이며 축제 공연 행사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1, 2학년들에게 이번 2019년 보인 천년제는 고등학교 입학 후 처음 맞이하는 축제였기에,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컸을 것이다. 무더운 여름에 진행되는 행사였고 동아리 행사 부스를 운영하는 일이 모두에게 처음 주어진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회와 학부모님들, 선생님들과 여러 학생들의 노력으로, 2019 보인 천년제는 다양한 동아리들의 특색 있고 독특한 부스 체험 활동, 여러 공연 동아리들의 화려하고 멋진 무대들이 가득했던 최고의 축제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동아리 취재 ① BISI

(정규 동아리)

10231 황의선

PLAYBOIN 황의선(이하 H) 안녕하세요! 교지편집부 Play Boin 1학년 부원 황의선입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생물실입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 더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는 동아리 BISI를 취재하기 위해서인데요. 인터뷰에는 BISI의 부원 강재승 학생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재승 (이하 K) 안녕하세요. BISI 부원 강재승입니다.

H 바쁜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BISI가 어떤 동아리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K 네, 제가 속해 있는 동아리 BISI는 BISI-A, BISI-B, BISI-C로 나뉘집니다. 각각 물리, 생물, 화학을 담당하는데, 저는 BISI-B의 부원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평소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는 접해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동아리로, 교과서 사진으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어 좋고, 관심 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들을 쌓을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H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을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K 올해 BISI 2학년 선배들께서 동아리 홍보를 해주실 때, 2018년에는 BISI에서 브로콜리 DNA 추출 실험, 혈액형 판별 실험 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균을 이용한 미생물의 성장 최적 조건을 찾는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생물 교과와 관련하여 창의적이고 다양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H 생명과학 교과와도 연관성이 큰 실험들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학교 내신 준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K 네 맞습니다. 작년에 선배들께서 진행한 DNA 추출 실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교육과정 중 ‘생명 시스템’ 단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직접 실험을 통해 배운 이론은 정규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H 학생들 개인의 지적 호기심도 채우고, 학교 내신 공부에도 도움이 된다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들이네요. 그러면 올해 BISI-B에서는 어떤 실험을 진행하였는지 궁금합니다.

K 이번 학기에는 미생물을 순수하게 배양하는 실험, 노랑초파리의 침샘 염색체를 관찰하는 실험 등을 했습니다. 제일 기

interview

억나는 것은 세균을 염색하고 관찰하는 활동이었는데, ‘그람 염색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기준으로 세균을 ‘그람양성균’과 ‘음성균’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H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 실험들을 많이 진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실험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풍부한 과학적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K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가입을 위해 면접을 봐야합니다. 생명과학에 관한 지식을 질문해 지원자들의 과학적 소양을 판단합니다. 그래도, 엄청난 난이도의 질문을 하지는 않으니, 지원자들에게 위촉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과학적 지식만을 가진 학생들 보다는 창의적이며 매사에 적극적인 인재를 원합니다.

H 호기심 많은 과학 인재들의 모임! 참 대단합니다. 부원들끼리도 관심 있는 분야가 같으니 서로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BISI가 어필하는 사항 중 하나가 동아리 부원 간 교류가 활발하고 끈끈한 친밀감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던데요.

K 잘 알고 계시군요. 저희는 대체로 학업능력이 좋은 부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유익한 정보도 서로 공유하며 잘 소통하는 훈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H 그렇군요. BISI는 보인 고등학교를 대표하는 유명한 동아리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그러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K 앞서 말했듯이 여러 실험을 통해 과학적 소양을 기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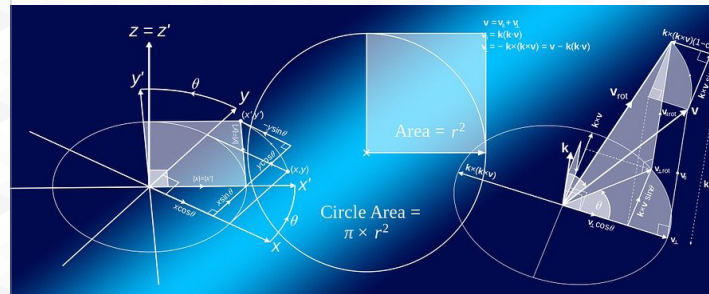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선후배간의 소통이 강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풍부한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어 서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죠.

H 마지막으로, 동아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 BISI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K 저희 동아리에 지원했던 많은 학생들이 모두 BISI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BISI에 가입하지 못해 좌절하는 모습을 봤었는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BISI 안에서 진행하는 실험들을 부원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실험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해 게시판에 붙이거나 수업시간에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H 강재승 학생의 바람대로 BISI의 활동이 보인고 학생들 모두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활동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BISI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 감사합니다.





동아리 취재 ② BOMI

(정규 동아리)

20628 최은성

PLAYBOIN 최은성(이하 C) 안녕하세요. 교지편집부 PlayBoin 2학년 부원 최은성입니다. 오늘은 보인고의 유일한 수학 동아리 BOMI를 취재해보겠습니다. 인터뷰에는 부장 김민우 학생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이하 K) 안녕하세요. BOMI 부장 김민우입니다.

C 먼저, BOMI는 어떤 동아리이고 무슨 활동을 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K BOMI는 'Boin Math Investigation'이라는 뜻으로, 수학을 좋아하는 일명 수학 덕후들이 모여서 수학 발표, 수학 체험전, 수학 독서 등 수학 관련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수학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진 약간 자랑인데, 작년 입학생 약 370명 중 거의 100장에 육박한 동아리 가입 지원서가 들어와서 선발하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C 김민우 학생은 BOMI의 부장인만큼, 동아리에 대한 애정도 크고 지원동기도 남달랐을 것 같아요. 김민우 학생이 BOMI에 지원하신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K 저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고 싶었고, 보인고 입학 당시 수학 분야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BOMI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학했던 2018년 당시에도 BOMI가 지원 경쟁률 1위였는데, 그래서 지원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2학년이 된 지금은 과학 분야의 진로를 탐색 중인데, 관심 진

로 분야가 조금 달라졌다고 해도 수학 동아리 BOMI는 어떤 이과 분야의 진로와도 잘 어울리는 곳이기에, 1학년 때 BOMI를 선택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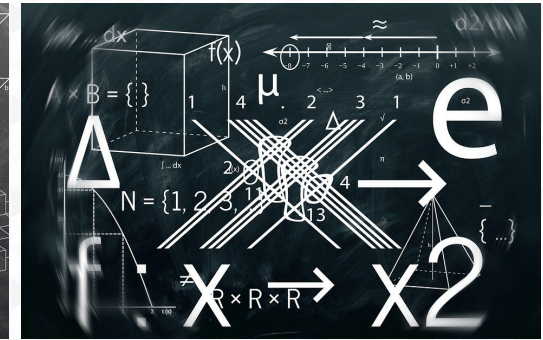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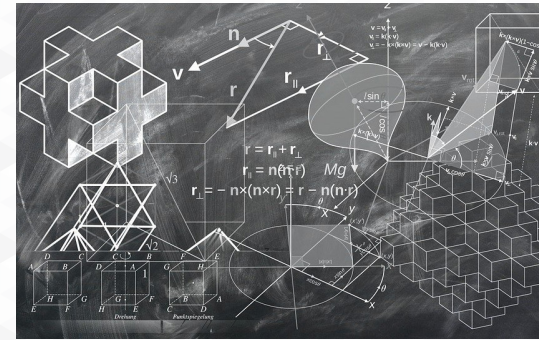
C 보인고 이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하면 BOMI에 많이 보이는데요. 유일한 수학 동아리로서 BOMI만이 가지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K 보인고의 동아리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많은 보인고 학생들이 동아리 이름만 들어도 높이 인정해주는 동아리는 저희 BOMI라고 자부합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동아리에 자부심을 느끼며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BOMI의 매력입니다.

C 동아리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과 상관없이 수학이라고 하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감을 느끼거나 재미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BOMI 학생들만의 수학을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K 저희는 다른 학교 수학 동아리나 영재학급처럼 무작정 수학을 탐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체험 위주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사실 수학에 거부감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저도 새로운 부원들을 모집할 때 수학을 잘할 필요는 없고, 수학에 관심이 있거나 하면 된다고 홍보하였는데요. 올해 BOMI를 담당

interview



해주신 한만준 선생님과 전보미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체험들을 기획해주셨고, 두 분의 도움으로 저희 동아리는 올해 세종과학고등학교 수학 체험전, 고려대학교 아두이노 수업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C 올해 역시 많은 학생들이 BOMI에 지원한 만큼, BOMI는 교내 인기 동아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BOMI가 이렇게 성장한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K BOMI가 이렇게 성장한 데에는 부원들의 도움이 매우 컸습니다. 제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차장 친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어 늘 든든하였고, 그 외에도 제가 부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면 앞장서서 나서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동아리 활동이 큰 문제없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원들 간의 끈끈한 우정과 협동심이 BOMI의 성장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원동력으로 삼아 올해는 동아리 주도로 수학 체험전을 열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 천년제에서의 카지노 부스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 이런 체험 활동을 운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K 카지노 부스는 BOMI가 예전부터 진행해오던 체험 활동입니다. 이번 보인 천년제에서는 수학적 확률을 이용한 카지노 게임을 준비하여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었고, 카드 게임을 잘 모르는 여학생들을 위해 그 외의 많은 다양한 게임도 준비하여 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가져올 수 있

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조원들이 돈을 모아 꾸집한 상품들을 직접 준비한 것이 올해 축제에서 인기 동아리 부스로 선정될 수 있었던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C BOMI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때문에 BOMI 부원들은 수리적 사고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 수학경시대회 등의 교내 수학 관련 체험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K 맞습니다. 저희는 민족사관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등의 시간을 가지며 교내 수학경시대회를 위해 함께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BOMI 부원들이 대회에서 입상하였고, BOMI의 부원 한 명은 경시대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수학에 대한 BOMI의 애정과 열정이 경시대회 수상이라는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C 마지막으로, 내년에 입학하게 될 2020학년도 1학년 학생들을 위해 한마디 해주세요.

K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이과 계열의 학생이라면, 보인고등학교 유일의 수학 동아리 BOMI에 들어오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BOMI에 대한 저의 애정을 담아 2행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 보아라! 이 동아리의
“미” 미친 존재감!!!!





동아리 취재 ③ 리보솜

(자율 동아리)

20628 최은성

PLAYBOIN 최은성(이하 C) 안녕하세요. 교지편집부 PlayBoin 2학년 부원 최은성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에 대한 탐구 정신이 넘치는 친구들이 모여 만든 자율 동아리를 취재해보겠습니다. 바로 과학탐구발표 동아리 리보솜인데요, 인터뷰에는 부장 윤재형 학생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재형 (이하 Y) 안녕하세요. 리보솜 부장 윤재형입니다.

C 먼저, 리보솜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Y 리보솜은 생명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부원들이 모여서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발표하고 탐구하는 동아리입니다. 매달 2회 화요일 오수시간에 모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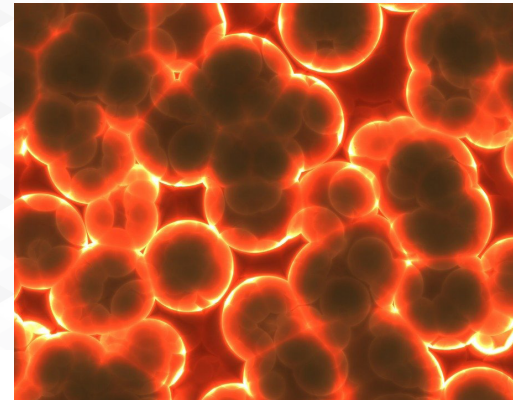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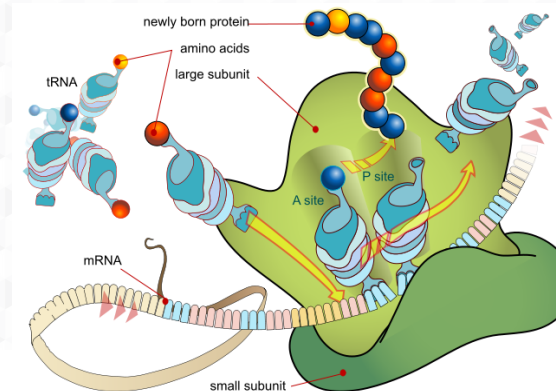
C 리보솜을 조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Y 보인고등학교에는 저를 비롯하여 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율 동아리의 매력은 스스로 동아리를 조직하고 활동 계획을 직접 짜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관심분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싶어 이렇게 직접 자율 동아리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부원들이 첫 활동시간에 모여 자기소개를 하며 자신의 꿈에 대해 발표할 때만 해도 서로 어색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비슷한 관심분야를 가진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동아리이기에 금방 친해지며 생산적인 동아리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C 보인고에는 리보솜 외에도 과학 분야의 자율동아리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리보솜만이 가지는 독보적인 특성이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Y 리보솜만의 장점이라면 바로 원활한 정보공유지요. 서로 처음 듣는 분야에 대해서 발표하며 정보를 주고받는 활동이 주를 이루다 보니,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interview



C 리보솜의 주제 탐구 발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발표는 무엇이었나요?

Y 김근용 학생의 해양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발표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해양 바이오에너지의 특징,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발표 소감으로 바이오에너지의 미래 가능성이 매우 기대된다고 했던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C 아직 해보지 못한 활동 중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가요?

Y 아직은 각자의 관심 분야에 대한 이론적 탐구 활동 위주로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학교 외부 활동이나 다양한 실험을 진행하여 부원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기억에 남을만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C 자율동아리는 정규동아리와 달리 선생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동아리 활동을 구성해 나가야 하는데 동아리 운영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Y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다. 부원들 모두 성격이 잘 맞고 서로 배려해주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가진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두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동아리 운영에 힘을 보태주고 있어 그것이 동아리 운영에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어려움은 없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실험실을 사용하는 데 다소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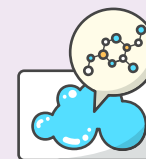
이 있어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C 생명과학 동아리인 만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생명과학 과목에서도 도움을 얻었을 것 같아요.

Y 저희가 생명과학 동아리이긴 하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생명과학 내용보다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 다루다 보니, 학교 내신 준비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원들이 자율 동아리를 조직한 것 자체가 학교 수업 내용 이외에 자신의 희망 진로와 관련하여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고 탐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아쉬움보다는 만족감이 더 크답니다.

C 자율동아리를 조직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Y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여 정보를 나눌 기회를 갖고 싶은 학생들, 알찬 생활기록부를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은 자신이 먼저 주체적으로 자율 동아리를 조직하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QUEST FOR KNOWLEDGE



1908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자신이 배운
것을 틈틈이 익혀 실천하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의 첫 문장이다. 학문에 있어 항상 겸손하여 배움을 놓지 않으며,
공부를 통해 즐거움을 얻는 것을 강조하는 이 문장은, 꿈을 향해 ‘날로 새
롭게’ 전진하는 보인고 학생들이 걸어갈 학문의 길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꾸준한 자기주도 학습으로 **목표 대학 합격에 성공한 고3**
학생들의 합격 수기, 교지편집부 부원들이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실
제 토론 후 작성한 **토론 기사**, 올해 진행되었던 각종 **경시대회 보고서**
및 수기, 백일장 우수작 등을 통해 배움의 기쁨을 몸소 느끼고 실천
하는 보인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QUEST FOR KNOWLEDGE

서울대학교 합격 수기

31105 구현모 (서울대학교 의예과 일반전형)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대 의예과에 진학하게 된 구현모입니다. 처음에 합격 수기를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할지 당황스러웠지만, 후배들에게 가볍게 조언해주는 마음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진학한 서울대 의예과는 입시 방식에 특수성이 많기에, 제가 입시 기간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중심으로 얘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입시를 거치며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입시엔 ‘확정’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 서울대 의예과에 최종 합격하긴 했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서류 심사 과정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입시 과정은 변수의 연속입니다. 그러니 도전을 하더라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저 역시 선생님들의 권유로 생각지도 않았던 서울대 의예과에 지원했으니, 자기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자료 등을 가지고 지레 낙담하지 마세요. 결국 스스로 노력한다면, 적어도 입시 과정에서는 뜻밖의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또, 재학하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되, 스스로가 그 활동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시 철에는 그동안의 활동들을 토대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을 보게 될 겁니다. 거기에 활용할 내용들이 많으려면 결국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활동을 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가 그 활동을 왜 하고, 배운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겁니다. 참

고로 생활기록부 등에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에만 열중하느라 스토리에 활동들을 끼워 맞추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슷한 주제들의 활동을 많이 참여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활용할 방법도 다양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접 및 구술고사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다양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인재상은 문·이과를 아우르는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여 최근의 면접고사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과 자연 분야 사이의 교차뿐만 아니라, 이과 영역 내에서도 환경, 화학, 물리 등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묻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니 단기간에 준비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평소에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말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면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니까요.

‘공부 비법’과 같이, 여러분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은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방식을 따라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았던 친구들을 몇 보았던 것도 이유라면 이유겠지만, 더 큰 이유는 결국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 각자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는 것, 나아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귀찮고 힘든 일이겠지만, 스스로 노력해서 찾아낸다면 그보다 좋은 길은 없을 것입니다.

다양한 팁들을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다시 강조드리건대 입시엔 수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남은 입시 기간이 힘겹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우리 학교 전교생 후배님들 모두, 저의 대학 후배가 되기를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합격 수기

30616 박상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일반전형)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에 수시 일반전형으로 합격하게 된 박상현입니다! ‘내가 뭐라고 합격수기를 쓰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자 적어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고 싶은 말은 3학년 성적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3학년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테지만 아직 그것을 몸소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제가 서울대학교를 합격할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요인이 바로 3학년 성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학년 2학기 내신과 3학년 1학기 내신의 평균 등급의 차가 1.5 이상이 날 정도로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는 성적의 ‘상승세’를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에 2학년 내신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부족하더라도, 수시 전형을 (제발) 포기하지 말고 1학기 동안만큼은 열심히 내신 공부에 임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그럼 제가 3학년 때 내신 성적을 크게 올릴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주관적인 의견들이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학 때 공부의 방향을 대충이나마 잡아놓는 것입니다. 저는 2학년부터 3학년으로 넘어가는 와중, 고3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방학 동안 밥 먹을 시간까지 아끼면서 수능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편 수시에 초점을 보다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수시 (내신, 특히 탐구 과목) 준비도 미리미리 해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물론 내신 과목들을 미리 선행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보다는 이전까지의 학교 시험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잘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회고해 어떻게 개선할

지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저는 2학년 때 국어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고, 이에 대해 생각해보며 3학년 공부의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방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저는 계획 세우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의 공부의 가장 큰 적이었던 유튜브, 핸드폰을 물리치기 위해 저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우선, ‘오늘 뭐하지?’ 식의 공부가 아니라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5주 정도 전부터 어떤 문제집을 보고, 어떤 과목을 얼마나 공부할지 등을 세세하게 작성했습니다. 비록 지키지 못하더라도 꼭 이렇게 써보는 것을 추천 드려요.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을 짜 봐야 하는 이유는,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 뭔지 모른 채로 있으면, 위급함을 느끼지 못하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저는 2학년 때 크게 실감했습니다. 계획과 목표를 정해놓지 않으면, 하고 싶은 것(youtube)을 계속 하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 두고, 좋은 성적을 받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나면, 앞으로 산적해 있는 산더미 같은 할 일들을 실감하게 되니 도저히 핸드폰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획 세우기를 통해서 욕구를 억제하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며 공부하는 것이 정말,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내신 시험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신 시험은 수능 시험과 달리 무조건 배운 곳에서 출제됩니다. 덧붙여,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하신 곳에서 문제를 출제하신다는 걸 인지하고 이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학년 내신에서 특히나 중요

해집니다. 3학년 내신은 선생님들도 1,2학년 때보다 더 철저하게 수업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려고 노력하시고, 실제로 문제도 그렇게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부를 할 때에도 괜히 쓸데없는 것들 이것저것 공부하지 마시고 수업에서 다룬 내용, 수능완성이나 수능특강같은 교재들을 죽어라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괜히 어렵고 난해한 문제들 풀어보는 일은, 물론 이해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 시험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철저하게 읽고 복습, 반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무얼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신 시험의 성격을 이해하고, 배운 내용에 충실하게,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들 내신 성적 올려서 원하는 대학 가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해군사관학교 합격 수기

30401 고준혁 (해군사관학교)

안녕하십니까. 올해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하게 된 졸업생 고준혁이라고 합니다. 최근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원자도 늘어나고 경쟁률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군사관학교를 준비하는 보인고 학생들을 위해 제 입시 경험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 입시전형 중 학교장 추천 전형을 선택했습니다. 학교장 추천을 받기 위한 가장 큰 두 가지 조건은 학업능력, 그리고 해군사관학교와의 적합성입니다. 학업능력은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해군사관학교와의 적합성은 생활기록부에 적힌 여러 기록과 평소 행실을 바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저는 1학년부터 내신을 열심히 관리해 왔고,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며 군대나 해군 관련 내용을 많이 적었습니다. 다만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2차 시험일자가 매우 빠르며(8월 중) 진성 지원자들의 비중이 높기에 위험성도 다소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기회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자신의 현 상황(학업능력, 체력 등)에 알맞게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형과 상관없이 해군사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능력과 체력입니다.

학업능력의 경우 낮게는 1차 시험의 합격 커트라인을 넘길 수 있을 정도, 높게는 고득점을 기록하여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1차 시험은 사관학교의 자체 시험이지만 평가원의 시험과 유사하므로, 수능을 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1차 시험 대비는 정답이 없습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여러 팁을 배우는 것도 좋고, 인강이나 학원을 활용하여 국영수 개념완성, 실력 쌓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런 정석적인 조언보다 오히려 제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 여러분은 남들보다 더 빨라

야 하고 더 바빠 움직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은 11월에 대수능을 보지만 여러분은 7월에 1차 시험을 봅니다. 남들처럼 공부하면 이미 완성된 재수생들을 뚫을 수 없습니다. 7월에도 충분히 재수생들을 앞지를 수 있도록 다른 학생들보다 더욱 공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체력의 경우 아무래도 1차 시험의 어려움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데, 체력 시험은 전체 점수의 10%에 해당하며, 기준도 절대적이고, 결과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준비한 수험생과 그렇지 않은 수험생의 차이가 가장 극명합니다. 저 역시 1차 시험에 집중한 나머지 3학년 때 운동을 많이 하지 못했고 결국 면접 준비기간 3주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체력을 올려야 했습니다. 겨울방학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운동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입시요강에 체력기준표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목표 점수를 세우면서 운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1차 시험이 더욱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시간을 쪼개서 조금이라도 좋으니 하루에 1500M 뛰기, 팔굽혀 펴기 정자세로 연습해보기 등 간단히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면접의 경우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군대에 관심이 많고, 해군에 대한 상식이 풍부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겠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정말로 해군사관학교에 오고 싶은지의 여부입니다. 스펙이 부족하고 점수가 낮더라도 면접관에게 자신의 진심을 최대한 보여 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면접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해군사관학교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내가 정말 해군사관학교에 가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간절하다면,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생활

기록부를 점검하면서 예상 질문을 대비하거나 군대 관련 상식을 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입시를 치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시험 일자가 이르고 재수생이 강세를 보이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오히려 제 공부와 입시의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공부하고 싶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싶어도 이 힘든 점을 인지하면서 계속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이 시험은 확실히 재수생에게 유리하고 현역생들에게 특히 불리한 시험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못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고 독하게 공부하면 재수생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어렵게 시험을 준비한 만큼 해군사관학교는 여러분에게 충분히 보답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늦지 않았으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배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될 학교생활을 기대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합격 수기

30203 김선욱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DKU인재전형)

처음에 수기를 작성하라는 말씀을 선생님께 들었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는 ‘내가 과연 문과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대표할 만큼 스펙이 뛰어난가?’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예비 고1 때, ‘학종’이라는 전형을 처음 듣고 ‘저 전형이면 나도 대학 날로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자사고가 아닌 다른 일반고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학교에서는 이렇다 할 지원이 없었고,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내신도 생각만큼 잘 나오지 않아,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곳에서 정시 준비를 하자는 마음으로 보인고등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전학을 온 김에 새로운 마음으로, 대회 하나라도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2학기에 열린 백일장에서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사고에서 상을 받았다는 사



실이 못내 기뻛고, 그때부터 종합전형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전학 절차를 밟으면서 확인해 본 바로 1학년 1학기 생활기록부는 거의 빈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다는 생각에, 급하게 종합전형에 대한 정보를 이것저것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진로에 대해서 매일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다보니, 특정 진로에 국한된 활동보다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방향을 잡아나갔습니다. 특정한 직업이나 학과보다는 계열별, 단과대별로 폭넓게 서술된 인재상을 참고해 가며 세부능력특기사항이나 진로희망사항을 채워나갔습니다.

종합전형에 대해 나름의 일가견이 생겼다고 느끼기 시작한 2학년 때부터는 모든 활동에 닥치는 대로 참가하기 보다는, ‘상경계열’이라는 목표에 맞추어 진로에 관련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CEO, 경제학 연구원’처럼 피상적인 직업이 아닌, 경영학 중에서도 홍보, 지리학 중에서도 인문지리를 합한 ‘지역홍보전문가’라는 나만의 꿈을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채워 나갔습니다. 세부능력특기사항이나 동아리특기사항, 봉사활동, 자율활동 모두 ‘지역홍보’와 연관을 지으려고 노력했고, 교내 대회는 역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참가하였습니다.

한편 ‘상경계열’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세계화시대의 리더’였기에 2학년 1학기 학급회장, 2학년 2학기 학생회 홍보부원, 3학년 1학기 학급부회장처럼 리더십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활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내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웬만하면 모두 참여해 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시를 지원할 때에는 대부분이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상향, 적정, 하향을 2장씩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정시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고, 그래서 수시지원에 더욱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3년 내내 입시 데이터를 스스로 분석했고, 그렇게 쌓은 데이터와 보인고 선배들의 입시 결과, 담임 선생님의 추천사항, 부모님의 조언 등을 균형감 있게 고민하여 수시원서를 결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5종합 1적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모집인원이 많고, 경쟁자 파악이 힘든 경영학부보다는 같은 상경대학 소속인 ‘무역학’이나 ‘국제통상학’에 초점을 두고 지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자신을 믿고 빨리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한편 원서 지원 시기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대학별로 다른 4번 문항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내가 관심이 있는 대학의 수시 모집요강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두 대학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고, 다른 두 대학에서는 예비번호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좋은 결과를 받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가장 주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지역홍보’와 ‘무역학과’ 간의 상관관계를 잘 찾아내었다는 점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참고가 되실까 하여 제 간단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글을 맺습니다.

- 생기부 약 18장, 내신 4.3 (꾸준한 상승곡선, 5→4→3 등급), 수상 약 30개, 봉사 약 60시간

건국대학교 합격 수기

30809 노영제(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논술전형)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에 논술전형으로 합격한 노영제라고 합니다. 먼저 학업에 관련된 내용에 앞서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주변의 기대나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쫓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집안 상황이나 형편이 좋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말에는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생기며 컨디션 조절이 도무지 되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목표가 있고, 주어진 상황이 있고, 나름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정신을 갇아먹으면서까지 여러분을 옳아맨다면 그건 틀린 게 아닌가,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준다면 좋겠습니다.

〈논술〉가장 먼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과인데도 인문 논술에 합격한 특이 케이스입니다. 저는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3개의 대학교에 인문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했고, 건국대학교 논술 하나만 출석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논술 학원은 한 번도 다니지 않았고, 건국대학교 논술 전 날 자정부터 논술 공부를 시작해서 약 9시간 정도만 했음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논술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논술만 공부했으니 건국대학교 논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인문논술의 첫 번째 문제는 주어진 제시문을 활용해 도표를 분석하거나, 제시문을 요약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은 어떤 인문논술이든지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잡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국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제시문만 보고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각각의 주제의 방향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고,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제시문의 내용만 읽고 주

제를 파악하려 하기 보다는, 여러 제시문을 하나의 지문처럼 읽고 그 제시문들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소위 말하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방향성을 찾는 방법은 대학들이 다 비슷합니다만, 그 방향성을 도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혹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각 대학별로 원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기출문제와 함께 주어지는 예시 답안을 통해 대학이 원하는 바를 미리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문 논술은 서술형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대학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국대학교 상경계열 논술의 수리문제의 경우에는, 그래프나 도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시장균형과 관련한 그래프 문제, 등비급수 문제, 경제와 관련된 도표 등은 거의 필수로 주어지는 듯합니다. 인문논술 수리 문제의 경우, 문제의 조건을 고려하며 계산하면 일반적인 수학문제에서 용어만 전문적으로 바꾼 것이니 그리 어렵진 않을 겁니다. 논술은 무조건 기출과 분석입니다! 특히나 인문 논술의 경우에는 분석만 잘 했다면 합격 가능성이 수직 상승하니 반드시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풀어보기를 권장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의 논술 기출문제를 뽑아 하나당 40분 정도 풀어보고 해설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생각해 본 게 전부입니다. 학원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학교의 논술에 관련하여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그뿐입니다.

〈수능〉수능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3월 학력평가 성적이 수능 성적까지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과학탐구가 각각 5~6등급 정도였는데, 수능 때는 둘 다 2등급 정도가 되었고, 국어도 4등급에서 시작해서 9월, 10월 모의평가에서는 백분위 98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3월 모의평가를 못 봤다고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꾸준히 하면 좋겠습니다.

〈내신〉

내신은 반드시 챙기기 바랍니다. 내신 안 챙기면 나중에 다른 전형 쓸 때도 꽤나 힘듭니다.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많이 보는 전형 쓰기도 힘들고, 적성 전형도 내신이 너무 낮아지면 패널티가 커집니다. 그러니 자기가 학종 준비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신이 너무 낮아지지는 않도록 꼭 챙기기 바랍니다.

후배 여러분,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먼저 떠나겠습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몸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학교생활, 고생하십시오!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합격 수기

31119 유명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 논술전형)

안녕하세요. 저는 과기대, 한양대 에리카, 인하대, 세종대, 단국대 건축공학과를 논술로 합격한 유명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신 등급이 높은 편이 아니었기에 학생부종합전형을 쓸 성적이 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논술 전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서, 학교에서 하는 논술 수업을 수강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외부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부족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한 자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부족한 자료로나마 수시로 복습을 했고, 풀어보았던 문제 유형만큼은 최소한 완벽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반복하였습니다. 몇몇 문제 유형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풀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공부방식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술 수업을 들은 주의 주말마다 수업시간 때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풀어보면서, 다음 수업시간에 첨삭을 받는 식으로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다시 풀 때 첨삭을 받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며 같은 문제를 완벽한 풀이 방법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받은 첨삭들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하여 저만의 풀이 방식에 덧붙이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제 서술 과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논술 공부를 계속 해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수능 수학 공부와 논술 수학 공부를 별개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하 파트의 경우는 비슷할지 몰라도 논술에는 수능 가형에서 다루지 않는 증명이나 수열 등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학 공부 시간을 2배로 늘렸고, 논술 공부 시간과 수능 수학 공부 시간을 확실하게 구분지어 별도의 과목으로 생각하며 공부하였습니다.

학교별로 모의 논술 일정이 나올 때쯤 저는 대략적으로 지원할 학교를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모의 논술은 지원하지 않을 학교만 골라서 시험을 보았고, 시험 문제를 추가 학습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만일 제가 지원할 대학의 모의 논술을 본다면 이후 11월이 되어서 본고사를 치를 때 해설과 답이 생각날 것 같아 이러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중앙대를 지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중앙대 모의 논술을 치렀는데, 중앙대 논술을 2주 앞두고 문제를 보았을 때 답이 생각나 버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의논술을 볼 때는 아직 논술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아까운 문제만 날린다고 생각해 학교별 논술 문제는 1~2주 전에 풀면서 공부하였습니다.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논술 공부를 줄이고 수능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논술 공부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논제 3~5개 정도만 공부하면서 논술에 대한 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유지하였습니다.

수능이 끝난 후에는, 대부분의 대학이 수능이 끝난 주 주말에 논술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보러 가기 전 2~3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푼 문제들 중 특히나 많은 첨삭을 받은 문제를 복습하고, 시험을 볼 학교의 기출 문제를 복습했습니다.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공부해 온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며 아는 것들을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불안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논술이 워낙 합격하기 어렵다 보니, '혹시나 논제가 너무 어렵게 나오면 어찌지?' 와 같은 생각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어려운 논제라면 다른 수험생에게도 똑같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술 시험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만점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적용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10503 권민재

사회자 : 지금부터 보인고등학교 교지편집부 PLAYBOIN의 첫 번째 토론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적용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켜야 하는가’라는 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5분 동안 입론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1 : 저희는 병역특례 예술체육 요원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병역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를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문화 창달, 그리고 두 번째는 국위선양입니다. 첫 번째 입론에서는 문화 창달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에 한국 드라마가 중국, 일본 등에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단순하고 경쾌한 리듬, 따라 부르기 쉬운 멜로디, 흥미로운 노랫말, 그리고 멋진 댄스가 결합된 K-POP이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드라마와 K-POP을 중심으로 ‘한류’라는 말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미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도깨비 등 한국에서 크게 흥행한 드라마들이 유럽, 아시아 등 여러 국가들로 수출되고 있고 최근의 다른 한국 드라마들 역시 미국 드라마 시장으로 진출하는 등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K-POP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작년 5월 정규 3집 앨범인 LOVE YOURSELF 轉 ‘Tear’로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200차트 1위에 올랐고 최근에는 NCT127이 빌보드200 차트 1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그 음악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한국 음악사를 넘어 해외까지 끼치는 영향은 각국 언론 등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바 있는데요. 미국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한국 내에서만 중요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2010년대 팝 음악계 전체에도 의미 있는 한 획을 그은 그룹이다. 한 그룹이 12개월 안에 빌보드 200차



트 1위를 두 번이나 한 것은 2014년 영국 그룹 원 디렉션 이후 처음일 정도로 놀라운 성과다.’라는 찬사를 받았을 정도로, 방탄소년단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전파시킨 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 25세부터 27세까지 남성은 1회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범위 내에서 출국 허가를 단 5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한다면, 방탄소년단은 내년부터 멤버 전원이 참석할 해외 일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형인 진이 만 28세가 되는 해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의 군 면제를 향한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현재 병무청이 기준으로 제시한 병역법은 올림픽 금, 은, 동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들에 한정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어 4주 기초군사훈련으로 병역 의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저희 찬성측은 병역특례 예술체육 요원 제도의 적용 범위에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이제는 찬성 측 의견에 대하여 반대 측에서 교차조사를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반대 측 교차조사 1 : 방탄소년단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 한류가 문화 창달을 하여 해외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이 ‘해외에 끼친 영향’의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체육 요원들은 아시

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3위 이상 등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서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방탄소년단 등과 같이 대중문화예술인들은 병역 특례 적용 대상 선정 기준이 애매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다음은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반대 측 입론 1 : 저는 병역특례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적용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술 체육 요원들은 경연 무대에서 범으로 정한 성적 이상을 거두면 병역 특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허나 대중문화예술인은 병역 특례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매우 불명확하다는 점에 대해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서 많은 인기를 거두며 활동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 한 명이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할 때 어떤 이유로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이 멤버가 병역 특례를 받는다면 다른 아이돌들은 왜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할까요? 다른 예술체육 요원들의 경우 국가에서 인정하는 권위 있는 대회에서 준우승 이상을 거두거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무형 문화재를 전수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병역 특례를 받는 예술인들은 매우 소수이며, 역사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에서 입상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재능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은 그들이 얼마나 국위선양을 했는가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제는 반대 측 의견에 대하여 찬성 측에서 교차조사를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 측 교차조사 1 : ‘역사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라는 점의 기준 역시 상대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뿐만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계의 여러 권위 있는 시상식도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회’의 범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찬성 측에서 두 번째 입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찬성 측 입론 2 : 병역 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 중 두 번째는 국위 선양입니다. 관련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중 한류 문화를 접하고, 이를 직접 경험하고 싶어서 한국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줍니다. 이 경제적 이익에 대해 방탄소년단의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은 중견 기업의 약 20배인 4조 1400억원의 가치에 부가가치 발생률이 1조 4000억원으로 늘어 총 5조 6000억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한류가 유행함에 따라 K-POP을 따라 부르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는 학생이 2013년에는 86,415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136,800명으로 약 5만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류는 대한민국의 한 종류뿐만 아니라, 한글을 전 세계에 전파시키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대중문화 예술인은 활동을 위해 꾸준한 연습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최근 들어 아이돌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기획사들이 안무에 고난이도의 춤 동작을 넣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안무를 연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아이돌들이 현역으로 입대한다면 아이들은 활동 기간이 짧은 특수한 직업이기 때문에 군대에서의 18개월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군 복무 기간에 연습시간을 잃게 될 것이며 해당 기간 동안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꾸



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아이들은 병역 특례 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해서 반대 측이 교차조사를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반대 측 교차조사 2 : 일단 먼저 국위선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술체육요원의 병역 특례 제도의 원래 취지는 경제적 이익 창출이 주목적이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 활동을 통해 문화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이 병역 특례 제도의 주목적이므로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낳았는지는 병역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아이들이 군대에 가면 연습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하는 직업은 아이돌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돌을 직업으로 삼지 않는 모든 대한민국의 남성들에게도 18개월이라는 시간은 자기 계발에 투자하기에 적지 않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18개월이라는 기간의 가치는 매우 소중하다는 논리를 아이들에게만 한정시키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 그러면 반대 측에서 두 번째 입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반대 측 입론 2 : 대중문화 예술인은 소속사에 속해있는 예술인으로 활동 목적은 대부분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중문화예술인은 소속사와 계약을 맺어 활동을 하여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속사에 속해있는 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술체육요원들은 국제 경연 무대에 나가 여러 상과 메달 등을 따오기 때문에 국위 선양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목적은 수익 창출이기 때문에 예술체육요원들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 오지환 선수가 실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에 뽑혀 메달까지 수상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도 보완할 점이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중문화예술인을 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국민의 여론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반대 측의 입론에 대해서 찬성 측이 교차조사를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찬성 측 교차조사 2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탄소년단이 대한민국에 가져오는 경제적 가치는 6조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18개월 동안 군복무를 한다면, 그만큼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이 병역특례제도 도입의 주목적이라고 하셨지만, 현재 방탄소년단이 한류 발전에 끼치는 공헌 역시 반대 측이 말씀하셨던 예술적 가치에 충분히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일장
1학년
운문 부문
장원

이름

11022 정현우

名
이름
태어나
처음으로
가지게되는
나의 표지판..
사람마다 다른
각자만의 색깔로
그러나가는 표지판
비슷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같을 수 없는
온 우주 나만의 표지판.
모양도 크기도 다르지만
소중하지 않은 것 없는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지구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우리 이름
누군가 부를때면
나타나는 이름
긴장될 때도
슬플 때도
언제라도
불리는
이름
名

잘
써도
못써도
살아서도
죽고나서도
이름은 이름
동물은 죽어서
뼈를 남기겠지만
사람이라면 죽어서
자기 이름을 남긴다.
내 이름은 어떻게될까
내 이름은 사라져버릴까
내 이름은 역사에 남을까
내 이름은 어떻게 기억될까.



백일장
1학년
산문 부문
장원

올해도 또 가을

10213 김한서

타오르던 태양이 점점 식어간다. 활개 치던 매미들도 하나둘 떨어진다. 어느 날, 어느 누군가에게는 열정과 희망으로, 어느 날, 어느 누군가에게는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왔을 여름이 언제나 그랬듯 시나브로 우리 등 뒤로 숨는다. 얼마 전 늦은 밤, 창문을 바라보던 중 가을을 만났다. 가을은 내게 은은하게 달콤한 향이 나는 바람을 타고 다가왔다. 특유의 향내가 굳은 마음을 두드려주며 감성을 물씬 느끼게 해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내가 갖고 있다고 믿는 그 감성 말이다. 기분이 좋았다. 올해 가을과의 첫 만남이었다. 새롭게 다가올 가을을 맞이하기 위해 어느 날, 어느 누군가는 기대와 벅참으로, 어느 날, 어느 누군가는 긴장과 각오로 새 계절을 준비한다. 그리고서는 자신들의 모습을 상상한다. 마치 유토피아에 빠진 듯한 시간은 계절을 부여잡지 못한다. 그리고 이 시간의 끝에서 다시 한 번 마주할 현실 세계의 '나'. 하지만 가을은 달랐다. 가을은 특별했다. 가을의 끝에는 항상 온몸에 전율이 감돌게 하는 기억을 만들 수 있었다. 그 따뜻한 기억과 함께 겨울을 싱그럽게 보낼 수 있었다. 그랬기에 가을은 그런

의미로 특별했다. 올해 첫 가을을 맞이 한 그날 밤, 그랬기에 더 반가웠고,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다.

감정과 희망으로 맞이하기에, 기대에 미치기에는 기대라는 그릇이 너무 크기에 가을이 나의 기억 속에서 시련과 아픔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나는 가을에게 묻지 못했다. 올해도 매년 그랬듯이 따뜻한 기억을 품고 올 것이냐고, 매년 그랬듯이 싱그러운 겨울과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냐고, 그렇게 묻지 않았기에 오늘도 나는, 내일도 나는 희망과 기대를 연료로 삼아 하루하루를 달려나간다. 여럿 나무들이 새로 장만한 옷을 갈아입는다. 꽃단장한 나무들을 돋보이려 조명을 비춰주듯 태양은 한층 몸을 식혀 산마루 위로 떠오른다. 그렇게 새로운 가을, 17번째 가을은 시나브로 우리 앞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어느 날, 어느 누군가에게는 언제나 그랬듯 새로운 만남이 돌 가을. 꿈꿔 본다. 오늘보다 더 큰 꿈을 더 큰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

백일장
2학년
운문 부문
장원

무 제

20218 서승완

가을을 우편함에 넣어둡니다

지난 날

이름 모를 작은 해수욕장에서
새겨놓던 뜨거운 너의 이름은
차갑게 식어 지워졌기에
다시 한 번 이름을 씌웁니다.

긴 나무 아래

수줍게 미소를 건네며
작지만 강렬했던 너의 고백은
매정하게 떨어지는 나뭇잎으로 문혀졌기에
또다시 한 번 한 편의 시로 씌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작별인사를 쓰기 전

장마처럼 내려오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얼른 접어
우편함에 넣어둡니다

괜히 문틈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쌀쌀맞게 굶니다



백일장
2학년
산문 부문
장원

귀찮음

20429 한동연

“...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귀찮다’입니다. 우리 삶에 귀찮은 일이 한 두개가 아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것도 귀찮고 퇴근시간이 되어 집에 가는 것도 귀찮습니다. 전 가끔은 밥 먹는 것도 귀찮다니까요. 그런데 이 귀찮은 세상 속에서 ‘귀찮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변호사는 포토라인에 서있는 기자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하지만 마이크엔 대답 대신 침묵만이 울릴 뿐이었다.

“하하. 사실 귀찮다는 말은 발음을 천천히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바로 귀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귀하지 않다. 귀치않다. 귀찮다. 이런 식으로 줄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뭔갈 하기 싫을 때마다 ‘그 일은 내가 하기에 충분히 귀하지 않아’라는 거만한 말을 입에 달고 살아온 것입니다...”

“본론부터 말씀해주세요!”

멀리 앉아있던 기자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 제 친아버지는 제가 어릴 적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어릴 때요.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결혼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려 돌아가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새아버지와 저만 남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용케도 절 버리지 않고...”

“그래서 결론은 뭐니까.” 한 기자가 변호사의 말을 끊었다.

“... 아버지는 일일 노동직으로 공사장을 전전하며 제 등록금과 식비는 벌어야 된다며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장으로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을날에 아버지는 절름발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사정 사정을 하여 어떻게든 공사장에 출근하셨지만 공사장에서 절름발이는 골칫덩어리뿐이었겠죠. 사람들은 아버지에게 식비와 차비 하라고 만 원을 쥐어 주며 되돌려 보냈습니다. 다리를 절며 집에 돌아오시던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저에게 하시던 말이 있습니다. ‘넌 귀찮은 자식이다.’ 시간이 지나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구요. 집에 돌아가 보니 쪽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인생이 귀찮아졌으니 집을 나가겠다.’”

“그래서 변호를 하시겠단 겁니까?” 기자가 물었다.

며칠 전 혜화역 앞에서 한 여학생이 무차별한 폭행을 당하고 죽게 된 사건이 있었다. 모 S대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라 그 사건은 더욱더 빠르게 퍼져나갔고 검찰은 혜화역에서 10년 가까이 노숙을 하던 이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증거 불충분과 압박 수사 의혹은 무시된 채로 말이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전 돈도 없고 도움이 안 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인데...”

노숙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물었다.

“절던 발은 괜찮으세요?”

울음을 간신히 참던 변호사였다.

경제
보고서 대회
우수작

경제 보고서 대회 우수작

30205 남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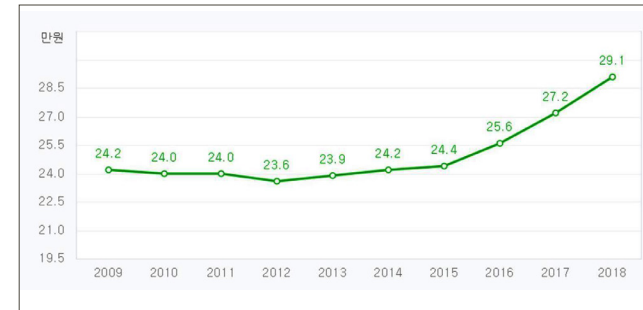
사교육비 '역대 최고치' · · · 사교육 시장은 계속 성장 중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12일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9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만 1천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7.0%(1만 9천원)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과, 사교육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듯 엄청난 규모와 성장세를 자랑하며 한국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교육 시장' 이슈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의 신분으로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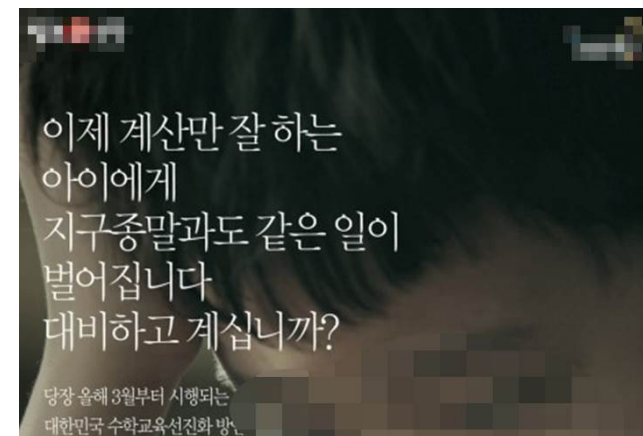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볼 '사교육 열풍의 원인과 영향'

사교육 시장 확대와 관련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탐구해 볼 주제는 '사교육 열풍의 원인과 영향'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사교육 열풍이 계속되는 원인을 사람들의 심리적 편향에 주목하는 행동경제학의 관점에서 찾아볼 계획이다. 다양한 편향 중에서도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게 낫다는 믿음'을 뜻하는 '행동 편향'의 측면에서 탐구를 진행할 것이다. '대학 입시 정책의 잦은 변화와 학원들의 전략적 홍보에 기인한 불안 심리가 학부모와 학생의 행동 편향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교육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설문조사 및 통계수치 조사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사교육 열풍의 영향은 사교육비 급증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을 위주로 연구할 계획이다. 앞서 언급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년 연속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사교육비 증가는 내수시장 침체,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그래프〉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사교육 광고〉

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건전한 소비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으며 사교육비 양극화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사교육과 저출산의 관계, '학세권' 형성 등 사교육 열풍의 다양한 영향을 경제적 관점에서 탐구해 볼 계획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교육 설문조사 진행

주제선정 보고서에 언급하였듯이, 이번 탐구의 목적은 '사교육 열풍의 원인과 영향'을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것이다. 탐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지법'을 선택한 이후 사교육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뜨거운 교육열을 주도해 나가는 중심적 주체라는 점, 학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

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의 범위를 '사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학부모'로 설정하였다.

학부모들이 서로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오픈채팅에 참여한 뒤, 구글 서비스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공유하였다. 5월 5일부터 12일, 총 8일간 오픈채팅 참여자 100명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임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으며 응답을 받기 전 조사 대상의 범위에 부합하는지 확인 절차를 거쳤다. 설문조사 양식은 총 11개의 필수 응답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양식 작성 전 가설 수립

설문조사를 구상하기 전 사교육 열풍의 원인이 무엇일지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였다. '학생들은 물론, 특히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될 수 밖에 없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 심리가 행동 편향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교육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추론이다. 행동경제학에서 주목하는 '편향'의 일종인 행동 편향은,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게 낫다는 믿음'을 뜻한다.

가설을 수립한 뒤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양식에 들어갈 질문을 작성하였다. 가설이 과연 참인지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설문조사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 밖에도 대학 입시 정책의 잦은 변화와 학원들의 전략적 홍보가 학부모의 행동 편향에 미친 영향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학부모가 느끼는 부담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결과 자료

처음 두 질문은 대학 입시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응답자 100명 중 25명은 '대학 입시 등 교육 정책이 자주 변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4)라고 답하였으며 절반이 넘는 58명이 매우 그렇다(5)라고 답하였다. '그러한 변화로 인해 자녀 교육에 대해 걱정하게 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93명이 그러하다고 답하였다.

다음 두 질문은 입시정보 및 학원 홍보와 관련이 있다. 100

명 중 89명이 입시정보나 광고를 본 뒤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든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학원 광고가 불안감을 겨냥한 것임을 알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36명, 46명이 각각 그렇다(4), 매우 그렇다(5)라고 답했으며 (1)에서 (5)에 가까워질수록 응답자의 수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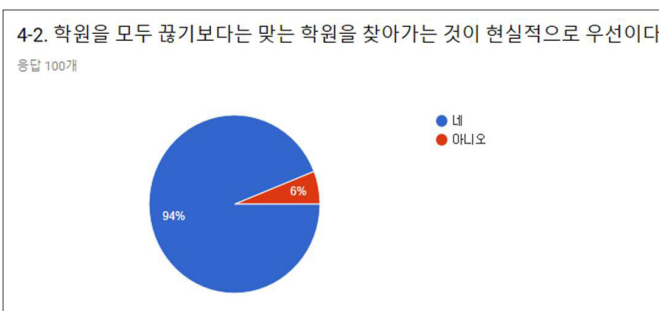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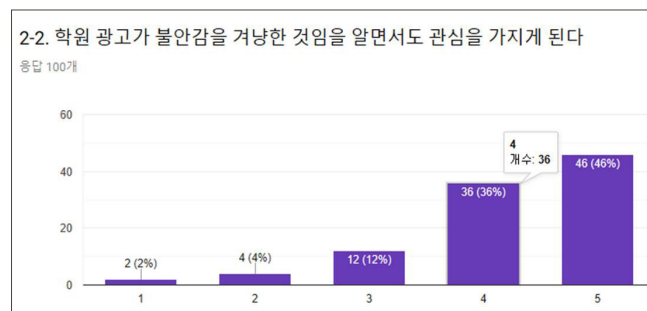
‘사교육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 나은가’라는 질문에는 100명 중 100명 모두가, ‘학원을 모두 끊기보다는 맞는 학원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선인가’라는 질문에는 94명이 ‘네’에 체크하였다. 특히 ‘자녀의 성적이 떨어진다면 학원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6명을 제외한 모두가 보통(3) 이상에 응답하였다.

응답자 100명 중 90명이 사교육 참여를 모두 끊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힘든 일이라고 바라보았으며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없이 성공하기란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엔 19명, 34명, 43명이 각각 보통(3), 그렇다(4), 매우 그렇다(5)에 답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 및 결론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비추어 본다면 탐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가설이 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 대부분은 대학 입시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뀐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또한 각종 입시정보나 학원의 홍보를 접하는 과정에서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그러한 광고의 목적이 불안감 조성임을 알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입시 정책의 잦은 변화와 학원들의 ‘공포 마케팅’에 기인한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11개의 질문에 대한 응답 전반에 걸쳐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상당히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다. 자녀의 성적에 대한 책임이 학원에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이 강하게 긍정하고, 학원을 모두 끊기보다는 맞는 학원을 찾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선이라 답하였다. 특히 100명 중 100명 모두가 사교육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러한 응답 경향을 통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행동 편향의 특징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중 일부〉

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설명 결과가 안 좋더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낫다는 믿음 때문에 사교육 참여를 모두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행동 편향은 앞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불안 심리의 영향을 받아 강화되었을 것이다. 우리 일상에서 확인되는 행동 편향은 ‘면피용 작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야구에서 희생번트 작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함에도, 무능한 감독이라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굳이 작전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교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불안감을 회피하고, 해소하고 싶어하는 학부모의 심리 때문에 행동 편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종합해보자면, 대학 입시 정책의 잦은 변화와 학원들의 전략적 홍보에 기인한 불안 심리가 학부모의 행동 편향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교육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는 가설이 참으로 검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사교육 시장에서의 소비 활동에 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일정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범주에 속해 있었으며 응답의 대부분이 일변도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표본의 크기를 더욱 키우는 등 현재의 수준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보다 정확한 자료 조사가 이루어질지라도 가설은 참으로 검증되었을 것이다.

+ 사교육비 증가가 사회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대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 또한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명을 제외한 모든 학부모가 ‘사교육은 필수적이지만 그로 인한 부담은 확실히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보통(3) 이상의 응답을 남겼다. 또한 100명 중 95명이 ‘사교육비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면 다른 곳에 소비할 여유가 분명 늘 것이다’에 동의하였다.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건전한 소비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응답 결과를 통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듯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면 분명 가계 소비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저출산으로 평균 자녀 수가 줄어들면서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사교육비가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교육이 사회에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교육에 관한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와 얽혀있는 부정적 외부효과 또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은 해결되어야 하며 그 핵심은 사교육에 얽힌 불안 심리와 행동 편향을 해소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주도학습
수기 대회
우수작

자기주도학습 수기 대회 우수작

21108 김주원

효율적인 시간관리 : 보인 스터디 플래너

보인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스터디 플래너를 받았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수업시간도 늘고, 과목별 수행평가와 각종 교내 대회로 바빠지면서 무엇보다도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학교에서 받은 스터디 플래너가 나에겐 무척이나 도움이 되었다. 한 주의 학습계획과 수행평가 일정을 기록하고 매일의 해야 할 일을 스터디 플래너에 기록하면서 일정과 시간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작년에 처음 쓸 때는 막막했었는데 한 주 동안의 일정을 자세히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스터디 플래너에 일주일 공부 계획을 미리 세우고 하루씩 학습 분량을 나누어 기록하며 공부하다 보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었다.

2학년이 되면서 수학과 두 과목이 되었고 과학 과목도 많아져서 시간을 배분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 스터디 플래너 앞장에 학습 시간표와 매일 공부해야 할 과목을 나누어 적어두었다. 월요일에는 국어와 물리, 화요일에는 국어와 화학과 생물, 수요일에는 국어와 영어, 목요일에는 국어와 기하, 금요일에는 국어와 수학으로 나누어 놓았다. 그렇게 했더니 한 과목에 치우치지 않았고, 소홀히 공부하게 되는 과목이 없어졌다. 주중에 다 하지 못했던 과목들을 주말에 공부하였다. 스터디 플래너 뿐만 아니라 핸드폰 잠금 화면과 책상에도 시간표와 요일별 공부과목들을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더니 수행평가 일정도 기록하여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미루는 과제도 없고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매일 매일 작성하다 보니 내가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한 학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 수 있어서 좋고, 공부한 것도 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내가 한 공부 과정을 반성하고 바꾸어 나갈 기회가 적었지만 플래너를 작성한 이후

로는 나의 집중도나 시간 분배에 대해서 하루하루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더 올바를 공부 습관을 잡을 수 있었다. 꾸준히 작성한 덕에 스터디 플래너 작성우수자 선발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도 하게 되었다.

매일 매일 국어공부

나의 가장 취약한 과목은 국어다. 열심히 해도 다른 과목에 비해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과목이기도 하다.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국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고 선배들에게도 물어보았다. 그래서 국어점수가 낮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바로 나의 공부습관에 있었다. 나는 국어공부를 주말에 몰아서 했다. 다른 과목에 비해 성적이 나오지 않는데도 다른 과목에 공부 순서가 밀리기도 했고 국어를 만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주 주말에 한꺼번에 복습하고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오답을 정리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고, 꼼꼼히 공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국어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말고사에 국어성적을 만회하기 위해 나는 매일 매일 국어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해야 할 공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회로 나눠서 공부계획을 세웠다. 매일 국어공부를 한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해야 할 공부나 일정이 많아서 미루게 되기도 했다. 하지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매일 자율학습 1교시에 국어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국어공부를 해서 국어점수와 등급을 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공부습관을 유지해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국어과목에서 전교 1등을 할 수 있었다.

국어성적을 올리면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스스로 찾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기주도학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양한 활동을 통한 진로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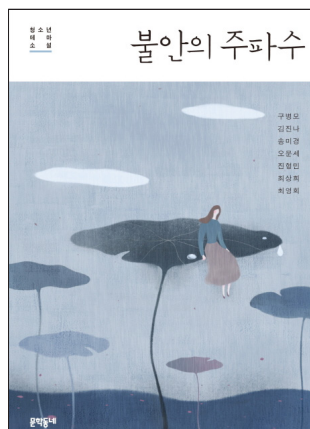
우리 학교에는 자연과학열전, 리더십창의인성아카데미, 사이언스 캠프 등 진로를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자율동아리인 보인 K-MOOC를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관심분야에 관한 강의를 꾸준히 듣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나는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 생명과학 수업시간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수행평가가 있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스퍼에 관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했다. 제니퍼 다우드나의 <크리스퍼가 온다>라는 책을 읽으면서 유전자가위로 불리는 크리스퍼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병들로부터 구제하고 수많은 유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적용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기술이 배아의 유전자 조작에 사용되었을 시에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적 구조는 더욱 더 강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인류의 진화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흠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다. 책을 읽고 난 후 크리스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동영상 강의와 논문들도 찾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 시간에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술 자체에는 절대로 선이나 악은 없지만 토론을 통해 이 기술의 오남용을 확실히 막고 기술의 긍정적인 부분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미래의 과학자인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강과 독서를 통해 생긴 진로에 관한 관심을 자율동아리 활동을 통해 확장해 나가면서 진로탐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스스로 탐구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

불안의 이중성

20204 금준영



사람들은 모두 불안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산다. 대부분은 이 감정이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나 역시 그렇게 느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수행평가의 마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었던 상황 등 나는 다양한 맥락에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껴왔고, 또 잘 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뒤, 불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불안에 대해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속단해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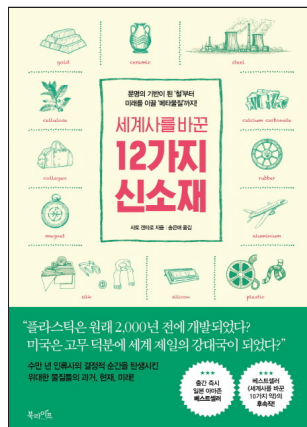
이 책은 우리와 같은 청소년, 20대 성인 등 다양한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불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룬다. 짧지만 여운이 강한 단편 소설들을 엮어 낸서 책을 읽는 동안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유리의 세계'라는 이야기에서는 세상의 대지가 모두 깨지지 않는 유리로 덮여있고, 사람들은 그 위에서 살며, 아무도 유리 위에서 사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지 않는다. 유리 세공업자들이 항상 깨지지 않는 유리를 공장에서 만들었고, 국가는 이를 도로 등에 지속해서 깔았다. 숙련된 유리 세공업자의 제자 중 '문'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단지 유리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만드는 이 유리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며, 유리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 호기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유리의 진정한 속성은 불안정함이고, 깨질 수 있다는 것이 지닌 아름다움, 깨질 수 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유리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고 자기가 유리에 관해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이다. 왜 유리의 균열 가능성이라는 속성을 세공업자들이 억압하는 것일까 고민한다. 그러던 어느 날, 통행이 제한된 구역의 유리에 균열이 가서 사람들은 그 유리가 언제 깨질지 모르고, 그동안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어왔던 유리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서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러한 혼란을 통

제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유리 세공업자들을 단체로 조사한다. 그러던 중 문이 자신이 왜 유리에 균열이 생겼는지 밝히겠다고 말하며 국가에 의해 파견된 군인들을 데리고 균열이 일어난 장소로 향했다. 그가 마치 그 세계의 메시아인 듯 군대를 미지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다. 그리고 그는 균열이 생긴 유리는 바로 자신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밝히고, 자신이 깨달은 유리의 본질을 군인에게 설명한다. 군인들 무리가 균열이 간 장소에 모여 있어서 유리에 더 큰 금이 가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우리가 제 본질을 찾는 순간, 문은 한 마리의 비둘기가 되어 세상을 날았다. 자신의 모든 일생을 유리에 바친 문이 유리와 함께 마지막을 함께하는 결말 부분은 정말 인상 깊었다. 남들이 느끼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문은 오히려 낙관적으로 보고 깨달음이 실현된 순간이라 봤다.

이 책의 또 다른 장점은 불안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다면 내 삶을 어떻게 그려나가는 게 좋을지 독자가 사색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안을 단순히 부정적이지 않고, 인간에게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인간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도록 도와준다고 정의한다. 불안이 없다면, 우리는 산에서 독사를 만나도 도망치지 않을 것이고, 고속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다 큰 사고를 당할 것이다. 키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불안은 사람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는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불안이 있기에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은 안전띠나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등을 만든 것이다. 불안이라는 감정을 8명의 작가가 진솔하게 풀어내는 책이어서, 불안이라는 감정을 평소에 자주 느끼는 청소년과 직장인들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해 주고 싶다. 이 책을 읽고 불안을 부정적이라 단정 짓지 말고, 우리에게 주는 이점 역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

10224 이정현



재료, 너무 흔하고 평범한 단어이기에 크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단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후 나의 재료에 대한 생각은 이전과는 달라졌다, 재료란 단순히 물건을 구성하는 물질을 넘어서서 우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총 12가지 재료를 시대적으로 등장하게 된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있다. 12가지나 다루고 있어서 하나하나의 재료에 대한 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재료가 발견되게 된 계기 사용되게 된 배경, 현대에서 사람들의 사용 등 다양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고 있어서 읽는 내내 흥미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 책이 재료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새로웠는데, 이 개념은 바로 ‘속도결정단계’이다. 속도결정단계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그 속도가 가장 느린 구간을 의미한다. 작가는 100km의 구간에서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가는 뽕 뚫려있는 90km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막혀있는 정체구간 10km를 어떤 속도로 이동하는지가 결정한다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 10km의 정체구간이 바로 속도결정단계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신소재는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재료의 등장, 즉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결정타인 속도결정단계가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읽고 난 뒤 얼마나 신소재가 산업계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른 긴 설명도 필요 없이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예시와 개념을 이용하여 작가는 책에서 신소재의 중요성을 표현하려 노력해서 중학생정도만 되도 이해하기가 쉬울 만큼 이해가 잘 되었다.

12개라는 다양한 신소재를 이 책에서는 설명하지만 그 많은 신소재들 중에서도 나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바로 금과 실리콘이었다. 이 두 소재는 책의 맨 앞부분인 제1장과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인 제12장에서 다루어서 시대적으로 대조되지만 과거, 그리고 현재 두 소재가 각각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먼저 금은 고대부터 사람들이 발견하여 가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재료이다. 금 때문에 세계사는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금 때문에 일어난 전쟁, 경제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다. 작가는 금이 만약 다른 색이었다면 세계는 더 지루하고 평화로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의 영향력과 그 가치를 한 줄로 요약하는 대목이다. 기원전 인류에게도 가치가 있었던 금이 지금까지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소재라는 사실은 짧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경이로울 뿐이다. 두 번째로 실리콘 즉 규소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빼놓고 말할 수 없는 컴퓨터를 이루는 반도체의 기본소재이다. 탄생한지 60년이 된 ‘규소로 만든 뇌(컴퓨터, 인공지능)’은 ‘탄소로 만들어진 뇌(인간의 뇌)’를 추월했다. 규소를 산업에 사용하게 되고 이 재료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개발하게 된 일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기존의 방식에서부터 크게 변화시켰다. 이제 더 이상 컴퓨터가 없다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컴퓨터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규소에 다른 원소들을 첨가하여 만든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일 정도로 규소는 우리나라의 산업과도 연관성이 깊다. 책에서는 수업시간에서는 잘 다루지 않던 규소의 산업적 공학적 부분에서의 이용 역시 잘 다루고 있었다. 공학에 관심이 있었던 나는 하나씩 더 알아가는 느낌으로 차근차근 읽었다.

서평을 마무리하며 책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신소재〉는 역사적이고 인문학적인 내용과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내용을 신소재라는 하나의 주제에 어우러지게 잘 담아내고 있다. ‘단순히 어떤 신소재가 있다’라는 방식의 설명이 아닌 그 소재가 역사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쳤는지 더 나아가 산업적으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가지 주제를 바라보고 있어 더 심도 있게 하지만 쉽게 신소재를 탐구할 수 있었다. 역사나 사회에 관심이 있는 문과, 과학과 산업, 공학에 관심이 있는 이과 모두에게 이 책은 추천할 수 있는 책이다.



STRIVING FOR DREAMS

진로에 대한 고민은 10대 청소년의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이며, 이는 보
인고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보인고 학생들이 남다른
점은, 자신의 적성을 찾고 진로를 정하기 위해 **학생들이 함께 모여
능동적으로 탐색**해나간다는 점이다.

올해 교지편집부 21명의 부원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탐
구 내용을 기사로 작성**하였다. 자신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거
나 혹은 아직 자신의 관심사를 찾지 못한 학우들과 함께 우리의 꿈을 향하
여 한 발짝 나아가고 싶다는 그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장래희망 직업 순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유튜버라는 직업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명 유튜버 빅헤드, 솜사탕과 인터뷰**를 진
행했다.

STRIVING FOR DREAMS

1908



피곤한 당신, ‘잘’ 자라!

10211 김승현

혹시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고도 오전 10시나 11시에 다시 잠에 들고 마는가? 만약 다시 잠들어버린 적이 있었다면, 이 기사를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성인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이지만, 정작 성인의 3분의 2가 권장 수면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6시간 정도만 자도 충분히 자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교수의 실험에 따르면 열흘간 여섯 시간만 잔 사람은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잔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주의력과 집중력 저하를 겪는다고 한다. 아침 일찍 일과가 시작되는 현대사회에서 저녁형 인간은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도 이러한 만성피로의 위험에 처해 있다. 늦은 시간까지 학업에 매달려야 하는 학생들에게 오전 7시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성인에게 오전 4~5시에 일어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비교적 수면부족의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면시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면 면역계가 손상되고 암에 걸릴 위험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

인간의 수면단계는 렘수면과 비렘수면으로 나뉜다. 렘수면은 수면 시간의 20~25%를 차지하는데, 우리는 렘수면 동안에 꿈을 꾸다. 이 상태에서는 근육들의 긴장이 풀리고,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기능을 한다. 반면 비렘수면은 '뇌'의 피로를 풀어주며, 이 비렘수면이 부족하면 우리는 질 높은 수면을 취할 수 없다. 자는 시

간이 짧아질수록 비렘수면의 길이는 짧아지고 렘수면의 길이는 길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권장 수면 시간 8시간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알코올과 수면제를 '잠이 잘 들게 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수면제는 우리 몸에 진정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지만, 비렘수면의 비율을 늘리거나 수면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자연스러운 잠은 기억의 저장을 돕지만, 수면제와 알코올을 복용하는 것은 '기억 지우개'가 되고, 호르몬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수면 주기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잠을 쫓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이도 있을 것이다. 커피는 수면을 유도하는 아데노신이라는 호르몬과 연관이 있는데, 아데노신은 15~16시간 동안 활동을 하면 몸에 축적이 되면서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 외부의 작용 없이도 충분히 질 좋은 수면을 취하게 해준다. 카페인인 이 아데노신을 강제적으로 막아 주기에, 커피가 우리의 졸음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카페인을 오후 또는 밤늦게 섭취하면 아데노신의



작용이 흐트러지면서 자연스러운 수면을 방해하고 질 낮은 수면을 야기하거나 잠을 자던 도중에 깨어나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그 외에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라.
2. 매일같이 적어도 30분은 운동을 하려고 애쓰자. 하지만 잠자기 두세 시간 전까지는 끝내자.
3. 커피, 콜라, 녹차 같은 특정한 차, 초콜릿 등 당 함유량이 높거나 카페인이 든 음식을 멀리하라.
4. 밤에는 과식하지 말라: 가벼운 간식은 괜찮지만, 많은 음식은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고, 잠을 방해할 수 있다.
5. 먹는 약 중에 수면을 방해하는 약이 있다면 복용 시간을 오전 또는 낮으로 변경하자.
6.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말라.
7. 잠들기 전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긴장을 푸는 활동을 하라.
8. 잠자리 가기 전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라.
9. 침실을 어둡게 하고, 차갑게 하고, 침실에서 전자 기기를 치워라.
10. 적절히 햇볕을 쬐어라.
11. 말뚱말뚱하다면 잠자리에 누워있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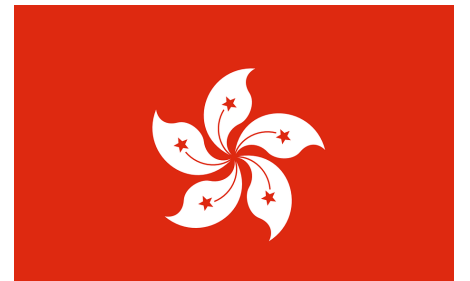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홍콩시위

10231 황의선

2019년 4월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했다. '송환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 정부에 반대하는 인권운동가나 반체제인사들을 중국 본토에 인도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 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며 지속적인 시위를 벌였다. 9월 4일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램 행정장관이 송환법의 철회를 공식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자 조건 없는 석방, 경찰 행태에 대한 독립적 조사, 행정장관 직선제 보통선거 실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계속했다. 홍콩 정부는 계엄령에 준한 긴급법 발동을 결정, 5일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했으며, 시위대에 참가한 시민과 학생들도 경찰의 강경대응으로 거의 진압되었다. 하지만 2019년 11월 24일 실시된 홍콩 구의원 선거에 294만 명이 참여, 투표율 71.2%로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범민주 진영 정당이 전체의 86.7%인 392석을 차지하면서 홍콩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심

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재 여전히 홍콩에서는 시위가 일어나는 곳이 있고, 홍콩 경찰의 강경진압에 세계의 관심은 집중되고 있다. 11월 15일 미국 하원에서는 홍콩 시위 권리를 지지하고, 중국 정부의 홍콩 간섭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홍콩 경찰에 미국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19일 미국 상원에서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평가하여 그동안 유지해 온 관세, 무역, 비자 등에 대해 중국과 달리 대우해 온 홍콩에 대한 외교적 관계를 재심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아시아 금융 시장에서 홍콩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위상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안에는 또한 홍콩 민주화를 억압한 책임자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중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미국과 중국 정부와의 갈등이 예견되었다.





날로 발전하는 스마트폰 기술, 그 중심에는 ‘베젤리스’가

10503 권민재

얼마 전, 삼성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19’에서 ‘갤럭시 노트 10’ 모델을 공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봐야 얼마나 바뀐 것인지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삼성은 또 한 번 어마어마한 기술을 만들어 냈다. 갤럭시 노트 10의 베젤 대비 화면 비율은 무려 92%에 달한다. 2011년 처음 노트 1이 공개되었을 당시의 비율인 74%에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 추세다. 이처럼 최근 스마트폰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바로 ‘베젤리스’다.

본격적으로 베젤리스 기술을 소개하기 전에, 베젤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보자. 베젤은 쉽게 말해, 스마트폰의 화면에서 액정을 제외한 나머지 ‘검은색 테두리’ 부분이다. 베젤은 디스플레이 외곽의 불필요한 빛샘을 막아주며, 디스플레이 내부 부품들의 설계 구조상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기술적 한계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베젤의 두께를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한 경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애플은 자사 스마트폰의 상징과도 같았던 둥그란 홈 버튼을 없애고 아이폰 X 모델부터 디스플레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도 얇은 베젤이 들어간 디자인을 채택하였고, 삼성 역시 갤럭시 S8부터 홈 버튼을 없애기 시작하였다.

물론 (특히 아이폰의) 홈 버튼 디자인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베젤리스 스마트폰들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 고집하는 데에

는 다 이유가 있다. 스마트폰은 더 이상 전화와 문자만 하는 단순한 기기가 아니다. 카메라부터 인터넷 웹서핑 및 영상 시청 등 모든 미디어 콘텐츠를 시각적으로 즐길 수 있는 기기다.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표시하는 화면의 액정에 사용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스마트폰 회사들은 이 화면의 화질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베젤의 크기가 특히나 주요 관건이 된다. 스마트폰 화면의 베젤이 너무 두꺼워지게 되면, 화면 속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화질이나 화소가 실제보다 낮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 얇은 베젤을 구현하는 데에는 어떠한 디자인적 및 기술적 변화가 필요하게 되는 것일까. 삼성과 애플, 두 기업의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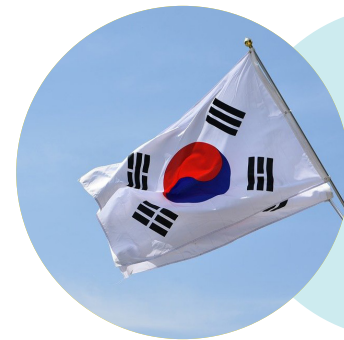
애플은 베젤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채택해, 노치 디스플레이 기술을 도입했다. 노치 디스플레이란, 전면부 전체를 스크린으로 쓰게 될 경우 넣을 공간이 없어지는 전면 카메라, 수화부 및 각종 센서를 한 공간에 몰아넣는 디스플레이로 화면이 파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애플은 디스플레이 하단을 휘어서 하단 베젤을 얇게 만드는 기술도 적용하여 노치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스마트폰 중 가장 베젤이 얇은 스마트폰을 만들어 내



기도 했다.

한편 삼성은 인피니티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 상하좌우 모든 베젤을 매우 얇게 한 상태에서 상단부에 둥그란 전면 카메라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애플의 노치 디스플레이와 비교해서 더 탁 트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스마트폰 시장 속 가장 영향력이 높은 두 회사 이외에도, 많은 회사들이 베젤리스 스마트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중국의 오포와 화웨이 등은 베젤이 완전히 없어진 스마트폰 제품의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하기도 했으며, 삼성 역시 이에 질세라 ‘제로 베젤’ 기술의 특허권을 특허출원했다. 하루가 다르게 혁신적인 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대 속에서, 스마트폰이 모두 디스플레이로 덮여 있는 100% 베젤리스 스마트폰이 나올 일도 머지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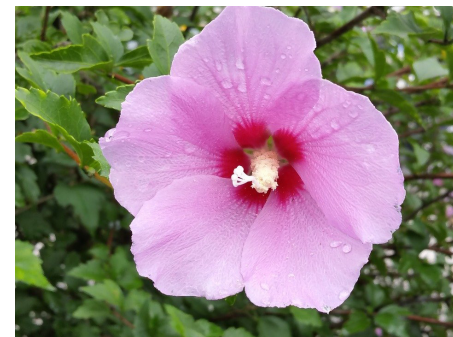
‘무궁화는 대한민국의 국화다’ 라고, 전 국민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다. 그렇다면 국화라는 사실 말고, 과연 우리는 무궁화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을까?

봄을 알리는 개나리, 4월쯤 피는 벚꽃, 5월의 꽃인 장미, 가을의 코스모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국화 무궁화의 개화시기에 대해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무궁화는 전국에 분포하고 7월~10월에 피는 속씨식물이다. 국회의원 배지, 법원 마크, 부채에도 그려져 있고 애국가의 후렴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가 있을 정도로 누구나 알고 있고 친숙한 꽃이다. 안타깝지만 현실은 학교 화단에 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꽃이다. 그렇다면 왜 무궁화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까? 과거에 무궁화는 마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무궁화가 자취를 감춘 것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였다. 무궁화가 한국의 민족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한 일제가 ‘병충해에 취약함, 지저분해 보인다’ 는 오해를 퍼트려 전면적으로 벌목해 버렸다. 그때 대부분의 나무가 사라져 현재 100년 이상 된 무궁화는 보기 힘들게 된 것이다.

한편 해방이 된 이후에도 사람들 사이에 무궁화에 대한 인식과 지식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궁화를 국화로 인식하고 있지만 무궁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이다. 산림청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궁화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33% 정도

무궁화는 정말 우리의 ‘국화’일까?

10619 이종현



밖에 되지 않는다. 응답자들 중 과반수인 56.2%가 ‘무궁화는 국화로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 원인으로는 대다수가 ‘찾아보기 힘들다,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다행히도 최근에는 조금씩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궁화를 가꾸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변에 무궁화나무를 설치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에서도 교내 화단에 무궁화를 심어 학생들에게 더 익숙해 질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무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우리가 몰랐던 무궁화의 진실을 알려 나가야 한다. 무궁화는 사실 법률상으로 우리나라의 국화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정서적 관습으로만 국화로 여

겨져 온 것이다. 봄이면 우리의 산과 들에 지천으로 피는 진달래나 개나리와 같은 꽃을 국화로 채택하자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1956년 화훼연구가 조동화는 무궁화를 국화로 채택하면 안 되는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무궁화는 38선 이남에서만 개화하며, 외래종(원산지: 인도)인 데다가, 진딧물이 많아 관리가 힘들고 다른 꽃들에 비해 늦게 썩어 튼다는 것이다. 이에 염도의 서울대 교수 등은 “무궁화는 캐나다 같은 북쪽에서도 개화함” 등을 근거로 반박하였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뒤로 하고, 최근 무궁화를 국화로 정식 채택시키자는 주장이 안동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유일한 재래종인 ‘안동무궁화’가 있는 안동에서부터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안동에서는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하고 공식 국화로 정하자는 국민 서명운동을 2019년 3월부터 실시하여, 꾸준히 무궁화 국화 채택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항공 서비스의 발전과정

10818 이승우

승무원

승무원의 역사는 민간항공의 역사와 함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이 1957년 처음으로 여승무원을 채용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세계최초의 승무원으로 알려진 사람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다. 독일인 하인리히 쿠비스는 원래 호텔에서 근무했으나, 비행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그는 비행선 내 객실에서 음식 서빙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것이 객실 승무원의 기원이다. 현대의 승무원은 안전과 보안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개인용 스크린

컴퓨터 스크린 기술의 발전으로 항공기 기내에도 개인용 스크린이 도입된 요즘과는 달리, 199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기내에는 개인용 스크린이 없었으며, 사람들은 신문이나 잡지를 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기술 발전으로 스크린을 도입하게 되고 나서도, 초기에는 스크린의 크기를 최소화할 기술이 부재했던 탓에 비즈니스석 이상의 항공기에만 달려 있었으며 메뉴 선택도 제한적이었고 화질도 좋지 않았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스위스어 항공편 사고다. 1998년 9월 2일 야간에 미국 뉴욕을 출발해 스위스 제네바로 가던 항공편에서, 10시 10분부터 기내에서 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10시 14분에는 조종석에

도 연기가 흘러들어왔다. 조종사들은 원인을 알지 못했고, 헬리팩스 공항에 긴급 착륙하기 위해서 남은 연료를 포기했다. 하지만 얼마 후 화재가 급격히 번져 조종실의 계기들을 태웠고, 전원이 소등되기 시작했다. 결국 해당 항공편은 추락하고 말았으며, 승객과 승무원 229명이 모두 숨지는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되었다. 사고 이후 원인을 조사해 보니 개인용 스크린에서 전기 합선이 있었음에도 회로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객실 및 전기선에 대한 안전지침이 강화되었고, 2000년대 이후 스크린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 역시도 늘어나면서 항공편에 대한 수요와 신뢰도도 점차 증가했다.

항공사의 다양한 서비스

대한항공에서는 ‘비 동반 소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혼자 비행기를 타는 어린이가 출발지 공항에서부터 도착지의 공항에서 보호자를 만날 때까지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 만 5세 이상 만 11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어린이도 안전하게 다른 장소로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전통문화 서비스(ASIANA ORIENTAL ART SVC TEAM)라는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코노미,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은 승무원과 함께 1:1로 한국 전통매듭을 이용한 잠자리 모양 매듭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으며,

퍼스트클래스는 승무원이 직접 그린 사군자와 직접 쓴 한글 붓글씨 족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차밍서비스’는 승객들에게 오랜 비행으로 건조해진 승객들의 피부를 위해 마스크팩을 제공하거나, 네일아트 서비스, 어린이용 타투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한편 서비스가 좋기로 유명한 에미레이트 항공사의 A380 기종에서는 1등석 승객에게 기내 샤워 서비스를 제공한다. 승객이 샤워 스파를 미리 예약하면 최대 30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샤워용품, 목욕 가운 등 샤워에 필요한 용품은 기내에서 제공한다.

항공 산업이 더욱 고도로 발달하면서 항공사의 서비스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각 항공사마다의 이색적인 서비스를 미리 알고 즐긴다면 훨씬 더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홍콩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면 중국 감옥으로 간다?

10906 김정원

지난 6월 9일 시작된 홍콩 시민들의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시위는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제정하려 하자 홍콩 시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일어난 것으로 홍콩 국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90만~20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 시위이다. 이 시위의 기폭제가 된 것은 지난 2월 대만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으로, 홍콩인 남성이 대만에서 같은 홍콩인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이후 범인이 홍콩으로 도주하자 대만 당국은 홍콩에 범인을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러나 대만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았고,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홍콩 형법 상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범인을 인도할 수 없게 된 홍콩 정부는 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범죄인 인도 법안’ 제정을 추진하였다.

범죄인 인도 법은 범죄자들이 타국 본토로 송환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 법률이 제정될 경우 중국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에서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홍콩 국민들은 이 법안 제정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 것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즉, 홍콩 내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중국 공산당의 고위인물을 비판하게 되면 범죄인이 되어 중국으로 인도 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도 또한 범죄자가 되어 중국으로 송환

될 수 있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서 말한 정치적, 사상적 문제뿐만이 아닌 경제적으로도 홍콩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홍콩은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불리며 국제도시로 자리 잡은 지 오래 된 도시다. 그러나 이미 시위의 영향으로 일부 기업들은 싱가포르 등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등 벌써부터 홍콩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약 시위가 길게 지속된다면 홍콩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홍콩 시위는 전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중국이 일찌감치 홍콩정부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고,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의 1세계 국가들은 홍콩시위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 역시 몇몇 원내정당*이 지

지를 표명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시위대를 지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UN)도 공식성명을 통해 홍콩 정부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국내, 국외적 압박에 의해 홍콩 정부는 7월 9일 범죄인 인도법안 철회를 선언했지만 시위대가 바라는 법안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아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12월에 홍콩입법회에서 표결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홍콩시위는 점차 민주화 시위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속지주의: 국가의 입법·사법·집행관할권을 자국의 영역 내에서만 행사한다고 하는 주의
*원내정당: 국회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





웨어러블 로봇

11130 조현준

웨어러블 로봇을 아시나요?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말이 조금은 낯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미 익숙한 웨어러블 로봇이 있습니다. 바로 마블의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은 웨어러블 로봇의 발전된 형태인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가 싸우는데 그의 ‘옷’인 로봇이 큰 도움을 줍니다. 웨어러블 로봇도 이처럼 입는 형태로 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최초의 웨어러블 로봇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 미국에서 군사 목적으로 개발한 하디맨(Hardimen)이 첫 시작입니다. 하디맨은 착용하면 4.5kg의 힘만으로도 110kg의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로봇 자체 무게가 650kg에 달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불편한 것은 물론 실용성이 부족하여 상용화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웨어러블 로봇은 2013년도에 김성완 서울대 의공학과 교수팀이 뇌파 감지 기술을 활용한 외골격 로봇 논문을 발표하면서 본격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카이스트의 공경철 교수가 연구하고 있는 로봇도 있는데, 이름은 ‘워크온 슈트(Walkon Suit)’입니다. 이 로봇은 하반신 완전 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로봇으로 전신에 착용하며 팔에 달린 목발과 다리를 움직이는 로봇이 몸을 지탱하고 걸음을 옮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웨어러블 로봇 대회에서 공경철 교수 팀은 2016년에 착용형 웨어러블 로봇(외골격 로봇) 분야에서 3위를 거두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웨어러블 로봇으로는 웨어러블 체어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은 산업현장에서 기마 자세를 자주 취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실제로 아우디와 BMW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러한 로봇을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고 있고, 현대자동차그룹도 2018년 9월 현대, 기아차 북미 공장에 이 로봇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웨어러블 체어 로봇은 작업자의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무릎관절 보조 시스템으로 1.6kg의 경량형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150kg의 무게까지 지탱 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실제로 이 로봇을 착용하면 허리 및 하반신 근육의 활성화도가 약 80%가량 줄어들어 작업자의 작업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웨어러블 로봇은 최초로 개발되었던 목적처럼 여전히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군의 ‘엑소스켈레톤’입니다. 처음에는 하반신 마비 환자를 위한 의료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미군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록히드-마틴사에서 군사적 목적에 맞게 새로이 개발했습니다. 이 로봇은 착용자의 근력을 강화하여 82kg의 짐을 메고 다섯 계단을 오를 수 있고, 7.3kg의 장비를 손으로 천 채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기존 3분에서 30분으로 대폭 연장시켰습니다. 착용자의 위치, 이동방향, 속도도 알려줍니다. 이 로봇은 병사가 완전 군장한 상태에서도 날카로운 민첩성을 발휘할 수 있게 했고, 병사의 전투력 상승과 체력 증강 효과가 기대 됩니다. 그리고 가동성과 출력이 업그레이드되어 시가지 전투에서도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전투로봇에 이어 하늘을 나는 로봇인 ‘제트슈트’도 웨어러블 로봇 중 하나입니다. 비행을 목적으로 만든 웨어러블 로봇 ‘제트슈트’는 발명가 리처드 브라우닝이 개발하고 스타트업 기업 그래비티 인더스트리(Gravity Industries)가 제작한 로봇입니다. 제트슈트는 슈트의 허리 뒤 하나, 양팔에 두 개씩 모두 5개의 제트엔진이 장착되어 있어, 수직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시속 51.3km의 속도로 날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고, 최대 3500m 높이까지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탁월한 성능에 힘입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18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아직은 개발단계에 있고 가격도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타깃으로 지목하고 있어, 많은 전문가들이 상용화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생활을 책임지게 될 웨어러블 로봇, 조금 더 웨어러블 로봇에 관심을 갖고, 미리 친숙해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계의 민주화 운동 2019

20104 김민재

2019년이 시작하자마자 베네수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2014년 석유 가격 하락으로 큰 타격을 받은 뒤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관료들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연이어 터져,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그 와중에 마두로 대통령은 연임을 위해 불법선거를 자행하게 된다. 결국 베네수엘라 국회는 마두로를 독재자로 간주하고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가 쿠데타를 일으킨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을 퇴출시키라는 반정부 시위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

6월부터는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홍콩 시민 7명 중 1명이 참가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이다. 홍콩이 이런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그 동안 중국 공산당에게서 지켜낸 자치권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이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후에도 홍콩은 자치권을 인정받고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떠오르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

국 공산당의 홍콩 통제와 탄압이 강해짐에 따라 중국 공산당에 대한 홍콩 시민들의 불만은 점점 높아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홍콩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려 하자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홍콩 시민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이 등록되면 중국이 반중국 인사들을 어떠한 제재도 없이 잡아갈 수 있다며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도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서 반중국 인사를 납치하고 고문하는 등 불법적인 일을 자행하고 있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중국 정부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지만 홍콩 시위대는 평화 시위로 맞서면서 국제 여론도 홍콩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홍콩 경찰과 중국 공산당이 물대포와 실탄을 발사하고 타협이 시위대와 홍콩 행정부의 타협은 실패하는 등 시위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베네수엘라와 홍콩의 시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번 시위로 중국과 미국의 사이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미국-서유럽과 중국-러시아 진영의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목



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와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위대의 희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방송연출가란

20132 정승민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학생들은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취미생활이 필요하다. 학생이 아닌 누구더라도 각자의 생활에 지칠 때를 대비해 취미생활을 갖는 것은 꼭 필요하다. 게임, 운동, 노래 부르기 등 많은 취미생활이 있을 것이고, 그 중 TV 시청은 단순하지만 소소하고 간편하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취미생활이다. 그러나 'TV 프로그램을 누가 만드나?'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뒤에는 그리 단순치만은 않은 '방송연출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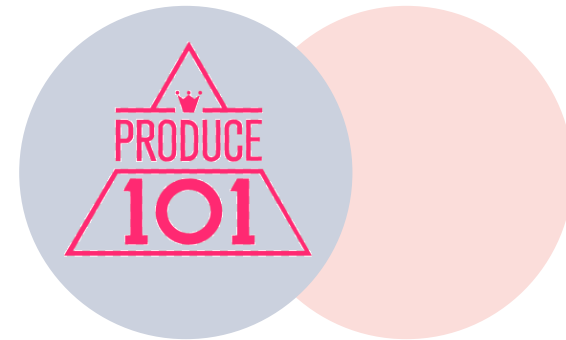
방송연출가는 쉽게 말해서 라디오나 TV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사람이다. 프로듀서 또는 PD라고 부르기도 한다. 방송연출가는 시나리오 작가를 선정하여 제작될 프로그램의 계획을 설명하고 완성된 대본을 평가한다. 아울러 프로그램에 적당한 방송 작가와 제작진, 연기자들을 선출한다. 그들의 배역을 정할 뿐만 아니라, 의상, 무대배경, 음악, 카메라 작업, 시간배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제작진과 협의해야 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활동을 조정한다. 촬영 일정을 결정하고 장소 섭외, 무대배경 설치, 소품 및 장비 준비 등을 지시하여 촬영과 녹화를 총지휘하는 것도 방송연출가의 몫이다. 촬영 장소를 결정하려면 후보지를 미리 정해 직접 둘러보는 '답사'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 촬영 콘티를 바탕으로 촬영을 진행하고 끝나면 촬영한 테이프를 돌려 보며 방송 작가와 의논해 편집 방향을 잡고 전체 촬영한 것을 편집한다.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배경음악과 자막, 특수효과 등을 넣는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촉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송연출가는 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여유가 없다. 게다가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제작에 드는 예산과 지출을 검토하고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골치 아픈 일들을 매일매일 대해야 한다.

이렇듯 까다롭고 벅찬 직업인 방송연출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에 대한 폭넓은 관심이 필요하다. 방송 PD가 다루는 것은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므로 사람과 세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이해를 쌓아야 한다. 다양한 정보를 폭넓게 수용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창의력도 요구된다.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면서도 독창적이고 공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므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힘도 필요하다. 통솔력과 리더십도 필요하다. 많은 사람과 협력하며 공동으로 일을 진행하고 지휘해야 하므로 통솔력과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또한 하루 종일 촬영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야 한다. 여러모로 어려운 직업이라 할 수 있겠다.

PD가 되기 위해선 4년제 대학 졸업요건을 갖

춰야만 공채 지원이 가능하지만 학부 전공과는 무관한 편이다. 물론 신문방송학이나 언론정보학과의 경우 방송 제작과 관련된 지식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조금 유리할 수 있겠지만,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다. 방송사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하기도 하지만, 방송 아카데미를 거쳐 방송사 상시 채용이나 프로덕션에 입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입사 후에는 초기 방송 제작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뒤, 시사교양, 라디오, 예능, 스포츠, 편성 PD 등의 전문 관심분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보통 조연출자로 커리어를 시작하여 연출자, 책임연출자의 단계를 밟아 가는데, 통상적으로는 자신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맡기까지 교양 프로는 5년 내외, 예능 프로는 7년 내외, 드라마는 그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PD는 학력보다 실무능력, 경력이 우선시되는 직업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입직 이후 유리하기 위해선 실제 프로그램 제작에 동참하여 여러 경험을 쌓아보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프로듀스 101의 모든 것

20233 정지민

오디션 프로그램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슈퍼스타K, 쇼미더머니 등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매 년 마다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며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해 내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프로듀스 101이다.

제일 처음 시작된 것은 '프로듀스 101 시즌1'이다. 방송 전부터 101명의 연습생이라는 스케일과 독특한 선발 방식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프로그램 방영 전 발표한 주제곡 〈PICK ME〉가 국내에서 크게 히트하며 프로그램의 인기에 힘을 더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 역시 적지 않았다. 순위별로 피라미드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리를 배치하는 일본의 'AKB48' 컨셉을 표절했다는 의혹과, 참가자들의 등급을 나눠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잔인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런저런 기대와 비판의 목소리들 속에서 2016년 1월 22일, 프로듀스 101이 첫 방영되었다. 방송 초반엔 높은 화제성에 비해 시청률이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화차를 거듭할수록 연습생들 간의 갈등, 안무연습 과정 등을 생생히 드러내고 '마이돌 키우기'와 같은 활동이나 평가 후 시청자 투표 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참가자를 응원하고 아이돌로 만드는 재미가 더해져 큰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11명은 이후 5월에 '아이오아이(I.O.I)'라는 걸그룹으로 데뷔하여 〈너무너무너무〉, 〈Dream Girls〉 등 여러 히트곡을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을 이어나갔



고 2017년 1월 29일,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공식 해체하게 되었다. 시즌 1의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2016년 3월, 엠넷은 "걸그룹을 육성하는 시즌 1과는 달리 남자 버전의 시즌 2를 기획 중에 있다"고 예고했다. 방송 전 발표된 '나야 나(PICK ME)'의 무대 영상이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을 돌파하며 시즌 2에 대한 기대를 더했다.

2017년 4월 7일, 본격적으로 '프로듀스 101 시즌 2'가 시작됐다. 1화부터 시즌 1의 시청률을 가볍게 돌파했고 대형 기획사의 연습생 몇 명에게만 팬들이 집중되었던 시즌 1과는 달리 시즌 2에서는 중소기획사나 개인연습생들 역시 지하철에서 데뷔 응원 광고까지 올라올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방송 화차를 거듭할수록 엄청난 인기를 끌며 최종 화에서 데뷔가 확정된 11명

의 득표수는 약 1100만 표에 달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된 11명은 '워너원'으로 데뷔하게 되었는데 시즌 2의 폭발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에너지틱', 'beautiful' 등 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내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보이그룹 중에 하나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2019년 1월 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워너원의 활동은 끝났지만 각 멤버들은 솔로로 데뷔하거나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계속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다음 해인 2018년에는 걸그룹 기획을 목표로 시즌 3, 프로듀스 480이 진행됐다. 시즌 1, 2와는 다르게 한일 합작으로 진행되어 일본 기획사의 연습생들도 참가했고 기존 프로듀스 시리즈의 참가자 수였던 101명이 아닌 96명의 참가자

X1

로 시작했다. 하지만 방송 전부터 어린 나이부터 방송 생활을 한 일본인 연습생에 비해 한국인 연습생이 불리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첫 화부터 한국인 연습생들보다 일본인 연습생들이 화면에 더 많이 비춰져 차별 논란도 불거졌다. 결국 한국 사람들에게 생소한 일본인 연습생들이 자주 나온다는 이유로 일본 내에선 시청률 1, 2위를 달성한 데 반해 국내 시청률은 2%대로 오히려 시즌 1보다 더 떨어졌다. 하지만 아무래도 국내에서 촬영되는 프로그램인 만큼 일본보다는 국내에서 더 크게 화제가 되면서 한국인 연습생들의 인지도가 수직상승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인 연습생 9명, 일본인 연습생 3명이 뽑혀 '아이즈원'으로 데뷔가 결정되었다. 각종 차별 논란으로 흥행 부진에 시달렸던 프로그램과는 달리 아이즈원은 지난 4월 발매한 'HEART*Z'가 초동(1주) 판매량 13만장을 달성하며 역대 걸그룹 앨범 초동 판매량 1위를 차지했고, 일본 데뷔 3일 만에 일본의 유명 음악 차트인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으며, 2021년 4월까지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가장 최근에 종방한 시즌4 '프로듀스X101'이다. 특이하게도 앞선 시즌들과 같이 최종 화에서 데뷔 멤버 11명 전원을 뽑는 방식을 바꾸어, 선발된 10명과 그 동안 치러진 순위 발표식에서 받은 누적투표수 총합이

가장 많은 연습생을 데뷔조로 뽑았다. 패자부활전 방식도 도입되었다. 시즌 2와 같이 특정 몇 명에게 인기가 집중되는 것이 아닌, 다수의 연습생들이 고르게 인기가 많았다. 오죽하면 최종 화에서 탈락한 9명을 '바이나인(BY9)'이라는 그룹으로 데뷔시키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시즌4는 이러한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시즌 3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엑스원'이란 그룹으로 8월 데뷔가 예정되었다.

그런데 중영 직후 문자 투표수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최종 순위의 득표율이 일정하며, 한 연습생의 득표수에 다른 연습생의 득표수를 더하면 또 다른 연습생의 득표수가 나온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샀다. 엠넷 측은 '순위에 조작을 가하지 않았으며, 그저 방송으로 발표된 개별 최종 득표수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까지 조직하며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후 엠넷 측의 의뢰로 경찰 측에서 수사에 나섰고 결국 담당 PD인 안준영 PD

와 김용범 CP(책임프로듀서)는 데뷔 조의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걸 인정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일부 네티즌들이 시즌3 투표 결과를 보고 이 역시 투표수 조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경찰이 추가 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안 PD는 시즌3 역시 처음부터 데뷔 조 멤버를 미리 선발했다고 시인하여 시즌3 조작 사실 역시 인정했다. 그러자 시즌 1,2 역시 조작 논란에 휩싸였고, 안 PD는 시즌 3,4는 득표수 조작한 것이 맞지만 시즌 1,2는 아니라며 최초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엔 결국 시즌1,2 역시 1차 선발 과정, 최종 화 데뷔 조 선발을 모두 조작했다는 것을 실토했다. 뿐만 아니라, 프로듀스 시리즈 진행 중 안 PD 등 고위 기획자들이 일부 기획사로부터 수천만원 대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것 역시 수사 과정 중 밝혀지면서 현재 관련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 투표 수 조작 논란으로 인해 시즌 3,4와 관련된 그룹 아이즈원, 엑스원은 잠정적 활동 중단에 들어갔으며, 이들이 다시 활동을 재개할 지는 현재 미지수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축구선수

20313 변진형

2019년, 많은 외국의 유명한 축구선수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높은 인기를 재확인한 선수도 있었고,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준 선수도 있었다.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축구선수들에 대해 알아보자.

6월 13일,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 폴 포그바(Paul Pogba)가 아시아 투어(주최측 아디다스)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포그바는 팬들과 직접 어울려 풋살을 하고, 세레모니 배틀, 공 컨트롤 챌린지 등 많은 행사를 소화하며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인터뷰에서는 EPL에서 뛴 한국 선수인 박지성, 손흥민 선수를 언급하기도 하고, 인터뷰에서 갖을 쓰기도 하여 많은 국내 언론의 주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SBS에서 방송중인 TV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에도 깜짝 게스트로 참여하여 가수 김중국과 함께 태권도 실력을 선보이는 등 여러모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한국을 떠났다.

한편 며칠 뒤인 6월 19일에는 독특하게도 SportX라는 볼록체인 회사가 축구선수 한 명을

동반하여 한국을 방문했다. 바로 "2000년대 세계 4대 미드필더", "포르투갈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 루이스 피구(Luis Figo)다. 그에게는 2002년 월드컵 이후 17년 만의 재방문이다.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굴지의 팀에서 활약했던 그가 한국에 온 주 목적은 SportX를 소개하기 위함이었지만,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축구선수' 피구에게 더 관심을 두고 있어서 그에게는 축구에 관한 질문이 주로 쏟아졌다. 그러나 피구는 원 목적인 SportX 홍보에만 주력하지 않고 팬들을 위한 유니폼과 축구공 증정, 사인회, Q&A 등 다양한 행사를 기꺼이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7월 26일 이탈리아의 유명 축구팀인 유벤투스가 한국의 프로축구 리그인 K리그의 선수들과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방한했다. 유벤투스는 일명 "우리 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한국인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Cristiano Ronaldo)를 비롯해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지안루이지 부폰(Gianluigi Buffon) 등 많은 유명 선수들을 보유한 거함이다.

여러 명선수들 중에서도 호날두의 인기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벤투스가 아닌 호날두를 보러 갔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였다.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는 8시에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유벤투스의 지각으로 50분 뒤인 8시 50분에 경기가 시작됐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고, 비도 내렸으나 경기는 큰 부상자 없이 3:3 무승



부로 종료되었고, 여러 경기 결과만 놓고 본다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호날두가 경기에 뛰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벤투스 측은 호날두가 최소 45분을 뛰기로 약속했었고, 많은 관객들은 그 사실을 사전에 숙지한 채로 경기를 관람하러 왔다. 호날두는 전반전에 출전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후반전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경기 종료까지 호날두의 모습은 오직 벤치에서만 볼 수 있었다.

호날두는 근육통으로 인해 뛸 수 없었다고 밝혔지만, 다음날 그가 SNS에 러닝머신을 타는 모습을 올리면서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경기가 종료된 후에 열린 팬 사인회에마저도 불참했다. 호날두를 사랑했던 그의 수많은 팬들은 커다란 실망감에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몇몇 팬들은 호날두의 유니폼을 찢거나 버렸고, 국내 팬들과 언론은 그에게 “날강두”라는 별칭을 선사했다.

10월 1일, 3일, 5일에는 맨체스터 시티가 총 6개의 트로피를 딴 것을 축하하는 ‘트로피 투어’가 부산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프로그램에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었던 손 라이트 필립스 (Shaun Wright-Phillips)의 사인회와 Q&A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많은 팬들이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손 라이트 필립스는 찾아온 모두에게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주었다. 5일 동안 한국에서 많은 팬들을 만나느라 지칠 법도 했겠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에서 그가 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10월 9일에는 루이스 피구와 함께 또 다른 2000년대 세계 4대 미드필더로 꼽히는 데이비드 벅엄(David Beckham)이 아디다스 70주년 행사로 한국을 방문했다. 벅엄은 특유의 준수한 외모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엄청난 킥력의 보유자로 ‘프리킥의 마

법사’라 불리며 영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인기를 보유한 선수다. 벅엄은 사인회와 신발 증정 이벤트뿐만 아니라 한글판 한정품 소개, 벅엄의 한글이름 짓기 이벤트 등 많은 팬 서비스를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이렇듯 여러 유명 축구선수들이 올해 한국에 방문했다. 많은 인기를 얻어가기도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주어 이미지가 바닥까지 실추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유명 축구 선수들이 한국에 방문하여,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플, 없어져야 한다

20331 진현승

정보화 시대에 들어선 21세기. 얻은 이점도 많지만, 이에 반하는 많은 폐해도 있었다. 특히, 인터넷의 등장 이후, 많은 사람들의 논쟁거리가 된 악플이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이다. 악플은 과거 싸이월드 세대부터 현재의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까지 광범위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작성되어 왔다. 사람들은 악플을 쓰는 일이 나쁜 행위임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악플을 쓰고 있다. 과연 악플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악플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악플은 주로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 정치인들 등에게 달린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때로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심한 욕설, 심지어는 가족에 대한 욕까지도 적어 올린다. 이들은 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일부에서는 악플을 다는 사람, 소위 ‘악플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다고 한다. 그들은 그들 본인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으며, 사회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물론 이들이 자존감이 낮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해서 이런 행동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기의 불만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푸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다.

악플이 이렇게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연예인들이나 여러 유명인들이 악플에 대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군중심리’다. 약 10여 년 전 어느 지하철에서 증명되었던 ‘3’의 법칙을 생각해 본다면, 단 몇 명의 사람들만으로도 군중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악플’처럼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허구 사실을 적은 악플러에게 허위사실 유포 죄로 소송을 건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중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가짜뉴스가 각인되어 쉽게 잊히지 않는다. 이런 대표적인 ‘군중심리’의 예로 ‘240번 버스 사건’을 들 수 있다. 모 언론이 퍼트린 가짜뉴스 탓에 처음에는 버스기사가 버티기 힘들 정도의 욕을 먹다가,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사건의 판도가 정반대로 뒤집혔다. 첫 원인 제공은 잘못된 뉴스가 했지만, 그에 따른 대중들의 ‘마녀사냥’도 한몫을 했다. 누군가가 허위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반대 목소리를 낸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조차 쉽지만은 않다. 게다가 위 사건처럼 이미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은 후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개인과 사회가 악플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악플 대응책을 이야기할 때마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된다. 하지만 이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논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사람들이 큰 상처를 입기 전에, 법률과 정책을 통한 악플 규제를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새로이 제기된 의견으로는, 연예기사의 댓글란을 아예 닫아버리는 것이 있다. 실제로 최근 ‘다음 뉴스’의 연예란에는 댓글창이 사라졌다. 물론 대중들에게 표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이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댓글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 이후 대중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토론하고, 자료를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대중들의 인식 수준은 이런 기술 발달의 속도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 악플 역시도 기술과 대중문화의 격차에서 생겨나는 것들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권리 중 하나이지만, 인간의 인권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다. 타인을 아프게 하는 악플들은 모두 사라져야 하고, 인터넷 창을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다.



NAVER



항공사고의 모든 것 2

20333 풍건우

0. 들어가며

작년 교지에 “항공사고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것은 일종의 '시즌 2'다. (지난 기사는 보인고등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지를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기사에도 강조해 두었지만, 항공사고의 종류는 무척이나 다양하다. 내가 타고 있는 항공기에 이런 사고가 난다고 생각하면 저절로 몸이 떨리면서도, 설마 나에게 일어나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 법. 내가 탄 항공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대처법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다. 글에 적힌 내용들을 숙지한 상태로 하늘 여행을 한다면, 진짜 “하늘 여행”을 할 확률은 낮아질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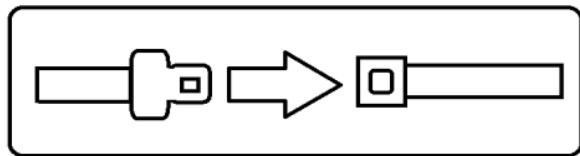
1. 비상구까지의 좌석 수 세기

내가 항공기에 탑승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바로 내 좌석에서 비상구까지 몇 개의 좌석이 있는지 세어놓는 것. 별 것 아닌 일이지만, 사실 생명을 지키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된다. 항공기의 전기는 엔진의 팬이 돌아가는 힘에서 생산된다. 다시 말하면 엔진이 멈추었을 시

에는 제대로 된 전기 공급을 받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사고가 발생하고, 비상착륙이 성공했다면 실패했던 간에 엔진은 이미 멈추었거나 큰 손상을 입은 상태일 것이다. 만약 화재까지 발생한다면 기내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화염과 유독가스로 가득 찬, 말 그대로 암흑지옥이 된다. 모든 승객은 90초 이내로 탈출하도록 연방항공청에서 규정하고 있다.¹⁾ 이 아비규환의 상황에서 어떻게 90초 안에 비상구를 찾아 탈출 할 수 있을까? 이때 아까 세어뒀던 비상구까지의 좌석 수를 활용하면 된다. 좌석을 세면서 앞으로 가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비상구로 바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2. 좌석벨트 착용하기/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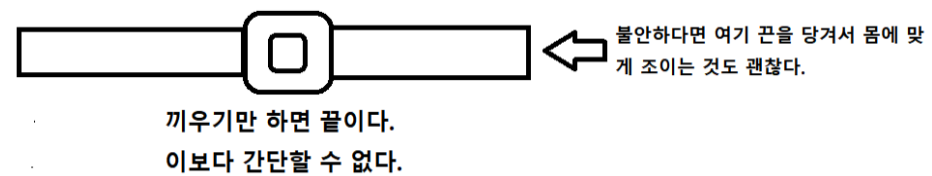
좌석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가끔 좌석벨트 착용 법을 몰라서 안전부절못하는 승객들이 종종 있다.



▲ 좌석벨트 표시등이 켜져 있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벨트를 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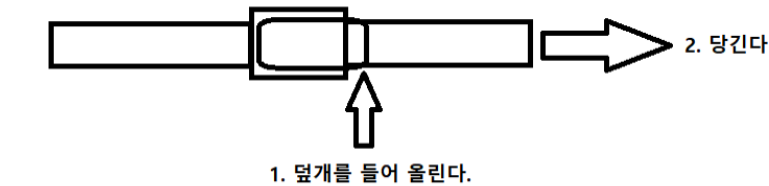
위 그림은 '좌석벨트 표시등'이다. 항공공어로 는 시트벨트 사인(Seatbelt Sign)이라고 한다. 이 것이 켜져 있다는 것은 모종의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다. 자리에 앉아 벨트를 매도록 하자. 만약 항공기가 세계 흔들리는데 자리에 앉지 못했다면 빈자리 아무 곳이나 앉아도 무방하다. 기내 방송에서는 화장실 사용을 자제하라고 하는데, 사실 '자제'보다는 '절대 엄금'에 가까운 일이다. 그냥 참자. 실제로도 청천난기류²⁾에 휘말린 항공기가 요동치던 도중,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난 한 승객이 승무원이 앉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화장실에 가다 좌석 선반에서 떨어진 수하물에 맞아 상처를 입은 경우가 있다. 승무원이 괜히 자리에 앉아서 좌석벨트를 매라고 안내하는 것이 아니다. 좌석벨트를 매는 법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자.

- 매는 법



- 푸는 법

유치원생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벨트를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3. 구명조끼

구명조끼는 비상착수³⁾ 때만 착용하므로 비상 상황 발생 시에도 입게 될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경우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태평양 상공의 망망대해에서 엔진 하나가 완전히 나가도 나머지 한 개로 버티며 공항으로 갈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항로를 설계하므로 매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물에 내리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그러나 만일 착수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착수 전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탑승한

좌석이 이코노미석이라면, 좌석 밑의 빨간 끈을 당기면 구명조끼가 있다. 비즈니스석이라면, 좌석 옆에 삐죽 나와 있는 빨간 끈을 위로 당기면 구명조끼가 담긴 봉지가 달려 나온다⁴⁾. 일등석은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승무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제 착용 방법을 알아보자. 구명조끼는 탑승한 항공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승무원의 설명을 잘 들으면 된다. 먼저 구명조끼를 잘 보면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다. 빨간색 고리가 달린 쪽이 밑을 보게 하고 머리를 집어넣는다. 머리를 집어넣었으면 고리가 달린 하얀색 끈을 찾자.

한 바퀴 허리에 감은 뒤 앞의 고리에 다시 끼워주면 된다. 이렇게까지 입었다면 구명조끼 착용은 끝이 났다. 이제 비행기가 착수하기를 기다리면 된다. 절대 비행기가 착수하기 전에는 구명조끼를 부풀리면 안 된다. 기내에 물이 차오르면 잠수를 하여 탈출해야 하는데, 구명조끼를 부풀려 놓으면 잠수 탈출이 불가능하므로 비행기에서 익사할 수 있다. 만약 실수로 기내에서 구명조끼를 부풀렸다면 고무관을 튜브 바람 빼듯이 누른 다음 구명조끼를 꼭 누르면 바람이 빠진다.

비행기가 착수해서 완전히 멈췄다면 가장 먼저 좌석벨트를 풀다. 그런 다음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비행기를 빠져 나온 후, 구명보트에 타기 전 출입문 앞에서 붉은색 손잡이를 세게 당겨서 부풀린다. 손잡이를 당기면 압축 공기가 들어있던 캡슐이 터지면서 구명조끼가 부풀다. 충분히 부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만약 잘못 부풀려서 손잡이로 부풀릴 수 없는 경우나 구명조끼가 불량일 경우에는, 고무관에 힘껏 숨을 불어 넣으면 된다.

4. 산소마스크

산소마스크는 기내 감압으로 인한 산소 감소 때 좌석으로 내려온다. 조종사가 조작하지 않아

1) 일명 "90초 법칙"

2) 맑은 하늘의 난기류라는 뜻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날씨가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난기류

3) 비상상황으로 인해 바다나 강, 호수 등에 착수하는 것

4) 요즘은 다양한 항공기를 도입했으므로 승무원에게 문의해보거나 안전안내 영상을 참고하자.



도 감압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내린다.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면 첫 번째 할 일은 당황하지 않는 것이다. 산소마스크가 내려옴과 동시에 비행기는 거의 추락하듯이 빠르게 지상을 향해 강하할 것이다. 이를 “긴급 하강”이라고 한다. 산소마스크가 작동하는 원리는 화학반응법, 탱크공급법으로 구분된다. 화학 반응법은 산소마스크를 당길 시 고정되어 있던 핀이 빠지면서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산소가 공급되는 것이다.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내에 탄내가 나고 더워질 수 있으나 화재는 아니므로 안심해도 좋다. 탱크공급법은 말 그대로 탱크에 산소를 잔뜩 싣고 간 뒤 비상시에 제공하는 것인데, 이는 비효율적이기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화학반응식이든 탱크공급식이든 산소가 제공되는 시간은 15분이다. 15분이면 산소공급이 필요 없는 안전한 낮은 고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착륙 방법은 간단하다. 산소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코와 입을 맞추고 머리끈을 끼운 뒤 양쪽의 끈을 당겨서 조여주면 된다.

5. 비상탈출

항공기가 비상착륙 혹은 비상착수를 마치고

나면, “일어나! 나와!” 하는 큰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당황하지 않고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비상구로 질서를 지켜서 나가면 된다. 항공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을 시 위험한 상황에 닥칠 수 있으므로, 앞서 언급했던 90초 법칙에 따라 신속하게 항공기를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짐은 항공사에서 나중에 보상해주므로 절대 가지고 내려서는 안 된다. 짐을 가지고 내리는 것은 탈출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미국의 경우 FBI의 취조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위해다.

① 비상착“륙”시

승무원은 착륙을 마친 후에도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말할 것이다. 기장의 탈출명령이 없으면 비행기에서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장이 탈출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승무원이 비상구 상황을 파악하여 사용 가능 여부를 파악할 것이고, 탈출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움직여 승객들을 통제할 것이다. 승객들은 이때 미리 넥타이, 펜, 하이힐, 손목시계 등 뾰족한 물건들은 미리 신체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하며, 신발은 신고 있다면 벗어서 품에 안고, 안경을 끼고 있다면 벗어서 양말에 끼워야 한다. (티웨이 항공의 비상 시 승무원 매뉴얼에 수록된 내용) 비상구로 나왔다면 슬라이드로 뛰어내리면 되는데, 이때 망설일 경우 다른 승객의 탈출이 어

려워지므로 무서워도 조금만 참자. 탈출을 완료했다면 최대한 항공기에서 멀리 떨어지되, 항공기가 시야에 있을 정도로만 멀어지면 된다. 너무 멀리 가면 도착한 구조대가 당신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② 비상착“수”시

앞서 언급했다시피 항공기가 비상착수를 할 확률은 극히 드물지만,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착수의 행동방침 역시 꼭 알아두어야 한다. 항공기가 비상착수를 할 때는 기체가 부서지거나 뒤집힐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충격방지 자세를 완벽하게 취해야 하며, 구멍조끼까지 착용을 완료한 상태에서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야 한다. 착수를 했다면 즉시 벨트를 풀고 승무원의 지시를 따라 준비된 구멍 슬라이드로 점프하면 된다. 점프를 할 때 역시도 뾰족한 물건들은 멀리해야 하며, 신발 역시 벗고 구멍 슬라이드에 탑승하자. 다시 강조하자면, 구멍조끼는 반드시 비상구 앞에서 탈출 직전 부풀려야 한다.

6. 기타 위기상황

① 기내에 발생한 환자를 목격했을 경우

소리를 질러서라도 바로 승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여기까지가 당신이 할 일의 전부다. 이후의 상황은 2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승무원의 응급처치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다. 승무원의 응급처치가 불가능할 시에는 “닥터 콜”을 하는데, 닥터 콜이란 승무원 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응급상황에서 의사를 찾는 행위를 말한다. 기내에 의사가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 탑승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 기장이 바로 다른 비행기로 무전을 취하여 의사가 탑승한 비행기를 수소문한다. 만일 그런데도 찾지 못했다면? 이때는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뒤 가까운 공항으로 기수를 돌려 비상착륙을 실시한다.⁵⁾ 만약 이런 일이 당신이 탑승한 비행기에서 일어나더라도,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자. 추후 항공사에서 지연보상을 해 줄 것이다.

②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 경우

역시 소리를 질러서 승무원을 불러야 한다. 승무원이 테이저 건과 포박 끈으로 무장하고 달려올 것이다. 승무원은 3차례 구두 경고를 하고, 그래도 난동을 멈추지 않는 경우 바로 테이저 건을 발사한 후, 포박 끈으로 상대를 제압한다. 해당 행위를 한 자는 도착 즉시 체포되어 경찰, 변호사와 삼자대면을 하게 된다. 승무원이 언뜻 유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항공 보안요원⁶⁾ 제도

가 없는 현재 승무원은 항공 보안요원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그러니 승무원을 만만하게 볼 생각은 버리자. 2명의 건장한 성인 남자를 단숨에 제압할 만한 실력의 소유자들이다.

③ 항공기가 수상한 사람에게 하이재킹 당했을 경우

정말 드물게 일어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상황일 것이지만 대처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 첫 번째는 범인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다. 범인은 심중팔구 극도로 흥분한 상태다. 범인을 자극했다가는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국가와 항공기 승무원을 믿는 것이다. 승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여러 차례 많은 훈련을 받아왔으며, 이는 전 세계 어디나 공통 사항이다. 또한, 당신의 국가는 당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당신과 당신의 항공기를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행할 것이다. 각자의 국가를 믿자.⁷⁾ ④ 자신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비키지 않는 경우 / 기타 무례한 손님을 목격하는 경우 이는 내가 직접 경험했던 사건이기도 하다. 김포→부산 노선의 에어부산 항공기를 탄 일이 있

었는데, 내 자리에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주머니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때 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괜히 비켜달라고 깨웠다가는 영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것 같아 바로 사무장을 불렀다. 사무장은 능숙하게 상황을 종료시켰고, 나는 무사히 남은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장”을 불렀다는 것. 사무장은 객실 승무원의 장(長)으로, 승객이 기장을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할 때 그를 대신 응대하게 되는 사람이다. 즉, 기장과 같은 권한을 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장을 부르는 것은 기장을 부르는 것과 같은 층위의 일이며, 하여 거의 모든 상황이 사무장을 부르면 말끔히 해결된다. 심각한 상황 이 사무장을 부르면 말끔히 해결된다. 심각한 상황 이 사무장을 부르면 말끔히 해결된다. 심각한 상황 이 사무장을 부르면 말끔히 해결된다. 무조건 사무장을 부르자.

⑤ 기타 불쾌하거나 위험한 일 발생 시

주저 말고 승무원을 부르자. 승무원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위의 사항들만 잘 숙지하고 있다면,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다.

5) 여담으로, 이 경우에도 항공사에 매우 큰 적자가 가해지는데, 착륙하기 위해서 비싼 연료를 그대로 버려야 하기 때문. 바뀔 말하면 항공사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연료값을 그대로 손해 보는 것.
6) 기내에 보안요원이 탑승하여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도이며,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다. 현재는 공중 납치 우려로 폐지된 제도이다.
7) 영화 “엔테베 작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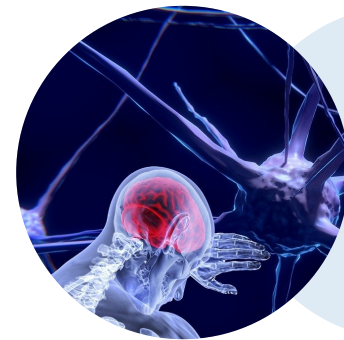
우주 탐사를 위한 로켓 엔진

20413 박재형

인간의 우주 탐사가 활발해지면서, 로켓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 로켓을 멀리 보내기 위해 우주 탐사에 뛰어들 국가들은 보다 나은 엔진과 연료를 찾고 있다. 공기 혹은 물을 흡입하고 그것을 분출해 추진하는 제트 기관과는 달리 로켓 기관은 자체 연료만으로 추진을 한다. 그렇기에 흡입할 공기와 물이 없는 우주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사용하던 화학 로켓은 연료 분사 시간이 매우 짧아, 큰 가속도를 가졌음에도 가속 시간은 짧아 높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현재 사용하는 '이온 엔진'이다.

이온 엔진은 아르곤이나 제논 등의 추진제를 이온화하여 전기적 특성을 띠게 한 후 자기력을 이용하여 선체의 후방으로 빠르게 분사하여 추진력을 얻는 기관이다. 이 이온 엔진의 자체 추진력은 약 20-250밀리뉴턴으로, 성인의 방귀의 추진력이 200밀리뉴턴임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약하다. 그러나 연비가 좋아 가속 시간이 매우 길고, 결과적으로 화학 로켓보다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다. 현재는 화학 로켓을 이용해 대기권을 벗어나고, 이온 엔진을 통해 우주 공간에서 추진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편 이온 엔진은 전력 공급 문제 때문에 목성 궤도 밖에서는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로를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방사능 사고의 위험 때문에 도입이 철회되었다. VASIMR, 워프 엔진 등 아직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이론 상으로만 존재하는 엔진과 연료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새 엔진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가 현실화된다면 향후 우주 탐사에 엄청난 장을 열어젖혀 줄 것이다.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하다: 마인드 업로딩

20427 정우혁

2014년 개봉한 <트랜센던스>는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가상의 기술을 다룬 공상과학 영화다. 주인공 월은 투자자들에게 인지, 자각 능력을 갖춘 슈퍼컴퓨터 트랜센던스에 대한 연설을 한 이후 반과학단체 RIFT에 의해 총을 맞는다. 죽기 직전 에블린은 슈퍼컴퓨터에 월의 정신을 업로드한다. 월이 죽은 후 에블린은 업로드가 실패한 줄 알았지만, 월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Is there anyone here?'(여기 누구 없어요?) 정신을 컴퓨터에 업로드한다는 주제는 <트랜센던스>에서만 다뤄졌던 것은 아니다. '마인드 업로딩'에 관한 영화나 TV쇼는 <트랜센던스> 이전에도 <더 런 모워 맨 (1992)>, <호스트 (1988)>, <트랜센던트 맨 (2009)>, <애니마 (2013)>, <닥터 후 (2005-)> 등이 있었다.

마인드 업로딩이란

마인드 업로딩은 어떤 정신 상태(장기 기억과 자아를 포함한)의 특정 뇌 기질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카피하는 가설적인, 미래의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컴퓨터는 뇌의 정보 처리를 시뮬레이팅하는 모델을 가동해, 컴퓨터가 원래의 뇌와 본질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반응하고 의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비유하자면, USB에서 컴퓨터로 영화를 옮기듯 우리의 뇌에서 컴퓨터로 정신을 옮기는 셈이다.

마인드 업로딩은 실현 가능한 기술일까

먼저 마인드 업로딩의 이론적 실현 방법을 짚

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인간의 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의 뇌에는 뉴런이라고 불리는 860억 개의 신경 세포가 있다. 각각의 뉴런은 축삭돌기와 가지돌기를 통해 서로 전기적 신호를 교환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은 이 뉴런 네트워크의 정보 처리 과정의 산물이라는 것이 대체로 신경 과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신경 과학자들은 배움, 기억, 양심과 같은 정신적인 기능들도 뇌의 물리적이고 전기화학적 프로세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람의 뇌의 분자와 분자 간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컴퓨터에 업로드하여 현실 세계와 똑같이 시뮬레이트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이 마인드 업로딩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다.

그러나 이 이론이 직면하는 한계점은, 인간에 뇌의 있는 엄청난 수의 분자와 그 분자 간의 상호 작용을 시뮬레이트할 수 있는 컴퓨터가 현재 인류의 기술력으로는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간 뇌를 디지털로 재구성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블루문 프로젝트'에 의하면, 뇌 속 분자들의 각각의 확률적 움직임까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10¹⁴테라바이트(Tb)의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분자 단위의 분석뿐만 아니라, 뇌를 스캔하는 문제, 호르몬 등 뇌와 정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등 한계점은 수도 없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 등으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신경 과학 교수, 케네스 D. 밀러는 뉴런과 뉴런 사이의 관계들을 컴퓨터로 구현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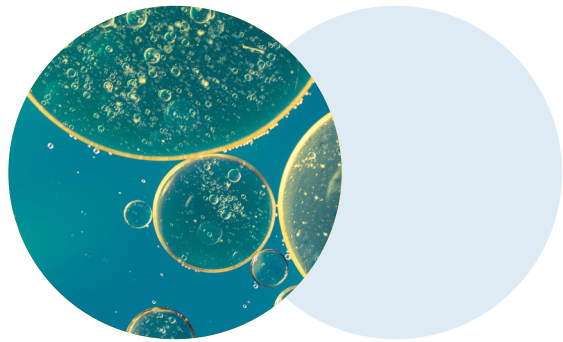
것 자체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한계점들과 회의론이 있음에도 적지 않은 수의 과학자와 미래학자들이 마인드 업로딩의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그 중 한 명이 구글의 엔지니어링 디렉터, 레이 커즈와일이다. 그는 2013년, '글로벌 퓨처 2045'에서 "2045년까지 사람들은 그들의 뇌 전부를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디지털적으로 영생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마인드 업로딩의 의의

마인드 업로딩은 아직도 실현이 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그러나 아이디어 그 자체만으로도 컴퓨터 과학이나 신경 과학 방면 연구자들의 무수한 토의를 촉발시켰고,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과 존재의 본질, 철학적 좀비, 영생 등등 철학적인 주제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했다. 아직까지는 공상 과학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이 상상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과학자들과 기관들이 꾸준히 연구 중에 있다. 인류는 그간 상상만 해 오던 것들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실제로 만들어 내곤 하지 않았던가. 어쩌면 멀지 않은 미래에, 인류는 육체에서 해방되어 정신적인 영생을 얻을지도 모르겠다.





세포들의 눈, 호메오 단백질

20620 이동훈

우리 몸에 있는 서로 다른 장기들에서 같은 DNA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같은 DNA에서 시작됐는데, 어떻게 서로 다른 세포들로 분화하는 것일까? 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 30년 간 정설의 위치를 점하고 있던 이론을 뒤집은 연구 결과를 최근 카이스트의 김진우 박사가 내놓은 바 있다. 30년 간 학계를 지배해 온 이론을 뒤집은 그 연구는 어떤 내용일까?

우선 원래의 이론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 몸의 같은 DNA를 가진 세포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포간의 소통은 필연적이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호메오 단백질’이 소통을 하기 위한 매개체로 쓰일 것일 것이라고 가정했

나, 세포막은 물과 잘 결합하지 않는 수소성인 반면, 호메오 단백질은 물과 잘 결합하는 친수성이었다. 수소성인 세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친수성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세포간 소통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것의 매개체는 호메오 단백질이 아닐 것이라는 이론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김진우 박사의 이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7월 17일, 카이스트 김진우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메오 단백질은 세포 밖으로 나갈 때 수소성을 띠는 아미노산 잔기를 이용하고,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는 세포 표면에 있는 프로테오글리칸 사슬과 결합하는 것이다. 이는 다

른 단백질의 경우처럼 세포간의 소통과 관련한 단백질의 경우 역시도 이동과 출입 시에 별도의 물질을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이론의 전제를 뒤집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 박사는 연구에서 세포의 호메오 단백질 분비 능력에 따라 소수성 아미노산 서열이 바뀐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보편적인 생각을 뒤집어 연구의 방향을 바꾼 그의 이론에 따라, 세포생물학, 즉 세포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가 또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새로운 이론을 활용하면, 녹내장이나 파킨슨 병과 같이 해결하지 못하는 병들의 치료제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다양한 연구가 앞으로도 쫓 진행되길 바란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패션의 새로운 도전

20716 오제우

최근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대체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기업들도 있고, 자동차들의 대기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 같은 운동도 있다.

한편 패션 산업은 섬유를 제작하는 과정, 재고를 처리하는 등의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산업용수를 사용해서 2번째로 가장 많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산업으로 지정되었고, 패션 산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대략 10%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트렌드에 맞게 낮은 비용으로 의류를 생산하는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은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하여 패션 산업을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 역시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넬과 같은 대형 패션 하우스들은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피, 희귀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였고, 여러 디자이너들과 브랜드들이 이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첫 번째로, 스위스의 디자이너 형제가 만들어낸 브랜드 ‘프라이탁’은 자동차의 페타이어, 자전거의 버려진 고무튜브 등에서 수작업을 통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을 만든다. 이런 버려

진 재료로 만들어지는 가방들이지만, 하나 밖에 없는 자신만의 디자인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과, 실용적인 디자인, 적절한 색상 배치 등의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프라이탁’처럼 재활용의 의미를 뛰어넘어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활동을 ‘업사이클’이라고 한다. 또한, 프라이탁의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물은 비가 많이 오는 스위스의 특징을 잘 이용하여 빗물을 이용하고, 공장의 가동에 필요한 열은 재활용열을 사용하는 등의 자연 친화적인 과정을 통해 가방을 만들고 있다. 게다가 생산 과정에서는 스위스의 이민 노동자, 장애우들을 적극 고용하여 윤리적으로도 올바른 과정을 통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을 만들고 있다. 이런 프라이탁의 가방에서 우리는 ‘가방’의 의미를 뛰어 넘은 그들만의 특별한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출처 : freitag.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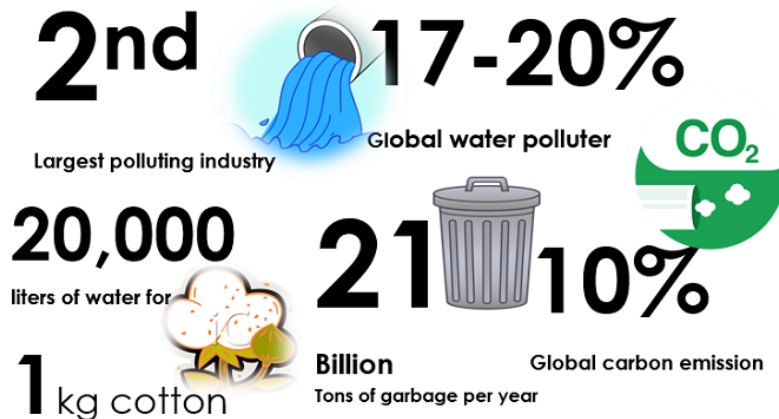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패션 아이템을 생산하는 프라이탁 같은 기업들도 있지만, 의류 생산 초기에 사용되는 면 종류의 변화를 통해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패션 브랜드들도 있다. 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들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티셔츠 한 장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8206L의 물이 필요하고, 청바지 한 벌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약 37500L의 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섬유는 패션 브랜드가 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 노력에 의한 변화 또한 지대하다. 이렇게 면섬유 생산 과정에서 변화를 위해서 패션 브랜드들은 ‘대체 면’을 사용하고 있다. 대체 면의 종류에는 환경 단체에서 인증을 받은 면섬유, 공정 무역을 통해 생산된 면을 포함한다. WWF(세계 자연기금)와 같은 환경 단체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농약 사용, 아동 노동 금지 등의 환경적, 윤리적 기준을 두고 적합한 섬유 재배 농가에만 BCI(Better Cotton Initiative 더 나은 섬유 이니셔티브),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와 같은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인증을 받은 섬유들은 기존 생산 방식에 비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46퍼센트 가량 감소하고, 물 소비량은 최대 97퍼센트까지 감소한다. 이런 친환경적인 면을 사용하는 패션 브랜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파타고니아가 있



[그림설명: 파타고니아의 Responsibili-Tee는 공정무역 과정으로 생산되고, 재활용된 섬유와 폴리에스터 재료를 사용한다.]

Textile & Clothing Industry

By the number



[그림설명: 패션 산업 환경적 문제의 심각성]



[그림설명: 더 나은 섬유 이니셔티브 Better Cotton Initiative]



[그림설명: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는 BCI와 함께 섬유 인증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다. 파타고니아는 GOTS(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인증 받은 섬유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판매 이후에도 중고 파타고니아 제품의 무료 수선 행사, 유기농 면의 생산 농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원생들

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경진 대회도 열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대항하여 패션 산업계에서도 우리의 지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들이 아직은 적지만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비록 현재는 유기농 면의 재배가 연 전체 생산 면의 0.4%에 불

과하지만, 의류를 구매하기 전에 의류가 환경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소비한다면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작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스타 시스템의 문제점

21014 박윤서

K-POP이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많은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이러한 스타 시스템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아이돌 포화 현상'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돌 팀이 데뷔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름을 널리 알리고 유명해지는 팀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연예계는 아이돌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데뷔한 지 수 년이 지난 발라드 가수, 연륜 있는 가수들이 현재 연예계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이로 인해 비아이돌 가수들은 무대에 서는 기회조차 줄어들고 있다. 과학계 아이돌 위주로 흘러가는 스타 시스템 때문에 다른 장르의 가수들은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이다.

두 번째, 외모지상주의의 심화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여러 아이돌들에게는 외모가 과도하게 미덕으로 강조되고 있다. 외모가 조금 부족해도 실력은 출중한 가수들이, 정반대로 외모만 뛰어난 아이돌에 비해 조금은 외면 받는 현실이다. 외모의 기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단지 외모가 조금 뒤쳐진다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해 비난을 받는 아이돌도 꽤나 있다. 스타들의 성형수술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성형을 했든, 그렇지 않

았든 간에 외모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받으면, 회사와 대중들에게마저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세 번째, 음원 사재기 문제다. 음원이 발매되자마자 음원차트 상위권에 올라오는 경우를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사재기에 해당하지 아닌지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야 하겠지만, 확실히 최근 음원 사재기를 통한 차트 진입을 하는 사례가 부쩍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수익과 인기를 쉽게 얻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사람들의 지지와 이해를 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어긋난 팬 문화다. 비교적 팬덤의 규모가 큰 아이돌은 사생 팬이나 안티 팬의 수도 많기 마련이다. 사생 팬이 모 아이돌의 속

소 앞에 찾아가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숙소 안에 침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온다. 안티 팬의 경우 아이돌을 상대로 테러 협박을 하고, 댓글로 심한 비속어와 비난을 달고, 심지어는 실제로 테러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스타를 생산하는 사회의 시스템은 화려하고 밝은 정면 뒤, 잘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이면역시도 가지고 있다.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여 K-POP과 한국의 스타 시스템을 더욱 나은 방향으로 성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Melón





INTERVIEW

직업 인터뷰 유튜버(Youtuber)

유튜버(Youtuber)는 학생들의 장래희망 직업 순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직업이다. 교지 편집부에서는 유명 유튜버 '빅헤드'와 '숨사탕'을 직접 만나, 친근하지만 동시에 낯설기도 한 유튜버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PLAYBOIN 풍건우(이하 P) 안녕하세요, 숨사탕님, 빅헤드님. 두 분을 잘 모를 수도 있는 보인고 학생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숨사탕(이하 S)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게임, 그리고 영화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버, 숨사탕이라고 합니다.

빅헤드(이하 B)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튜브에서 게임, 그리고 영화 리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유튜버, 숨사탕이라고 합니다.

P 유튜버, 특히 숨사탕님과 빅헤드님 같은 게임 유튜버가 인기 있는 직종으로 떠오르고는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게임 유튜버에 대해 방에서 게임만 하며 쉽게 큰 돈을 버는 직업이라는 편견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유튜버라는 직업,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S 단순히 게임을 즐기며 쉽게 돈을 번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제작한 게임 관련 콘텐츠를 대중들에게 어떻게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직업이에요. 일종의 인터넷 개그맨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직업인데, 그런 편견들을 보면 아쉬운 경우가 많죠.

P 두 분은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B 저는 게임 방송 활동을 먼저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편집이 취미였기 때문에 생방송 중 나온 재미있는 장면들을 뽑아 편집해서 당시 방송하고 있던 아프리카 티비 방송국에 올리고 있었는데,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심지어 홍보도 잘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댓글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자들의 보람인데,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하졌더라고요. 그때 떠오른 게 유튜브였어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는데, 너

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취미 삼아 시작했던 건데, 알고 지내던 스트리머분들이 본격적으로 유튜버로 활동할 것을 추천해주셔서 이렇게 전업 유튜버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S 저도 원래는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취미로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특히, 영화를 보고 인터넷에 평점과 후기를 남기는 일을 좋아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게 쓴 글은 끝까지 잘 안 읽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영상으로 좀 더 보기 편하게 만드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게 게임과 영화를 리뷰하는 유튜버였고, 그것이 지금은 제 직업이 되었네요.

P 유명 유튜버들의 유튜브 수익이 매우 높다고들 하는데, 두 분의 유튜브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살짝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B 사람들은 구독자가 많으면 수입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구독자수와 수입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S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나 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나 조회 수가 1~2만 정도라면 수익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B 게다가 영상 길이와 시청자들이 중간 광고를 얼마나 시청하는지에 따라서도 유튜브 수익이 천차만별이랍니다. 아시다시피 유튜버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게 심한 직업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유명한 유튜버들은 수입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겠지만, 대부분의 유튜버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S 게임 스트리머와 달리, 저는 기획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라, 하나의 영상을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하는 시간이 상당합니다. 대본을 쓰는 데 보통 3~4일이 걸리고, 영상 편집에는 2~3일, 녹음하는 데 또 하루. 이렇게 영상 하나 만드는 데



INTERVIEW

보통 8~9일 정도 걸려요. 저는 일주일에 2~3개의 영상을 올리는데, 모든 영상의 조회 수가 다 높은 것은 아니어서, 한 달에 정말 많이 벌면 700~800만 원, 조회 수가 정말 낮은 달에는 50만 원밖에 벌지 못할 때도 있어요.

P 만약 게임 말고 다른 분야의 유튜버에 도전해보고 싶다면 어떤 분야를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S 1인칭 캠을 들고 여행을 다니면서 영상을 찍는 여행 유튜버도 관심이 있고, 여러 유명 인물들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해주는 영상도 제작해보고 싶어요. 유튜버 ‘효기심’님이 역사를 되게 재밌게 훑어주시는 콘텐츠를 제작하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인물의 생애가 어떠했는지 보기 편하고 재미있게 가공해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P 10대 장래희망 직종 중 1위를 유튜버가 차지했다는 통계 결과를 두 분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S 희망 직종으로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중,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성인이 되면 다 버팀목이 될 거예요. 그런데 17, 18세부터 유튜버 일에 뛰어들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친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막연하게 단순히 ‘유튜버’가 되겠다고 뛰어들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 같아요. 연예인을 예로 들면 가수, 개그맨, 배우 등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유튜버도 마찬가지로요. 구체적인 분야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인 의미의 유튜버를 꿈꾸고 있다면, 저는 유튜버라는 진로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민해보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B 저는 10대들이 유튜버를 직업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취

미활동으로서 먼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10대들은 너무 바빠서 특별한 취미 활동이 없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의 취미 활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유튜버를 취미활동으로 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건 되게 건전한 취미 중 하나니까요.

그런데 유튜버를 직업적인 차원에서만 인식하고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뛰어들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부 접고, 대학 접고, 심지어는 직장도 접고 유튜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유튜버라는 직업은 왕도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비법 같은 게 없는 거죠. 누가 성공할지 모르고, 누가 실패할지 모르는 시장인데, 무작정 뛰어드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결론적으로 유튜브를 학교 공부하면서 남는 시간에 취미 활동으로 즐기는 것에 출발했으면 해요.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또는 취미 활동으로 드론을 날린다고 하면, 단순히 혼자 드론만 날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딘가에 남겨두고, 쌓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취미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취미 차원에서 먼저 접근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P 유튜버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구체적인 조언이 있을까요?

B 일단 먼저 ‘시작’부터 하세요. 가끔씩 저에게 메일이 와요. 유튜브 시작하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채널에 들어가 보면 한 달에 2, 3개 영상 올리다가 3달 정도 지나면 활동이 멈춰있더라고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행동력과 성실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유튜브를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S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유튜버를 꿈꾸는 친구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막연히 ‘유튜버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빈틈, 블루 오션을 노리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단순히 게임 영상을 올리거나, 리뷰를 한다거나, 이런 건 너무 평범하죠. 그런 영상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해요. 그것보다는, ‘내가 게임을 이렇게 해보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좋더라.’ 같은 생각에서 출발해서, 나만의 독창적인 컨텐츠로 승부를 봐야한다고 생각해요. 맞서 싸운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맞서 싸워서 본인만의 독창적인 색깔로 부수고 나올 수 있는 게 유튜브 성공의 길인 것 같아요.

P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보인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S 무엇이 됐든 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했으면 좋겠어요.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학 진학을 설불리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고, 일단은 대학을 진학하고 나서 진로를 좀 더 고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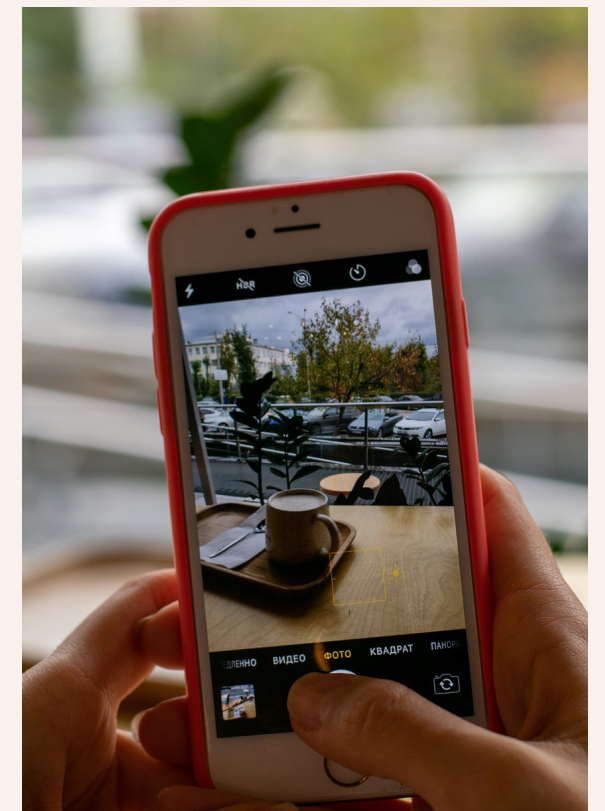
B 저는 방금 솜사탕님이 말한 의견이랑 조금 반대데,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거든요. 사실, 대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학위가 제 직업에 어떤 쓸모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본인의 꿈과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성실함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을 가건, 유튜버를 하건, 게임 스트리머를 하건, 어떤 일이든 중요한 것은 그 노력과 성실함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에게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대학이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저는 과감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표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할 자신이 있다면 과감히 뛰어들어도 좋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학업에 충실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S 20대에 많은 도전을 하세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도 있겠죠. 무언가에 도전하다 실패했을 때 20대 초반과 20대 중반이 감수해야 할 위험의 무게 차이는 정말 커요. 어렸을 때 도전해 보시고, 하는 모든 것이 잘 될 수는 없으므로 어렸을 때 큰 실패도 맛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무언가를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P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재밌고 유익한 말씀 전해주신 두 유튜버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학교 선생님 ♥



TEACHERS AT BOIN

우리 학생들도 인정한 보인고의 큰 자량은 바로 보인고의 선생님들이다.
특히 2019년 '교훈 실천의 해'를 맞아, 이번 호에서는 **날로 새롭
게, 바르게 살며, 베풀며 사는 보인고 세 분의 선생님들**을 소
개하려 한다.

강이욱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는 독서의 중요성과 좋은 독서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 학생들도 **인생과 사람을 배우는 독서**
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백기곤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는 캠핑, 운동, 사진 등 다양한 취미 활동
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만의 '워라벨'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정다희 선생님과의 인터뷰에서는 올해 진행되었던 **벽화 그리기 프
로젝트**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담겨 있다. 선생님과 미술 동아리 학생
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보여준 나눔의 정신을 느껴보자.

TEACHERS AT BOIN

강이욱
선생님

INTERVIEW

20427 정우혁



1.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선생님을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보인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이욱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읽는 힘, 생각하는 힘, 소통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국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 덕분에 웃는 일이 많아서 아주 행복한 교사입니다.

2. 선생님께서는 독서를 사랑하시고, 학생들에게도 독서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시는데요. 독서를 사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선생님께 독서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 우선 국어 교사로서 학생들이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 독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서를 강조해요. 그런데 교사로서가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독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실제로 제가 독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지

난날을 되돌아보면 20대의 '나'나 30대의 '나'가 이제 막 40대에 접어든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느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 보았더니 독서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 인간은 그가 읽은 책의 총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는 한 사람이 정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독서가 큰 영향을 끼친다는 뜻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의미 있는 한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하면 그 책을 읽기 전의 사람과 후의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독서란 나의 정신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에 있어 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독서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 제가 독서를 사랑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한 가지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 주

변에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와이프만 해도 책을 좋아하고 즐겨 읽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교수업연구모임’에서 서울, 경기 지역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 연구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 대부분이 책을 좋아해요. 근데 사실 제가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거기에 적응을 아마 못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역시 책을 좋아하다 보니 그 사람들과 오랜 기간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어요.

3. 최근에 감명 깊게 읽으신 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굳이 감명 깊게 읽은 책 두 권을 추려내어 보자면 하나는 ‘일간 이슬아 수필집’이고 다른 하나는 ‘명견만리 - 새로운 사회편’입니다.

일간 ‘이슬아 수필집’의 작가는 그 전에 소설을 쓰기도 했지만 그렇게 유명한 작가는 아니에요. 아마 처음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그 작가가, 한 달에 구독료로 10,000원을 자기한테 보내면, 월화수목금, 일요일에 다섯 편 씩, 글을 써서 보내주겠다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려요. 한 달을 4주로 잡으면 구독자는 20편의 글을 받을 테니까 글 한 편에 500원씩인 거잖아요? 내가 글을 보내줄 테니 나에게 돈을 입금해 달라, 이렇게 해서 SNS를 통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구독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달에 구독료 10,000원을 받고 약속했던 대로 매일매일 글을 보내주었고 그 보내준 글을 모아서 책으로 펴낸 게 주간 이슬아 수필집 이거든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책이 되게 재미있어요. 6개월 동안 연재한 글을 모았기 때문에 책은 꽤 두껍지만 술술 잘 읽혀요. ‘한 달에 구독료가 10,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글 한 편에 500원씩이라고 생각하면 음료수 하나도 500원 넘는 세상이니깐, 음료수 하나 마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책을 읽어 보면 ‘아아, 500원의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연재를 하고 있다면 나도 구독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들었던 책이에요. 학생들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명견만리 새로운 사회 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정치, 생애, 직업, 탐구 편’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말 그대로 정치, 생애, 직업, 탐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원래 명견만리라는 KBS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의 현실은 이렇게,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 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가를 이야기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보통 훌륭한 다큐멘터리들 중에 책으로 옮



긴 걸 보면 책은 좀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지식 채널 e 같은 경우에도, 영상이 책보다 좋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명견만리는 다큐보다 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은 가장 최근에 읽은 명견만리 시리즈인데 내용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4. 만약 선생님께서 앞으로 단 한 권의 책과 함께 평생 동안 무인도에서 살아야 한다면 어떤 책을 가져가고 싶으세요?

●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과학자는 모든 과학 지식이 파괴되고 다음 세대에 남길 단 하나의 메시지를 남겨야 한다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을 남길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인도에 책 한 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책만 봐야 하는 거니깐 여러 번 읽어도 질리지 않는 책을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가져갈 것 같아요. 이 책은 학창 시절 때 제일 좋아했던 책이기에, 이 책의 마지막 책장을 덮었을 때의 그 느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5. 학업에 밀려 독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독서 습관을 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행동을 해야 해요. 독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그만큼 의지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 아침에 등교해서 7시 40분부터 7시 55분까지 15분 동안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석식 먹고 난 후에 도서관을 간다든지, 이렇게 가능한 시간을 잡아서 그 시간 동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친구들이 축구나 게임을 하자고 하더라도) 책을 읽는다면, 독서하는 습관이 길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방법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더 좋은 방법은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게 필요해요. 사실 스마트폰에도 단편적인 읽을거리는 많아요. 하지만 그것의 대부분은 깊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독서 역량을 기르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을 조금 멀리하고, 가방 속에는 읽을 책 하나 정도는 꼭 넣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저도 책에 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100권짜리 아동 문고 전집을 가져와서 책꽂이에 꽂아 주셨어요. 아동 문고 전집에는 ‘소공녀’, ‘15 소년 표류기’, ‘키다리 아저씨’, ‘삼총사’와 같은 유명한 어린이 고전 소설이나 ‘세종 대왕’, ‘이순신’ 같은 위인전 등이 있었어요. 100권짜리 전집이 꽂혀 있는데 별로 관심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책을 읽는 것보다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면서 노는 게 더 재미있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하루는 방에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책을 좀 읽어 봤냐고 물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안 읽어봤다고 말했는데, 몇 달이 되도록 하나도 안 읽고 있으니깐 아버지가 답답하셨는지 책 한 권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사람이 투명해져서, 옷을 벗으면 아무한테도 안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야. 이 사람은 팔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 다친 사람처럼 평소에 붕대를 온몸에 감고 다니는데, 붕대를 풀면 원래는 손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 것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되게 재미있게 들려주셨어요. 그 책은 SF (공상 과학) 소설이었는데 제목이 ‘투명 인간’이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땐가 일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깐 그 책이 정말 재미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간 다음에 그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죠. 읽는데 실제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다른 책도 꺼내서 보고, 이러면서 책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제가 이사를 하게 돼서, 초등학교를 편도로 한 시간 넘게 통학했어요. 왕복으로 치면 2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여서 초등학생이 다니기에는 좀 먼 거리였지만, 전학을 가기 싫어서 그 학교를 계속 다녔거든요. 버스 안의 시간이 무료하게 느껴져서 저는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요즘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디 멀리 갈 때는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읽어요.

저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도 독서의 즐



거움을 알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책을 읽는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게 될 텐데, 요즘 워낙 게임이나 TV, 스마트폰 같은 자극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책은 그런 것만큼 자극적이거나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는 아니다 보니, 그런 것들과 가까이 할수록 책과는 조금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는 조금 더 멀리하고 비는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책을 읽고 싶어도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에게, 흥미에 맞는 책을 찾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 스스로 국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나 책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책(소설)을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소설도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보통, ‘소설을 읽어서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실제로 소설을 읽어도 대단히 큰 도움이 돼요.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재미있기 때문에 쉽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책 읽기에 흥미가 없던 학생은 소설책으로 시작을 해서 책을 계속 가까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꼭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책(비문학)들도 많이 읽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비문학 책은 필요에 의해서 찾아 읽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이 비행기에 관심이 있으면 비행기에 대한 책을 찾아보는 거고 요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찾아보는 것이죠. 비문학 책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필요를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궁금하거나 흥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유튜브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서점이나 도서관을 가서 그에 관한 책을 참조하는 습관을 들이면 책을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단순히 책장을 넘기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나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우선 책을 읽을 때, 건너뛰면서 읽지 않고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 것이 중요해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의외로 독서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책을 읽는 양보다는 질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질이라는 게 책의 질일 수도 있는데, 본인의 독서 습관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대개는 읽다가 지루한 부분이 있거나 약간 읽기 귀찮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생략해 가면서 읽는 것이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계속 책을 읽더라도 독서 능력이 향상되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 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천천히 읽으라고 이야기해요. 천천히 읽는 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책이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 제일 좋은 책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slow reading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 같이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도 추천해요. 얼마 전에 혁신 학교로 지정이 된 단국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단국고에서는 80% 이상의 학생이 학교 독서 동아리에 가입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학생들이 그 독서 동아리에 그저 형식적으로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동아리가 체계적으로 운영된대요. 아이들끼리 자율적으로 모여서 동아리

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같이 읽기로 한 책을 정한 다음에, 지정된 날짜까지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이런 게 한 두 그룹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거의 전교생 전체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깐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의 독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에도 그런 문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만 그 책을 읽고 책을 덮어버리면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국고의 학생들처럼 같은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습니다. 그게 아니면 블로그 같은 곳에 서평을 쓰거나 책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등, 다른 사람들과 책에 관한 내용이나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습관을 기른다면 아무래도 책에 대한 기억도 오래 남고 여러 생각들을 교환하면서 그에 대한 피드백도 받을 수 있으니,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8. 보인고 학생들이 꼭 읽어 보았으면 하는 책들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꼭 읽어 봤으면 하는 책들은 아주 많죠.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답을 한다고 하면 저는 100권, 200권도 추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독서 창체 시간에 제가 추천하는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됩니다. 현재 2학년들의 경우에는 7-12 반은 1학기 때 이미 수업을 마쳤고 1-6 반은 현재 진행 중인데, 독서 창체 시간에 제가 권하는 책들부터 부지런히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백기곤
선생님

INTERVIEW

20132 정승민



1. 선생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영어교사 백기곤입니다. 2학년 학급 담임과 교과 수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선생님은 여러 취미를 가지면서 워라밸을 잘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취미활동을 즐겨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취미활동은 참 다양한데요, 일단 집 밖에서 하는 다양한 활동은 대부분 다 한 번씩 접해봤다고 보면 돼요. 가장 많이 접하는 건 캠핑이고, 이를 메인으로 두고 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즐깁니다. 산과 들로 떠나 그곳에서 야영을 하는 백패킹, 카약, 낚시, 사진, 드론촬영 등도 즐깁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운동 자체에 더 집중하는 활동을 하는데, 오랜 꿈이었던 철인3종 완주를 위해서, 마라톤, 사이클, 수영 및 웨이트 트레이닝을 즐기며,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 밖에는 스쿠버다이빙과 프리다이빙, 서핑과 스키 등도 기회가 될 때마다 즐기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는 클라이밍을 두 달 정도 배워서 설악산 자연 암벽등반을 다녀오기도 했네요. 아마 당분간은 취미가 늘긴 늘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그러한 취미를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렇다 할 취미를 갖지 못했어요. 오직 교직에 관련된 분야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여력이 안 됐었죠. 그러다 드디어 꿈을 이루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서 차를 바꾸었는데, 그 차량동호회 분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캠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부러웠죠. 저는 부러우면 부러움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직접 한 번 해보곤 해요. 그래서 일단 텐트를 사고, 동호회에 가입해서 캠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텐트를 설치하는 데 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죠. 그렇게 가족과 함께 시작한 캠핑이 계기가 되고, 중고등학교 시절 즐기던 운동과 대학 시절 즐기던 사진을 다시 시작하고, 조금씩 취미의 분야가 넓어지고 종류가 많아지게 됐네요.

4. 앞서 말씀하셨던 선생님의 취미활동들이 가지는 매력은 무엇인가요?

● 아웃도어가 가지는 가장 큰 매력은 자연 자체라고 생각해요. 사실, 집은 아무리 넓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아파트보다 높은 산, 공원보다



넓은 들, 수영장보다 넓고 깊은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고, 자연에서 얻는 재미 또한 도심에서 느끼는 그것보다 더욱 진하고 짜릿하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창구로서 취미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문을 통과해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각종 놀이기구를 즐기듯 그 취미로 자연 속에서 놀게 되는 거죠. 혼자, 친구와 가족과 함께! 그러다보면 건강해지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세상에 대한 폭도 넓어지며, 생각도 조금씩 깊어지게 돼요.

5. 선생님의 취미활동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학교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 철인 3종을 처음 이야기 했던 것은 채성민 선생님이셨어요.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이미 철인 3종을 마스터 하신 분이시죠. 포디움이라고 들어 봤나요? 시상대에 1, 2, 3등이 높이별로 서서 메달을 목에 거는 그곳에 몇 번이나 섰던 경험이 있는 분이랍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자극이 왔죠. 마라톤은 김웅천, 류신행 선생님의 역할이 컸어요. 특히, 류신행 선생님은 달리기로 15kg 이상을 감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뛰기 시작했어요. 살 빠지고! 나름 1년 넘게 열심히 뛰었더니, 저도 10kg 정도 빠지더라고요! 살을 뺐으면 이제 뭘 해 볼까요? 몸이죠! 보인고 최고의 근육남, 김웅천 선생님의 근육을 흠모하며 저도 지금은 웨이트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캠핑을 자주 같이 하는 선생님은 안 계세요. 하지만, 누구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함께 떠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들 보다는 우리 학생들과 소규모로 캠핑을 다니고 싶어 '스카우트' 활동을 해볼까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포기했었어요. 이 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6. 선생님의 취미활동이 선생님의 일상이나 학교 수업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 공과 사의 구분, 워라밸,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학교와 관련된 업무는 무조건 초과 근무를 하는 한이 있어도 학교에서 끝내요. 퇴근 후의 자유와 주말의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에게 리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는 업무와 교육에 집중하고, 주말 동안 각종 취미로 리프레쉬를 하고 오면, 다시 집중할 힘과 동기가 생기게 되죠. 더불어, 다양한 사람들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회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점도 좋은 점이라 생각합니다.

7. 보인고에도 일상 속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를 찾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공부 시간에 큰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취미 활동이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죠. 체력과 정신력이 버텨주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시간이 나는 주말, 핸드폰을 내려놓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전거나 마트를 타고 한강 라이딩을 다녀오세요. 서쪽으로 반포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라면을 먹고 와도 좋고, 동쪽으로 달려 팔당댐 앞에서 파이팅을 크게 외친 후, 초계국수를 먹고 와도 좋습니다. 운동 후에 맛있는 것을 먹고 집에 와서 시원하게 샤워 후 꿀잠 한 시간. 건강해지고 맑아져 있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야외보다 실내를 좋아하나요? 그럼 취침 시간 1시간 전에 스카트 20회 3세트, 팔굽혀 펴기 20회 3세트, 플랭크 1분 3세트! 남자는 코어가 생명입니다. 그렇게만 운동해도 땀이 송골송골 맺힐 거예요. 잠시 땀을 식히고 샤워, 그리고 천천히 심신을 안정시키며 책을 몇 장 읽다가 꿀잠. 여러분의 하루는 완벽하게 정리될 거예요.

정다희
선생님

INTERVIEW

10818 이승우



1. 선생님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보인 고등학교의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있는 미술교사 정다희입니다. 1, 2학년 미술수업을 맡고 있어요. 잠시라도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마음껏 자신을 표현하며 감수성을 키우는 것, 미술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이 제 미술수업의 목표입니다.

2. 일용관 벽면에 예쁜 벽화가 그려진 후로 자습하러 가는 길이 더 환해진 것 같아요. 벽화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하신 계기가 무엇인지, 벽화 그리기 작업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저는 뭔가를 꾸미고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제 책상도 깔끔하게 해 놓아야 일이 더 잘 되는데요. (웃음) 우리 보인고등학교는 밖에서 볼 땐 잔디운동장도 있고 굉장히 크고 멋진데, 학교 역사가 오래 되었다보니 학교 내부에는 낡은 곳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집만큼이나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이다 보니, 학교를 좀 더 아름답게 바꿔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술로 학교를 아름답게 꾸며보자'는 마음으로 벽화 그리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보인고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학년 미술 시간에 '학교 환경 개선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미술로써 학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그 방법을 적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려 발표하는 수업이었죠.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소들과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실현 가능성과 디자인의 아름다움 등을 기준으로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정자 옆 일용관 벽면에 벽화를 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벽화를 그린 기간은 일주일뿐이었지만, 벽화 그리기를 결정하고 구체적 장소와 디자인을 정하며 준비했던 과정까지 합하면 약 8개월 동안이나 진행됐던 작업입니다.

3. 벽화 디자인을 결정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벽화 디자인을 결정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셨는지 알려주세요.

● 벽화 디자인을 결정할 때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의견은 학생들이 매일 공부하는 '일용관' 벽면이니 너무 튀지 않는 차분한 분위기의 벽화를 그리자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의견은 벽화 옆 정자는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니 활력을 주는 경쾌한 이미지의 벽화를 그리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두 의견이 너무 팽팽했기 때문에 벽화를 그리는 작업보다 디자인을 정하는 일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밝고 경쾌한 이미지의 디자인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차분한 파스텔톤보다는 원색의 이미지가 정자에



서 느낄 수 있는 보인의 사계(四季)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 문입니다.

4. 벽화 이미지는 어떤 그림을 그린 것인지, 벽화 문구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벽화에 들어간 이미지는 ‘키스 해링’이라는 작가의 그림을 재 조합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키스 해링은 1970~80년대 미국을 대표 했던 팝 아티스트 중 한 명인데요, 예술이 소수의 특징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밝게 그려낸 예술가입니다. 주로 지하철역이나 거리의 담, 건물 벽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면서, 낙서와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예술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예술가이죠.

키스 해링의 작품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경쾌한 포즈의 이미지를 보며 여러분이 기분전환을 하고 활력을 얻기를 바랐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우리도 얼마든지 예술을 즐기며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벽화도 미술 전공자가 아닌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그려낸 작품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술을 어려운 것으로 느끼지 않고 예술과 좀 더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벽화에 들어간 문구는 보인고 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하고 찾아본 끝에 선택한 문장이예요. 우리 학생들은 다들 참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아마 열심히 공부하다 정자에 나와 쉬는 친구들 중에는 ‘너무 힘들데 그만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힘과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꾸준함’을 강조하는 문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네요. “당장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 꾸준히,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빛나는 그날이 반드시 찾아올 거야. ^^”

5. 벽화를 제작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학생들과 함께 벽화를 그리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 벽화제작은 미술반 동아리 BADA 학생들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술 방과 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힘을 보탤쥬. 행정실 선생님들께서도 벽화를 그릴 수 있도록 깔끔하게 밀 작업을 도

와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벽화 그리기 작업은 11월 초에 진행됐어요. 그런데 하필 딱 그 주부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고 추워지기 시작했쥬. 날씨는 추운데 돌아오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그 주에 반드시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마음이 정말 급했답니다. 추운 날씨에 매일 늦은 밤까지 남아 밖에서 그림을 그리 는 우리 미술반 아이들에게 가장 미안했어요. 그래도 이것까지만 다 그리고 가겠다면 끝까지 그려준 아이들이 대견했고, 함께 벽화를 그리 겠다면 자발적으로 늦게까지 남아 도움을 준 미술 방과 후 수업 친구들에게도 정말 고마웠어요.

추운데 고생한다고 따뜻한 물과 차를 갖다 주시며 챙겨주신 보건 선생님, 벽화 참 멋지다며 아이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 전해주신 여러 선생님들, 오고 가며 붓질 한 번씩 보낸 우리 보인고 학생들... 감사한 분들을 나열하다 보니 무슨 시상식 소감 같네요. (웃음) 그런데 정말로 벽화를 제작하던 기간은 즐겁고 감사했던 기억만으로 가득해요. 혼자자 아닌 모두가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험과 성취감은, 공동체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벽화 제작에 참여 했던 모든 학생들도 이러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꼈으리라 믿어요.

6. 학생들에게 있어 벽화를 그린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애교심과 자부심 아닐까요? 이 벽화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학생들의 손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를 ‘내 손으로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학교생활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작게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벽화 제작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벽화를 그린 뒤로는 학교 이곳저곳을 유심히 보게 되었어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도 ‘이렇게 바 귀보면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관심의 시작이고, 학교에 대한 애정이 샘솟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지요. 벽화가 그려진 이후로 정자에 더 자주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에도 참 뿌듯하답니다. ^^

7. 일주일 벽면 외에도 좀 더 아름답게 꾸며보고 싶은 학교 공간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 기회가 된다면 본관 게시판을 꾸며보고 싶어요. 게시판은 각 부서나 학생들이 정보를 게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인데, 그 용도로 잘 활용되지 못하는 게시판도 있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지 않는 느낌도 살짝 들었습니다. 대주관으로 내려가는 흰 벽면, 혹은 본관 뒤 우신관도 한번 꾸며보고 싶네요. 아, 이리다 아무도 미술 동아리에 들지 않으면 어찌쥬. (웃음)

8.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보인고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보인에 오기 전부터 학생들이 참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인고 미술교사로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답임으로서 아이들을 더 깊이 알아가다 보니, 그 말을 참 실감해요. ‘아, 우리 학생들 진짜 괜찮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인근 고등학교보다 더 이른 시간에 등교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야자를 하고, 집에 가서 겨우 눈만 붙이고 또다시 퐁퐁 부은 얼굴로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 눈을 빛내

며 공부하고, 또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 서로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대견하고 예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에게 한 마디라도 더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더 챙겨주고 싶어서 저도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선생님들도 너무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많으시고요! 좋은 학생들과 훌륭한 선생님들 덕분에 저도 교사로서 더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보인에서의 3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힘들고 고된 순간이 많겠지만, 여러분이 손만 내밀면 언제든지 잡아주실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열정을 가지고 꿈을 향해 노력하는 친구들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곳, 보인고등학교니까요. 누구보다 뜨겁게 보낸 보인에서의 시간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한 큰 자산이 될 겁니다.

공부하다 힘들면, 미술실로 오세요. 여러분이 작게나마 힐링할 수 있도록 그림 그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게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아, 공부가 제일 쉽구나”하고 공부가 다시 하고 싶어질 거예요. (웃음) 긴 인터뷰였네요. 여러분들을 만나 정말 행복하고,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보인에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https://youtu.be/owqd9RurfPg>

“유튜브에서 ‘보인고등학교 벽화’를 검색하시면, 벽화제작과정을 기록한 ‘벽화스냅 촬영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촬영 및 편집 : 보인고 2학년 김승수)





BOIN SURVEY

1908

1학년

앙케트



자기 이름이나 선생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본다면?

① 문준호

하.. 매력이 너무 넘쳐서
미 치겠습니다.
성 희쌤 사랑합니다

② 김선우

김 밥천국 물냉면
영 광스러운 그 맛
두 번 먹는다.

③ 성이름

P ike
I s
K illing
E verybody

④ 1반의 1대장

차 가워 보이지만
한 걸 같이 학생을 생각하시는 선생님을 찾는다면
결 국 차한결 선생님

⑤ 원준 Lee

이 용쌤 저 야자 째어요
용 감하죠?

⑥ 피파잣밥1

신 씨 집안을
성 공으로 이끌 가문의
희 망인 신준현 선생님

⑦ 김현중

한 시간의 수업을
만 시간의 가치로 만드는
준 비된 교사

⑧ 박정빈

하 미성 선생님
미 모가 아름다우십니다.
성 공해서 나중에 뵈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함께 축구하거나 게임을 즐기고 싶은 선생님과 그 이유는?

① 편집부

전재훈 선생님: 선생님의 친절함과 지조와 절개를 지키시는 모습이 게
임할 땐 어떤 모습이실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될까요?)

② 김태환

김태훈 선생님: 군대스리가를 경험해보고 싶다.

③ WJJ

양승범 선생님: 왠지 축구를 잘하실 것 같고, 게임도 이기든 지든 리액
션이 재밌을 것 같은 선생님이어서

④ Yoostar

이용 선생님: 크로스가 기가 막힐 것 같다.

⑤ 호로롤

이용 선생님: 우리한테 농구 쳐서

⑥ 원준 Lee

유영환 선생님: 게임하다 게임에 대해 엄청 설명할 것 같음.

⑦ 김선우

김민준 선생님: 게임에 꽤 관심이 있으시지만, 진정한 갖겜을 하지 않
으시는 것 같아 인도해드리고 싶음.

⑧ 이석현

정다희 선생님: 뭐든 같이 하면 좋다.



보인고에서의 1년 중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① 전용인

담임쌤 처음으로 우리 반 들어오신 날. 예쁜 사람이 들어와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담임쌤이었음.

② 인도왕자

보인고 축제 댄스팀

③ 무명

대주컵에서 PK가 약 14회까지 갔을 때

④ 이지민

대주컵 결승에서 슈퍼세이프 한 기억

⑤ 원준 Lee

여름방학에 학교 나갔다.

⑥ 빼꼼

첫 3월 모의고사. 중학교와 다르게 모든 애들이 열심히 풀어서 강렬.

⑦ 이용준

화장실에서 똥 싸까 말까 23분 51초 동안 고민한 때

⑧ 장형욱

서술형 쓰는데 중책을 때



내가 보인고 선생님이 된다면 학생으로 만나고 싶은 선생님과 그 이유는?

① 나 보인고 세운 사람

모든 선생님: 내가 더 어렵게 시험 문제 내려고

② 익명

나재현 선생님: 학창 시절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이다.

③ 정보봉

이영진 선생님: 항상 무언가 더 배우시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이다.

④ 박지원 아님

신성희 선생님: 선생님이 우리 반에게 그동안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이 된다면 돌려드리고 싶다.

⑤ 정재훈

이상구 선생님: 항상 바른 생활을 강조하시는 선생님의 학생 시절 모습이 궁금하다.

⑥ 정명진

차한결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인데 무서운 느낌이 약간 있다. 그래서 나도 차한결 쌤한테 반말 한 번 써보고 싶다.

⑦ 인도왕자

우리학교 여자쌤들: 우리학교 여자쌤들을 학생으로 만나면 최소한 거긴 남고는 아니니까.

⑧ 피파잣밥 2

안병후 선생님: 안병후 쌤이 학생이라면 교사 생활이 매우 순탄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거짓말은?

① 박지원 아님

2, 3교시 자율동아리요.

② 김태환

2, 3교시 와이파이실이요.

③ 바나나

했는데 집에 두고 왔어요.

④ 진사

집 가서 공부할게요.

⑤ 햄스첼시우승각

오늘 부모님 생신이에요.

⑥ 장형욱

보고서에 느낀 점 쓸 때

⑦ 크림슨

저 어제 8교시 하고 갔는데요?



선생님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① 김현중

성적과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했고, 수고했다.

② R. 굴리트

오늘 7교시 후 귀가야~

③ 진사

오늘부터 공학으로 바뀐다.

④ 손현준

문과가 취업 잘 된대.

⑤ 보봉이 주인

아자타임 하자.

⑥ 최동현

사랑해.

⑦ 정원영

성적 많이 올랐네? 아주 보기 좋아.

⑧ WJJ

공부할 때: 노력하면 할 수 있어. / 놀 때: 오늘 야자 없다.

2학년

앙케트



자기 이름이나 선생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본다면?

① 왕밤맛왕밤빵

오 오뚜기
진 라면은
영 어학원 끝나고 먹어야 된다.

② 스톤

류 (유)쾌하
신 우리
형 형 류신행쌤 사랑해요.

③ 김책

이 제는
지 친다
예 뿐 모습만 계속 보이니까

④ 배운민

김 밥천국에서
석 쇠구이 드시는
한 송이 쌤

⑤ 저녁밥

김 씨 가문에
선 녀가 하나 내려왔네. 그 이름은
영 어쌤 김선영 쌤.

⑥ 이정빈

이 런 미모는 처음이다
해 처럼 빛나는
수 지

⑦ 엑소 첸

김 유수 선생님은
유 머리스하게 수업하시다가
수 좁어하신다

⑧ 관중위기중

이 지에 쌤은
지 갑 여실 때
예 빠다.

⑨ 별명 생각 안 남

남 들보다 착하고 귀엽고
해 아릴 수 없을 만큼
정 말 아름다운 선녀



오늘 아침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 표정 이 유독 밝으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① 중국동 슈퍼펍권 1번

각 과목 선생님들께 “O반 수업 열심히 듣는다”고 칭찬 받았기 때문이다.

② 손병민

패변 하셨나보다.

③ 익명

오늘 남친과 데이트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④ 조돼지

오늘 아자감독이 아니시다.

⑤ 박윤서

담배 값이 내렸다.

⑥ Pokemon Master

백기곤 선생님. 집박 백선생 구독자 백만 달성!

⑦ 4반

아스날이 경기에서 이김.

⑧ 광진송파동

오늘이 금요일이다.



이과가 생각하는 문과는? 문과가 생각하는 이과는?

① 송승현 쌤 사랑해요

이과는 나중에 송승현 선생님 같이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② 융합과

나는 문이과 융합과인 '화생지'라서 문, 이과 모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③ BOIN 말디니

문과는 말을 잘 한다.

④ 훈남

문과는 외울 게 많은 친구들.

⑤ 화이트

이과: 살면서 어려운 과학 내용을 접할 수 있는 3~4번의 기회 중 한 번을
담당하는 친구들

⑥ 데중

이과: 대학 가도 거의 남대 사그.

⑦ Boin Angel

이과가 생각하는 문과: 감수성 풍부한 문학소년들.

⑧ 설동하

문과가 생각하는 이과는 신세계. 학업 성적이 월클인 애들이 많아서.

⑨ 2 Car

문과에게 이과는 우리나라를 이끌 훌륭한 인재



밤 12시, 모르는 번호로 ‘자니?’라는 문자가 왔다. 누가, 왜 보낸 것일까?

① 배준용

박이야~ 뜬금 없는 문잘 보내보지 난~

② 20908

전 여친이 술 마셔서. 아 없구나.;

③ 방승재

OO소개 어플! ※★지금 가입시 ★뒀면 100% 증정★※ 스팸 수신 거부 080-000-0000

④ 해리포터

중국집 사장님, 저녁 6시에 주문 받았는데 이제야 짜장면 만들어서

⑤ 웅광비남

국어 UCC조 친구가 영상 편집하라고.

⑥ 수학 가형 4등급

전교 1등. 자기는 공부하고 있을 때 남들은 잔다는 것을 알고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다.

⑦ 고연두

줄려서 쌤한테 보낼 걸 나한테 보냈다.

⑧ 윤종효

친구. 똥 하자고.

⑨ ㅂㅇㅇㅅㅂ

보인고 인재관 질문방 정수기 귀신. 인재관에서 자지 말고 집 가서 자라고.

⑩ DOG OF GOD

고마워 심심아.



가장 친한 지인에게 애인으로 소개해 주고 싶은 내 친구와 그 이유는?

① L.J.W. 181 cm

21104 김남훈, 번듯한 외모와 뛰어난 운동신경과 비상한 두뇌
를 갖춘 21세기 완벽남!

② 수학 가형 4등급

전동혁, 뱃살이 매력적이다.

③ 박윤서

김민성, 한 여자만 보며, 사랑을 알았을 때 눈이 돌아간다.

④ 손병민

우리 학교 학생 중에는 없다.

⑤ 익명

소개해주면 손절당할 것 같다.

⑥ 정시fighter

가장 친한 지인도 남자고 애인으로 소개시켜주고 싶은 내 친구
도 남자다

⑦ 무명

김은찬, 그녀를 잊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라고...

⑧ 김성우

김준섭, 돈 잘 벌 것 같아서

⑨ 승방재 바보

방승재, 보인중-보인고-공대-군대 갈 승재를 위해서



3학년에 올라가서 배우고 싶은 선생님과 그 이유는?

① 정시fighter

김응천 선생님, 왜냐하면 김응천 선생님의 훈계에만 정신을 차리
고 공부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② 병솔

오진영 선생님, 쌤의 신혼 스토리를 라이브로 듣고 싶기 때문에.

③ 고연두

류신행 선생님, 날 가져요 엉영!

④ 공란

나재현 선생님, 물리를 너무 잘 해서

⑤ 이과

차한결 선생님, 입시를 잘 아실 듯하다.

⑥ 무명

김선영 쌤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신다. 사랑해요.

⑦ 20411 박선규

정다희 선생님. 수업이 명강의다.

⑧ 고연우

양승범 선생님. That's my man.

⑨ 하장계장

한유림 선생님. 이과라서 일본어를 선택하지 못한 게 아쉬움. 유림
쌤 짱

⑩ 민준쌤 결혼기원

채성민 선생님. 마라톤 동아리의 추억

⑪ 철권도 마스터

강이욱 선생님, 국어의 본질을 더욱 배우고 싶다.

3학년

앙케트



자기 이름이나 선생님 성함으로 삼행시를 지어본다면?

- ① **개근상**
괵 광웅 쌤은 게으름이 없다.
괵 이 나며 늘 새롭다.
웅 기를 주고 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② **떡균**
김 용진 선생님의 수업을 듣다보면
웅 트림이 나온다
진 진자라 지리지리자
- ③ **박정빈**
이 번 년도에는 대학 못가서
찬 밥신세
- ④ **공정깻잎**
이 찬 쌤, 쌤 저희 없으면...
찬 밥신세인거 아시죠?^^
- ⑤ **이승헌**
김 중환 교장 선생님, 수능도 끝났는데 체험학습도 까다롭고, 학교를 계속 나오라고 하시면
중 (정)말
환 아요.
- ⑥ **김익현**
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웅 가를 싸야 한다.
천 천히 싸야 변비 안 걸린다.
- ⑦ **뿌송빠송뿌송**
이 런 대학이라도
찬 성하고 그냥 가자
- ⑧ **구도첼리**
김 영두 선생님의
영 흉한 얼굴은
두 리안을 닮았다.
- ⑨ **안알라쑈**
김 현화 쌤은
현 명하시고 자기 반 학생들 걱정을 잘 해주시지만
화 내시면 무섭다.
- ⑩ **ㅇㅈ**
삼 년이라는 긴 시간
학 교를 다니며 만난 지금 우리 반. 1
년 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육 반은
반 드시 다시 만나자!



대학에 가면 학교 선배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 ① **개근상**
밥 사줄게.
- ② **떡균**
너 어디 고등학교 나왔니?
- ③ **공정깻잎**
남자: 술ㄱ?
여자: 너랑 있으면 즐겁다.
- ④ **이승헌**
누나가 밥 사줄게
- ⑤ **뿌송빠송뿌송**
재수하지 그랬냐
- ⑥ **J**
애랑 토크하고 싶다.
- ⑦ **시차**
오늘 나 시간 비는데...
- ⑧ **보인 대표 정시러**
소개팅 시켜줄게.
- ⑨ **전봇대**
키 크고 비울 좋네.



대학 가서 연애를 가장 많이 할 것 같은 친구와 그 이유는?

- ① **개근상**
최정환: 여자와 비슷하다.
- ② **떡균**
성준모: 여자를 넘어 남자까지 홀리는 매력에 존재하는 친구이기 때문이다.
- ③ **박정빈**
유재원: 잘생겨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다
- ④ **뿌송빠송뿌송**
3-1 윤담 잘생김 ㄹㅇ
- ⑤ **구도첼리**
없다. 1년만에 사람이 바뀌지는 않는다.
- ⑥ **안알라쑈**
연애 다 못할 것 같이 생겼는데
- ⑦ **J**
양태욱. 추천 폐북 친구 중 여자가 뜨면 아는 친구에 무조건 애 있음.
- ⑧ **백곰빠곰**
나. 그릴 예정이다.
- ⑨ **6-01-48**
공재혁. 특유의 귀여움으로 누나들의 관심 독점 ♡
- ⑩ **송현준**
나. 친구들에게 여소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경험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일은?

- ① **떡균**
교복입고 여자랑 롯데월드
- ② **박정빈**
아자썰기
- ③ **박상현**
교내연애
- ④ **뿌송빠송뿌송**
자연계열 교육과정 들어볼걸.
- ⑤ **보인고 신지드**
전교 1등의 기분?
- ⑥ **이상준**
이사장님이랑 대화 해보지 못한 것
- ⑦ **압둘**
연애!!!
- ⑧ **Dr. Shim**
교실에서 하룻밤 취침
- ⑨ **무명**
수시 합격의 기쁨...
- ⑩ **추재훈**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점



졸업 후, 보인고에서 겪은 일 중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일은?

- ① **떡균**
6월 모고 일주일 전, 체육시간에 축구하다 정강이 골절
- ② **박정빈**
인재관 감독 선생님과의 일대일 면담 (인생상담)
- ③ **노영제**
어떤 놈이 화장실 소변기에 똥 싸고 튕겨.
- ④ **뿌송빠송뿌송**
마라톤 대회 참가
- ⑤ **안알라쑈**
1학년 때 대학교 답사 가서 어느 사이비 종교 동아리 형한테 속아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들으러 간 거
- ⑥ **김진원**
2학년 당시 1학년 애들과 체육시간에 축구하고 있었을 때, 스로인 하면서 멀리 던지겠다고 세게 던졌다가
애 배를 맞췄다. 아직도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
- ⑦ **송현준**
육사 예비 19번인데 추합 없다고 했을 때.
- ⑧ **시차**
1학년 때 화투 걸린 적이 있는데, 걸린 쌤이 3학년 때 담임쌤이 되셨네요. 사랑합니다. ♡
- ⑨ **ㅇㅈ**
2학년 대주컵 우승. 모두 다함께 기뻐했던 기억은 잊을 수 없다.
- ⑩ **따리**
좋아하는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 ⑪ **정진오 19**
파이크 쌤이랑 울릉도, 독도 갔던 것.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① **대기 1번인데 불합격**
추석 연휴 자습 때 친척집 간다고 하고 자습 빼서 친구
랑 노래방 갔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 ② **이현교**
3학년 생활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고, 나에게 스스로 수
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 ③ **현**
아자하기 전 가방 미리 빼두고 출책한 뒤에 화장실 가는
척 자연스럽게 나가면 아무도 모름
- ④ **구도첼리**
니들 내신 챙기지? 니들도 결국은 정시란다^^
- ⑤ **정진오 19**
아자 썰는 것도 행복의 일부였답니다!
- ⑥ **안경쩍이**
예비 고3 친구들아 '수미집'이다. 모의고사 뽕에 취하면
안 된다..!
- ⑦ **2g 원시인**
학교에는 수시로 숨겨진 통로가 생긴다.
- ⑧ **육군사관학교 81기**
나 돌아갈래.

선생님
앙케트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가장 샘솟는 순간은?

① 오진영T

정말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띤 모습을 보여줄 때, 어떤 행사이든 일정이든 적극적이고 바른 모습을 보여줄 때, 친구들을 배려해주는 마음을 보여줄 때,, 즉, 매일매일 언제나~.

② 준

학생들이 선생님이 힘든 순간을 포착하고 배려해줄 때

③ 우거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본 순간...

④ UT강조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프로방청객 수준으로 리액션 해줄 때

⑤ 동결도

집에 가서 학교에 없을 때

⑥ 그치

오수 시간에 잠전히 자고 있는 모습 볼 때 (수업시간X)

⑦ 오양욱T

다른 학교 선생님들과 각 학교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얼마나 좋은 학생들인지 새삼 느낄 때

⑧ 류신행T

퇴근 시간 (집에 갈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

⑨ 김민준T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할 때

⑩ 남혜정T

수업 시간에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수업 들을 때,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가 샘솟는 교실에서 수업할 때

⑪ 나재현T

말 잘 들을 때, 스스로 해야 할 일 찾아서 할 때, 시간 쪼개서 질문하러 올 때

⑫ 이영석T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밝게 웃으며 예의바르게 인사하는 학생들을 볼 때. 애정을 담아 저도 같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합니다.

⑬ 황희주T

밝은 표정으로 인사 나눌 때, 궁금한 점 질문할 때

⑭ Andrew Pike Teacher

Seeing them enjoying their break-time on the soccer field during 야자

오늘 아침 조회 시간(혹은 1교시 수업)

에 학생들 표정이 유독 밝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① 동결도

아침부터 응징할 거리를 교사가 잊어버린 게야.

② 준

오늘 체육이 있다.

③ 오진영T

웃프지만,^^;;시험기간 중이나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독 눈빛이 빛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침에 보이게 되네요.

④ 그치

오늘 야자 없다~

⑤ 오양욱T

단축 수업이 발표되었기 때문? 혹은 야간 자기주도학습 취소?

⑥ 류신행T

체육 수업이 있어서? 여자 아이들 콘서트 예약에 성공해서? 급식 메뉴가 좋아서? 좋아하는 선생님 수업이 있어서? 아무튼 나 때문에는 아니다.ㅠㅠ

⑦ 김민준T

어제 야자를 도망간 걸 걸리지 않아서

⑧ K

전날 소고기를 먹었기 때문

⑨ 나재현T

내일부터 황금휴일

⑩ 이영석T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꽃힌다...

⑪ Andrew Pike Teacher

It's Christmas Week, so they don't have 야자. :-) Or...

Yesterday was the school festival, and they met a lot of girls. Or...

It's "Jeopardy" quiz day in our class.

10대 때 경험하지 못해
(혹은 이루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 일은?

① 동결도

이성 친구와의 연애

② 준

전교 1등

③ 오진영T

공부를 즐기면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조금은 늦게 깨달은 것.

④ 우거스

연애.... 미팅 등등...

⑤ 오양욱T

최선을 다 하지 않은 것

⑥ 류신행T

1. 연애
2. 부모님과 싸우기, 가출 (중2병)
3. 세계문학 전집 읽기

⑦ 김민준T

열심히 노는 거

⑧ 남혜정T

많아서 일일이 다 얘기 못하겠네 ㄱ

⑨ 나재현T

친구들과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지 못했던 것.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던 것

⑩ 이영석T

취미로 악기 하나쯤 다룰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피아노학원 땡땡이치고 오락실 갔던 어린 날을 반성합니다.

⑪ 황희주T

아르바이트, 연애

⑫ Andrew Pike Teacher

I was in French classes in high school, but I didn't study as hard as I should have. I wish I could speak it fluently now.

1년 동안 함께 한 학생들에게
마지막 한 마디를 남긴다면?

① 동결도

한 해 동안 잘해 왔어. 더 잘해 주지 못 해 미안하다.

② 준

아직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

③ 오진영T

서로를 배려하고, 뭐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평생친구로 간직할 수 있는 행복한 보인고 학생들~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고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④ 우거스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인재로 남길 바란다... 인성, 근면, 성실해라. 최고다 그제...

⑤ UT강조

정말 좋은 학생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어서 영광

⑥ 그치

너희들이 최고!! 딱 1년만 더 고생하재!!

⑦ 오양욱T

3학년만 아니라면 남은 시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단다!

⑧ 류신행T

올 한 해도 함께 잘 놀았다. 고맙다. ^^

⑨ 김민준T

1년 동안 선생님이 쏘아대서 미안하고 고생했구 남은 1년 각자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길 바란다~

⑩ 남혜정T

난 인연을 믿는다. 너희와 2019년을 함께 한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해. 공부에 힘들어하는 너희를 볼 때마다 가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봐. 그럼 뭐라도 돼있을 테니까.

⑪ K

오늘 건지 않으면 내일은 달려야 한다.

⑫ 나재현T

1년 동안 부족한 수업 잘 따라와 줘서 고맙습니다. 남은 학교생활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후회 없는 1년이 되었길 바랍니다. *^^*

⑬ 이영석T

어제의 나를 원망 말고, 내일의 나를 믿지 말자. 항상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⑭ 황희주T

덕분에 황홀한 2019년이었어. :)

⑮ Andrew Pike Teacher

You are not an accident of nature. You are a unique creation of God, "planned by Him before the world began."

YODO, "You only die once." There are no second chances, so...be careful how you live. It's your legacy, your reputation...

Build the kind of personal reputation that, if someone starts a bad rumor about you, nobody will believe it.

1년을
마무리 하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권수환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1학년 1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다시 만나자
김민찬	2020년에는 올 한 해보다 나은 한 해를 보내자
김성현	밥 먹을 때 찹찹거리지 말자 ㅎㅎ
김태경	1년동안 즐거웠고 내년에도 잘 지내자
박도현	5252 내년에도 이 텐션 유지해^^
박정훈	지금까지 수고했고 앞으로도 파이팅하자
박지훈	수고했고 좀 만 더 힘내자!
서승원	수고했고 앞으로 잘 지내자
신용운	1년간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파이팅
윤승빈	알아서들 잘하자
윤영훈	재밌게 살자
이다훈	다들 파이팅
이대현	1년동안 수고했고 같은 반 해줘서 고마워, 다들 잘 지내자!
이송원	다들 파이팅, 열심히 살자, 수고했고 조금만 더 힘내자 (하트하트)
이정환	열심히 살자
이종원	내년에는 아자 폐지하면 좋겠다
이지훈	2년 남았다
이창민	만나서 반가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하트)
이하재	아 담임 디지게 힘들었다
정재훈	내년에는 2019년보다 나은 모습으로!
정현욱	1년동안 수고많았고 앞으로도 힘내보자!
조성윤	(원석아) 내년에도 꼭만나자!^^
조하늘	대주컵 1등!!!
최원석	이렇게 즐거운 1년을 보낸 올해가 제일 행복했어. 그제 너네들 덕인 것 같아. 고맙다는 말 밖에 못하겠네...
최윤서	2학년에는 더 열심히 하자. 첫 고교생활 수고했어!
최지민	1년동안 수고 많았쓰!
최효진	모두들 즐겁고 행복했어. 모두 파이팅!!!
홍겸의	누구처럼 도망가지 말고 2년만 버티자
이지민	공부 2학년 때는 열심히 하자. 1년동안 수고했다.
박장훈	전학 온 지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학기가 끝나서 머리동절해네.

1-01

강재승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아쉽다 1년동안 재밌었고 고마웠다.
곽시온	너무 수고했고 너희들은 정말 착하고 좋은 친구들이다.
권문석	1년 동안 수고했다. 24일에 피파나 하자.
권준민	1년 동안 수고했다!!! 내년에도 파이팅!!!
권진성	1년 동안 나의 안 좋은 성격 받아주고 매일 축구했던 추억은 한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리고 학기 초에 잘 적응 못할 때 먼저 다가와서 웃고 떠들며 줘서 고마웠어.
김성민	항상 멋졌고 앞으로도 멋질 우리니까 힘내자
김승도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두 잘 넘어간 것 같다. 앞으로 2년 동안 최선을 다해 재수 하는 일 없이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가길 바라며 남은 기간 동안 즐겁게 지내자.
김승현	애들이, 1년 동안 아지를 같이 뺄 수 있어서 재밌었고, 내년에도 즐겁게 롤 같이 하자.
김우진	1년 동안 모두 수고했어. 앞으로 2년이라는 더 힘든 시기가 있을 것이지만 모두 힘내고 열심히 공부해서 각자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 모두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김한서	정말 재밌었는데 벌써 1년이 끝나 너무 아쉽네. 남은 학교 생활도 잘 보내서 나중에 웃는 얼굴로 보자.
박기준	1년 동안 수고했고 2학년, 3학년 지나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하고 싶은 걸 해!
박현석	인생은 여러 가지 갈림길이니깐 돌아가도 괜찮아.
백인찬	애들이 1년 동안 즐거웠고 커서도 엘사와 안나같은 딸 낳아서 만나자.
송명규	첫 고등학교 1년을 함께 보내서 즐거웠어. 남은 2년 좀만 더 수고하자.
윤영규	애들이 국어랑 농구 어려워면 찾아와 알려줄게. 1년 동안 즐거웠어. 나중에 꼭 보자.
이두용	1년 동안 같이 지낼 수 있어서 좋았고 남은 2년 열심히 해서 만나자!
이영탁	1년 동안 즐거웠고 2학년 때도 잘 지내자.
이원근	1년이 빨리 지나갔는데, 앞으로 행복하고, 2년 빨리 끝내고 탈출하자!!
이재우	만나서 반가웠고 1년 동안 고마웠다. 2학년, 3학년, 그 이후로도 꼭 만나자.
이정현	1년 동안 재밌었고, 2학년 때도 열심히 해서 졸업하고도 만나자.
이진혁	애들이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1학년 생활이 끝나가네.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해서 1-2반 모두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서 꼭 만나자! 1-2반 화이팅!!
임윤재	애들이 3월 아무도 말 못 걸고 어색하던 분위기가 었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가버렸네. 내년에도 보인고에서 잘 해보고 복도 지나가다 마주치면 모두 반갑게 인사할 수 있도록 하자. 앞으로도 평생 보자!
정우식	1년 동안 정말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잘 지내자.
한승주	1년 동안 즐거웠어. 반은 다 달라지겠지만 갈라져도 서로 아는 척 하면서 지내자!
허도연	1년 동안 즐거웠고 내년에도 잘 보내자
홍주호	1년 동안 즐거웠고, 2, 3학년 되서도 친하게 지내자.
황익선	진짜 1년 빨리 지나간다. 1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학년 되서도 진짜 재밌게 놀자~
정재영	나는 1년은 아니지만 한 학기 동안 재미있었고 정말 유익했어~ 2학년 가서도 인사해라!!!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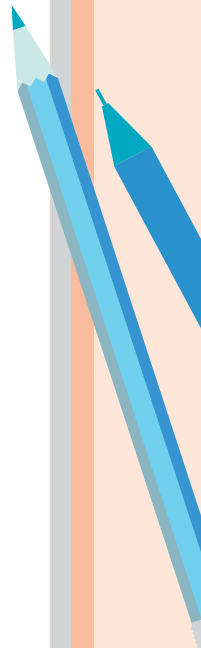


강경완	좋았다.
강우진	1학년 모두 수고했고 2학년때는 더 잘하자!
고민수	안녕
고준원	1년 수고했어.
김규현	안녕하세요.
김도현	내년에 더 잘하자.
김민수	고마웠다.
김승진	이곳은 또 다른 내 첫경험이었다.
김현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문건호	다들 1년 동안 수고 많았어.
문형진	수고했다.
박경준	나이스
박상호	바이
박재우	내년에 다시 만나자 현진, 재환
성진우	Thank You
송상민	즐거웠다.
엄정혁	바이
오승원	음.....
이석호	잠이나 자자
이승혁	안녕
임준규	끝
조현민	행복했다
조형준	잘 가
주정훈	수고
진세현	안녕
차제현	안녕
천재환	안녕
최재혁	출려
백송원	안녕
홍송표	방학이다~

1-03

권순우	1년 동안 고생했고 2년만 더 고생하자.
김대현	2년 후의 미래를 향해서
김대훈	고생했다. 2학년 되서도 잘할거야!!
김도윤	1년 동안 힘들었다
김민찬	We will be okay
김승준	1학년 너무 즐거워버렸지 모암~!
김지찬	너무 빨리 지나갔다!!! 2학년 때도 재미있게 가자!!!
노승준	2학년도 파이팅
박재영	1년간 동고동락한 친구들과의 이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생각하니 벌써 10번째로 겪는 정기적인 이별이지만, 새삼스럽게도 슬프다. 남은 시간동안 친구의 소중함을 상기하며 남은 보인고 1학년을 보내야겠다.
손재균	행복하자
송찬우	1년 동안 고생했고, 2학년 땀 더 열심히!
신동운	010-4716-5229 다들 연락해 ㅎㅎ
신효상	2학년 되기 신타 ㅠ
안성민	내년 1년도 화이팅!
안태환	버버 화이팅
윤희로	1년 수고했고 1-4 평생가자
이건희	너무 즐거웠으
이원준	보인 화이팅~!~!
이재원	재수있는 나날을 보내다가 2년 뒤에 재수없이 대학가자 ♡
이종민	항상 사랑합니다. 보인고등학교.
이진형	남은 700일 ㅎㅎㅎ!
장예훈	남은 2년도 즐겁게 보내자~
정명진	학학학살이있길학학학학
조규현	고생했어! 남은 2년도 파이팅하자.
조윤형	첫 1년 시작을 잘하자.
최종윤	역시 송파의 명문 보인고등학교
허주영	보인다 보여. 인생이 보여
황하연	화이팅
손동현	심심하면 불러라 친구들

1-04



강민석	나이스
권구현	내년엔 여친 사귀자
권민재	3년 뒤에 웃으면서 만날 수 있길!
권찬혁	내년에는 진짜 뽕공
김동현	문과가 대박인 세상
김동희	나랑 애니 볼래?
김현우	고생했다 내년에도 힘내자
박진우	내년도 핫팅!
박태성	조장총 화이팅
송준서	2020년에는 올해보다 더 미친 듯이 공부하자!
신민규	ㅅㄱ
신유상	그 녀 석
신재영	내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자
오근호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자
유경민	2년 동안만 더 노력해야겠다
윤이수	앞으로 남은 2년동안에는 최소한의 공부라도 하면서 살자
윤종민	내년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규탁	3년뒤엔 놀거야
이상완	화이팅
이유진	계획을 잘 실천하자
이재원	이잉 2번 여친 못사귀
장유빈	연말 잘 보내고 2020년엔 좀 더 성실하게!
장재혁	애들이 1년동안 수고했고 나중에 웃으면서 보자
정우진	하면 된다
정유준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자
조기성	내가 뭘 하든지 내일은 오히려 조금만 더 열심히 살자
주환희	2020년에는 더 열심히 살자
한지운	행복한 2020년
홍정표	하고 싶은 것을 하자

1-05

김민석	2020 대주컵 최우수 학생 김민석
김시우	이시우 돌겜 ㄴㄴ
김정태	딱히 없음
김지성	아자 싫어요
김진환	맨시티는 3:1 바르샤는 4:0 피파 개-못함
김태형	수학 실화냐 ㅋㅋ;;
김현석	이종현 사회악
김현우	d
박세환	♡
박재완	진재형 키 183/ 유민재 키 164
백원준	설주형 아자뽕
설주형	아자는 사랑입니다♡
유민재	진재형 키 182, 키높이 깔창 7 센치
윤찬빈	연애는 엘사, 결혼은 신예은
이도윤	내년에 유민재랑 같은 반
이성재	저는 멀대, 개발입니다. 보인고 최고 센터백 이.성.재.
이시우	이원준 입냄새 ㄹㅈㄷ
이원준	진재형 키 185
이종현	김현석 중국 돌아가서도 연락해
이주석	진재형 키 184
이진홍	?이거 뭐라 쓰는거야
임현준	같은 반 기원-주형♡
장현우	내년엔 잘하자
정현석	하...아자요. 우리를 살려주시오.
조범진	종현아 착하게 살자
조현찬	수고했다
천주현	1년 마무리
최예훈	수고했어
추창호	안녕.
허진욱	내년에 같은 반 ㄱ
진재형	리중 딱 첼시트레블 진재형키 사실 182.4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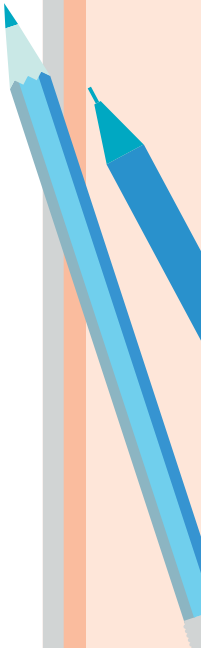


강노건	인후야 내년에도 같은반, 도현이는 룸메~
고영민	선생님 사랑합니다. 1년 너무 즐거웠어요. 애들이 아자하느라 고생했다. 앞으로 더 고생해라^^
권해준	선생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김도현	애들이 1년동안 즐거웠고 남은 2년 후회없이 보내자! 김강김 파이팅~
김도형	진짜 하이쌤 너무 감사했고 1학년 7반 내년에 가셔도 잊지 말자!
김인후	현중아 브롤 그만해. 애들이 1년동안 재밌었다.
김준형	애들이 파이팅 특히 고영민 김도현 김인후
김지성	애들이 1년동안 너무 재밌었다.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김현중	선생님 1년동안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반 모두 수고했어.
박정빈	선생님 1년동안 감사했습니다.
손현준	문과만만세
신명관	일어나세요, 프리먼씨.
윤태유	선생님, 1년동안 감사했습니다. 애들이 수고했어!
이석현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애들이 사랑해!
이승호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애들이 1년동안 고생많았어!
이용준	내가 놀린애들 미안해! 누군지 알거야 ㅎㅎ 선생님 1년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밑에 있어야돼!
이준서	애들이 수고했어~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이준석	애들이 수고 했고 내년에 다시는 보지 말자ㅋㅋㅋ(장난)
이준우	아직 40%밖에 오지 않은 내신이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다들 수고했고 앞으로도 이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
임종빈	애들이 1년 동안 정말 재미있었다 ㅋㅋㅋ 내년에도 잊지 말자! 아직 내년까지 조금 남았으니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자!
정재욱	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2학년 가셔도 꼭 제 수업 들어와주세요!
조영채	1년 동안 수고했다- 다들 꼭 꿈을 이루길 바래! 선생님 1년동안 감사했습니다. 좋은 기억 남겨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조인성	1년 동안 수고했고 앞으로 남은 2년도 파이팅! 그리고 선생님분들 모두 1년동안 감사했습니다! 유영환 쌤은 언어와 매체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준희	1년 동안 수고했어- 앞으로도 학교생활 열심히 해라! MR.유티 go to 연매 please~
최원우	애들이 1년동안 첫학년 같이하면서 진짜 수고 많았고, 우리 정빈이 거뒀주느라 고생했어!(넙담-ㅎ) 내년에 같은 반 될 정빈이, 지성이는 내년에도 잘해보자구~ㅎ 아 그리고 선생님도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중략)
최지민	1년동안 수고 많았썬!
최효진	모두들 즐겁고 행복했어. 모두 파이팅!!!
홍겸의	누구처럼 도망가지 말고 2년만 버티자
이지민	공부 2학년 때는 열심히 하자. 1년동안 수고했다.
박정훈	전학 온 지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학기가 끝나서 어리둥절하네.

1-07

권재영	벌써 보고 싶다. 꼭 연락하고 나중에 모두 여자친구 생겨서 만나자... 사랑했다...♡
김대현	2학년 때 복도에서 만나면 꼭 아는 척해줘.
남우진	잘 지냈♡ 난 너희를 정말 사랑해♡♡
오정우	애들이 1년 동안 재밌었어 나중에 여친 생기면 만나자-
차인주	내년에 1등부터 줄 세우자! 1-8반-
김현민	고등학교 첫 1년 즐거웠어.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 좀 해줘... 180cm 찍어서 만나자!
노승완	2019년 다들 수고 많았어. 2020년에도 파이팅!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너는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날 테니까.
박수연	기분이 좋아. 올 한해가 끝나서.
서병찬	아둔 토리다스 아스타 라미스타 베비니 "멈추었다고 생각했던 시간을 움직입니다. 하나부터, 아니, 제로부터" -렘
송우진	1년동안 재밌었고 내년에 보면 인사하자-, 송우진 귀여움
신성현	1년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고 2년만 있다가 좋은 대학 붙어서 만나자.
안수홍	나중에 만나면 무시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지내길 바랄게.
양우진	박규성, 귀여워, 송우진, 감추대지 마.
인소망	굿바이 마이 러브 ♡♡♡♡♡♡♡♡♡
김재현	애들이 깨끗이 하고 다니자
이민기	안녕 애들이. 1년 동안 수고했어.
이승우	현민아 밥먹고 키크자
이정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먼저 먹는다.' 근데 잘 땀 좀 자자 모두 키 커서 만나자♡
이주영	다들 빨리 여친 만들어
이해양	1년동안 수고했고 내년에도 보면 인사하자 기분이 좋아
정영석	애들이, 잘 돼서 만나자. 물론 난 잘 될 거야 ㅎㅎ
정유승	기분이 좋아
정태민	2학년 돼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인사해줘.
정현진	기분이 좋아 1학년이 끝나서 ♡
김령	벌써 1학년이 끝나서 아쉽네... 나중에 보면 꼭 인사하자!
한국현	2학년 때에도 열심히 하자. 나중에 보면 꼭 인사해줘
김태형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자. 괴물은 되지 말자 친구들
조채민	나중에 아는 척 해줘
현승훈	1학년 8반! 2학년, 3학년 돼서도 연락 계속하고 나중에 꼭 인사울에서 만나자!!! 고마웠어
박규성	애들이, 2학년 돼서도 연락하자. 한 학기 동안 고마웠어.

1-08



강준석	2학년때도 열심히 살자!
김두경	109 Forever!
김민서	109 화이팅~ 평생가자!~
김민성	I went to Miguk...., but I will remember you my friends....
김세이	말 안 해도 알지?
김정원	1년 동안 고마웠다!
김진우	109 화이팅!~
김태웅	109 너무 싫다
김현승	109 화이팅!
김현중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박세준	109 화이팅!
신지환	109 화이팅!
오승우	109 화이팅!
윤진우	109 화이팅!
이영진	최강 9번!
이정빈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이주환	우리반 짱!
이지환	109 화이팅!
이현근	2020년도 잘 보내요~
장형욱	내년도 같은 반 되자!
전형빈	안녕히가세요 여러분~!
정승호	109 화이팅!
정유현	즐기세요!
조현근	109 화이팅!
차재형	중학교 3학년 여러분 보이고 면접 준비 중이면 당장 그만두고 도망가세요!
최동현	"재은"이를 그리워하며.....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최명욱	109 화이팅
최종민	여러분 청포도 스파클링 맛있어요!
최진석	인생은 한 방이다!
하경준	그동안 즐거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
허은	인생은 직진이다.

강준홍	010-5271-2643 심심하면 전화하세요 ^^
권대호	10반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김강민	김강민 잘생김. 엄환웅 와꾸킹. 이건영 못생김. 박도현 잘생겼다. 남정훈이 제일 잘생김.
김도현	좌절하지 않기. 010-3717-4711 전화하세요
김도훈	1년간 이곳에서 재밌었다.
김범진	한 해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우	2학년 때에도 자주 만나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현	재밌었다.
남서진	10반이라서 너무 재밌었고 행복한 1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정훈	박도현 잘생김, 엄환웅은 짱 잘생김.
박도현	남정훈 잘생김♥, 환웅이가 제일 잘생김, 10반 최고 미남은 김준영
배현준	파이팅!
백승원	1년간 같은 반이어서 즐거웠고, 2학년때에도 친하게 지내자
설유식	재밌는 친구들이었다. 환웅 ♥
송재진	학년 보충이 더 많았으면 좋았었을텐데....
엄환웅	건영이 바보
유병우	2년
이건영	내가 짱이에요. 대들지 마시오
이동규	즐거웠다.
이영건	벌써 1년 지났다. 2년만 더 아자하면 탈보인이다!
이정훈	너무 행복했다!
정현우	꾸준히, 부지런히, 포기하지 말고.
진영승	1학년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2학년 때도 친하게 지내자!
최건	1년동안 고마웠어!
최예준	즐기면서 하자.
최종윤	재밌었고 조금만 더 고생하자. 태연♥
최준고	힘들 2학년 단단히 각오하자! 우리답게 즐겁게 해.
최준영	1년간 정말 좋은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어서 너무 다행이었고 고마웠다.
황인찬	2학년 잘 지내자! 그리고 1학년 재미있게 지내서 좋았어!
김준영	화이팅! 이건영은 3



1-09

1-10

강민서	세운아 1년 마무리 잘했고. 마지막 2주 알차게 보내자!! 2학년때도 문과가서 파이팅하고, 1등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1년동안 재밌는 순간들을 누구랑 보냈냐고 물어보면 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 1년동안 고마웠어.
김민규	친구들이 너네 덕분에 안 걸리고 아자 많이 안 했다 ㅎㅎ. 1년 동안 재밌었고 덕분에 재밌게 학교 다녔던 것 같아. 선생님도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사랑합니다 ^^
김범주	1년 동안 같이해서 재미있었어. 2학년때도 잘 지내고 연락해. 고마웠어. 선생님 1년동안 감사했습니다~
김태환	이렇게 좋은 스쿼드로 체육시간에 축구를 많이 못 한게 아쉽고, 학기초엔 1년 내내 아싸로 지낼 것 같았는데 먼저 말 걸어준 찬민이 유종이 세운이 등등 고마워 ㅋㅋ.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년 내내 지금의 반으로 가고 싶은데,... 현준이랑 피파도 같이하고, 세운이랑은 일반고 합합부 이길정도로 잘 맞고, 민규, 선우랑 축구 할 때 재밌었고 너무 많은 추억 만들었는데,(여기에 못 쓴 친구들 미안 ㅠ) 2학년때도 꼭 연락하자, 2년후에도 ^^ 3대 3 피파 12시간 가자고~ (선생님 사랑합니다~)
문준호	다들 그렇게 웃고 다녀라.
박준규	담임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이 제 1학년 담임 쌤이라 너무 좋았어요. 나중에 불러 주시면 꼭 축의금 많이 내려 갈게요. 그리고 애들이, 1년 동안 정말 수고했고 내년에도 다들 잘 지내-
박준영	담임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을 선생님이랑 함께 보내서 너무 좋고 가능하면 2학년 때도 선생님 반을 하고 싶습니다. 11반 애들 전부 잘 대해줘서 고맙고 계속 친하게 지내자.
박지원	1학년 동안 우리반과 함께여서 고맙고 다행이었어. 내년이 되어도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연락하면서 잘 지내자.
반수혁	학기초에 어색했던 사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 친해져서 좋았어. 전학 온 친구들도 거의 다 친해져서 기분 좋게 2학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1년 동안 정말 가족같이 지냈고 내년에도 다 같이 흥하자. 담임선생님, 고등학교 첫 스타트를 선생님과 함께 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현준	1년 동안 다들 수고했고, 앞으로 대학 갈 때까지 더 열심히 하자.
송찬민	1년 내내 너무 재밌었다!! 다들 너무 재밌었고 착해서 좋았다- 남은 고등학교 2년 친하게 지내고 같이 서울대 교문에서 만나자!
신민규	처음엔 별로 안 친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다들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신기하다. 내년에 다른 반으로 가겠지만 1년 동안 너무 잘 맞고 기억에 남을 반인 것 같아. 내년에 보면 인사하고, 성인되어서 또 만나자.
심우섭	애들이 1년 동안 정말 수고했고 재밌었어! 벌써 1학년이 끝나가는게 난 아직 실감이 안 나. 이런 반은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 벌써 지나가니까 아쉽다. 너희들 덕에 보인고에서 1년 무사히 마친 것 같아. 고마웠어!!
엄원진	고등학교에서는 칼을 꺼내면 무라도 썰고 가야 되는데, 이 반에서는 무가 아니라 철근도 썰 수 있을 만큼 매우 좋았다! 다음에 시간되면 한 번 더 만나보자! 성희 쌤도 남은 인생동안 꽃길만 걸으세요! :)
이다니엘	1년동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보면 후회되는 일도 많고 잘한 것도 많았던 것 같다. 친구들에게 1년 동안 너무 고마웠고 이제 2년 남았는데 다들 꿈을 이뤄서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 쌤 감사합니다!
이대형	안녕 1학년 11반 친구들이, 우리가 보인고에 입학해서 같은 반이 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 처음 보인고에 입학하고 11반에 들어왔을 때 애들이 다 공부만 하게 생겨서 1년동안 어떻게 지내야할 지 고민했는데, 알고보니 너무 활기찬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게됐어. 비록 우리가 2학년이 되어 반이 달라지겠지만 만날 때마다 인사하자. 1년 동안 나와 친구해줘서 고맙다♥ 커서 다들 벤틀리 타고 만나자!!! 그리고 신성희 선생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동원	지난 1년 동안 모두 같은 뜻을 가지고 보인고 이 자리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1년간 함께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 너무 좋았어.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지내자!! 윤종아 사랑해!!♥
이선우	치열하게 독하게 꿈을 이루자
이용우	1년 동안 즐거웠고 모두 꿈을 이룬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
이윤서	고1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좋다. 고등학교 와서 여러 친구들도 사귀고 여러가지로 굉장하신 담임 선생님도 만나서 지금 너무 행복하다. 커서 꼭 만나자. 연락하면서 지내고, 꿈을 이루자고~~ 담임 쌤 결혼하실 때 꼭 불러주세요. 무조건 갈게요. 축가는 신민규가 할 거예요!!
이윤종	민서, 김민규, 범주, 태환, 준호, 준규, 준영, 지원, 수혁, 손현준, 찬민, 신민규, 우섭, 원진, 다니엘, 대형, 동원, 선우, 용우, 윤서, 태인, 현승, 수환, 웅인, 종민, 세운, 초현준, 그리고 올 반 막내 하윤, 원영이까지 다들 1년 동안 친하게, 재밌게, 행복하게 지내줘서 고맙고 잊지 못 할 고1이 될 것 같다. 특히 세운이한테 선생님께도 정말 감사해요♥
이태인	웃는 얼굴로 학교를 나서는 그 날까지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
장수환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도 벤틀리(1등급) 탈 수 있다. 1년 동안 수고했고 좋은 추억만 있었던 것 같아. 선생님께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셔서 즐거웠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지나가다 만나면 인사라도 하지^^
전응인	복도에서 마주칠 때 무시하지 말고 인사하자!! 010-4977-3116 전화해!~
전종민	보인고에 오면서 아자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너네들 덕분에 아자시간을 재밌고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1년 동안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면 다 나에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 나랑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던 친구들 모두 고맙고, 모두 열심히해서 원하는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 ㅎㅎ. 아직 1학년 끝난건데 앞으로 힘들어도 같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신성희 쌤과도 많은 추억이 있는데 항상 감사했습니다!! 쌤이 저의 담임이셔서 행복했어요.
정세윤	1년간 추억이 정말 많다 친구들이. 아자하면서 엄청 빠르게 다들 친해지고 1년간 매우 행복했다. 보인고 힘들지만 일반고 갔으면 너네 같은 친구들은 못 만났을 것 같아. 모든 친구들 다들 고맙고, 부호장 활동 처음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 미안해!! 봐주라....민서 너랑은 집도 가까워서 더 친해졌고 노는 건 항상 같이 했던 것 같아. 자은이랑 오래가고 2학년 가서 문과라고 무시하지 말기! 윤종아, 나는 예의상이 아니라 정말로 고마워♥♥ 마지막으로 영원한 담임쌤! 신성희 쌤도 반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준	처음엔 1년 동안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좋은 친구들 만나서 1학년 잘 보냈 것 같아. 축구도 같이 하고 게임도 같이 하면서 너무 즐거웠어 ㅋㅋㅋ. 특히 우리 반 친구들 모두 1년 동안 놀려다니고 시험기간에는 열심히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 ㅋㅋ. 이제는 다 헤어지겠지만 2학년, 3학년도 있으니까, 만나면 인사하고 자주 만나서 놀자. 신성희 선생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하윤	다들 밝게 웃어줘서 고마웠어! 고1이 정말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2학년 때에도 이런 반 친구들을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야. 선생님, 부족했던 저를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학년 때도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이 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 애들이,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송원영	2학기에 상대적으로 늦게 와서 우리반에 합류했는데 친구들이 친근하게 다가와주고 잘 대해줘서 고마워. 친구들을 보고 많은 점을 배우고 깨달았고, 올바르고 우리반을 항상 밝게 이끌어주시고 언제나 예쁘게 웃고 다니시는 신성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앞길을 밝게 나아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시는 훌륭한 선생님과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영원히 희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박정훈	전학 온 지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학기가 끝나서 어리둥절하네.

1년을
마무리 하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강성현	1년동안 모두 고생했고 수고했어. 나중에 다른 반이 되더라도 친하게 지내자
강태호	모두 성공해서 만나자
구준모	고마웠다. 너네 덕분에 내가 많이 변한 거 같아.
권용재	빠고, 빠고
김도현	난 문정에서 잘 지내고 있어. 내 걱정은 하지마
김영민	나중에 성공해서 보자
김완준	재수하지 말자
김준환	1년동안 즐거웠다.
박민준	철 없었는데 많이 변해게 해줘서 공부만큼 값진 것을 얻은 것 같다. 다들 좋은 대학 가길 바라.
박상배	시간 낭비를 하지 말자 2학년이니까.
반호웅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자.
서동희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서현중	내년에는 후회하지 말자.
송성민	올해가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쪽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신승우	재밌는 1년이였다.
안도현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너희들 덕분에 내 성격도 많이 개방적으로 변한 것 같아.
안현성	너무 좋은 12반 밥 먹자 (삼겹살? 애슐리퀀즈?)
온태현	1년 동안 수고했다. 앞으로 잘 살아라.
이건하	재수는 말자. 1년 고마웠다.
이지섭	1년 동안 행복했어.
임재연	남은 15일 정도의 시간도 잘 지내자.
장윤준	공부해라. 23일까지 과학 공부하면 책 한 권을 땀다.
정원영	그동안 우정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2학년 올라가도 자주 연락하자.
조경준	22학번으로 만나자.
조영우	1년 동안 고마웠어.
조진관	남은 학기 잘하자
최영후	1년 동안 개꿀잼
최준혁	1년 동안 즐거웠고 다음에 다 같이 창원가자, 그리고 이제 물화지 모여라.
최진우	1년동안 행복했다. 대학교에서 보자^^
한성현	1년동안 좋았다. 다같이 대학 잘가자.
권민준	중간에 전학 와서 많은 활동을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너네 다 잘 대해줘서 늘 고마웠어. 앞으로 잘 지내

1-12

강세훈	재미있었다. 1년만 공부하고 성공하자.
강완	홀리 돌리.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자.
길성윤	크흠 무한긍정. 수고했어.
김민재	1년 동안 재밌었어. 3학년 열심히 하고 현역으로 대학 가자.
김우상	1년만 더 버티자!
김진완	2년 동안 이곳에 왔던 내가 참 대단한 것 같고, 3학년 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
김철환	다들 원하는 대학 가고, 행복하고, 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
맹진호	역시는 역시 역시군. 인생은 vㄱ리
문원균	2학년 1반이 내가 롤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특히 애 !
민서현	수능 끝나고 롤 할 사람. 010 9443 0951(정신병자임)
박기원	조금만 더 버티면 졸업이다! 파이팅!
박상언	18년 공부인생 가장 공부를 안 한 1년이지 않나 싶군... 내일 보자.
박승현	어이 니시노야를 수고했어. 즐라탄은 영원하다.
설동하	1년 동안 수고했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힘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생활하자.
성재우	취업장! 너무 좋았다고 건강하게 졸업하자.
신재민	2년 동안 잘해왔고 1년만 더 힘내자!!!
양인규	1년 뒤 원하는데 가서 재미있게 놀 수 있기를...
위대훈	1년 후 오늘. 조금의 후회도 남지 않기를.
윤기찬	1년만 조집시다 여러분들. 이이잉 2학년 1반은 고양이 레전드
윤석준	친구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뭇 같아도 견뎌.
이규정	1년 동안 매우 즐거웠다. @this_code_30 팔로우 부탁드려요.
이남준	가지가지 파이팅!
이민학	좋은 반, 좋은 친구, 담임. Haky_0319 팔로우
이석주	여기 왜 왔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2년이 지나고 어느덧 고 3이 되었다.
이윤성	1년만 더 참는다. 진짜 힘들어서 못해먹겠네.
이준수	1년 동안 정말 재밌었고 앞으로 1년만 더 참자.
전연수	1년 동안 즐거웠다. 1년 롤 열심히 해야겠다. 네이스
정승민	생각보다 1년이 금방 갔다. 3학년 때는 보람찬 1년이 되길
조희준	인생은 vㄱ리
최지명	즐겁게 살자.
황우빈	재수학원 마주치지만 말자.
정승민	이런 느낌 없는 놈들... 마지막엔 다들 느낌 있게 가자 / 열심히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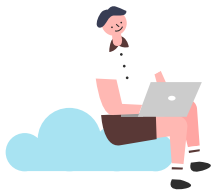
강민성	수능 파이팅
권동수	이 멤버 리멤버 포에버
권현욱	감사합니다. 파이팅하세요
금준영	1년 동안 즐거웠고 고마워.
김민겸	항상 즐겁고 고마웠다. 영원하자!
김민기	즐거운 1년이였다. 2-2 파이팅!
김범준	Good (내년엔 영어 100점)
김성원	애들이 살살해 나 대학교고 싶어
김성진	300+α가 아닌 300일 후에 보자
김세훈	1년 동안 고마웠어.
김승희	2-2 행복하자.
김효상	1년 동안 고마웠어.
남천우	백만 유튜버가 돼서 돌아올게.
노승현	정말 즐거운 1년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 ^^
박성근	안녕. 친구들.
박준호	흑흑
박현찬	1년 동안 고마웠고 재밌었다.
서승원	즐겁고도 행복했던 1년.
손민기	재밌었다. 고마웠어
손호준	올해 1년 동안 행복했고 재밌었다.
신주형	내가 잘한 듯
양준영	고생했고 행복했다.
엄예훈	올해 1년 동안 행복했고 재밌었다.
원형식	1년만 더. 다같이 힘내자.
이영수	'헐' 재수없네.
이우영	넌 완벽해
이준학	보인고의 자랑, 2학년 2반
이준형	나쁘지 않은 1년이네.
이준호	2-2반 잊지 않는다.
이창희	올해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 좋았다. 기쁘다.
이호준	2-2반 아이좋아
임린	싸랑한다.
정지민	수고했고 고마웠어.
진병준	친구는 소중한 보물이다. 친구들아.
최수로	ㅎㅇ
김정원	절대 후회하지 마라. 좋았다면 추억이고, 나빴다면 경험이다.

2-03

강창하	내가 1번인데는 다 이유가 있지...
김다현	파이팅
김서형	덕쳐 창하야.
김연중	파이팅
김우성	기환아 내 사위해라
김준우	우리는 절대지지 않는다. 이기거나 배운다.
김준호	좋은 일만 생기길! 수고 많았다.^^
박정혁	파이팅
박형규	대학교고 헌팅포차에서 보자.
배윤민	개츠비처럼 살다가 김연아로 남겠지.
변진형	아아투레 파이팅
서주원	SKY 미만 잡
신정환	가만히 있으면 절반은 간다
용명환	파이팅
윤여준	Be a champion
이건우	곧 내 생일
이관형	정시는 승리한다.
이성혁	도비 이즈 프리!!!
이성호	수고했다.
이윤수	12월 27일 우리 공연 보러와
이현준	21학번 파이팅!
장성원	문과하길 잘했다.
전예준	수고했다.
전홍규	[^_^]
정기환	배재고 파이팅
진현승	이번 학년 모두 수고했어!
채지훈	수고했다.
풍건우	난 별레가 아니야. 아니라고.
한준영	진짜 별로였어 ㅎㅎ
박윤식	내 안에 너 있다.

2-04

김규연	마지막 고딩생활 재밌게 하고 재수하지 말고 대학갔으면
김동연	1년 동안 재미있었고 다들 수능 잘 봐라
김민성	아직 수시 포기하지 말자
김선우	수고하자, 다
김우림	다들 고3 알차게 보내고 파이팅하자!
김종훈	파이팅!
김준영	다들 1년만 열심히 해서 대학에서 만나자!
김지우	♡
노동민	돈 많이 벌기를... 재수길만 피하자. 서연아 사랑한다!
류호승	아 1년 남았다
박선규	1년 동안 너무 즐거웠고 남은 3학년 열심히 공부하자 나는 롤만 해야지~
박세열	헤, 고3
박재형	파이팅!
서윤성	재수하지 말고 힘내자
송도윤	파이팅
양우진	모두 남은 1년 열심히 보내서 대학 잘 갔으면 좋겠다. 파이팅!
이상준	아직 1년 남았다. 남은 1년 잘해라
이선우	일단 한동연은 담글거다 — 다들 고2 생활 즐겁게 해줘서 고맙고 언제든지 전화하고 풋살하자. 고3 축하 한다ㄸ.
이승주	1년만 더 수고하자!
이우진	1년만 더 참자!
이재성	1년 동안 정말 고마웠고 1년만 힘내라!
이재필	1년 동안 수고했다야재필 내년엔 강동역자
이재현	수능 잘보고 대학 잘 가 파이팅!
이현호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2-4반과 함께해서 행복했고 3학년 올라가도 열심히 하자
장희상	1년 진짜 빠르네
전윤식	파이팅!
정우혁	고3이다! 파이팅!
조대현	파이팅!
한동연	파이팅!
허준현	고3 개꿀



2-05

권관우	너희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니라. (무교임)
김규민	애들이 잘 살아라
김규완	1년만 더 고생하자
김승수	정시 대박 씹가능
김한결	그래도 내신 열심히 하렴.
김한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김현	애들이 사랑해
김현서	1000년이 지나도 잊지 말자
노진산	화학은 정훈구!
류건우	애들이, 아주 잘 살아라. 녀석들!
모준표	애들이 고마웠고 잘살자.
박상우	살아서 만나자
박성준	1년 동안 즐거웠다.
박영환	나중에 또 보자
박재범	애들이 즐거웠다.
박채우	애들이 고마웠다.
백태승	다들 잘하자!
변영민	1년 동안 즐거웠다 5번!
양윤서	재밌었다. 엉덩이 그만 때려
양진석	여친 한 명씩 데리고 와라 ♡ 사랑해 ♡
유건영	나 자고 있으면 좀 깨워줘
윤정호	1년 동안 고마웠고 싸랑행-♡
윤진우	한 해 동안 즐거웠고 남은 1년 열심히!
윤호중	1년 동안 행복했고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꼭 다시보자
이민찬	하는 말이 다 거기서 거기누 ㄸ.
이원호	건영아 넌 안자고 있어 항상.
이지원	그렇지, 진영이는 명상중이지, 항상
최정태	앞으로 2년 남았냐?
최주영	내년 겨울에는 웃는 모습으로 만나길
한석진	어차피 나는 성공할거임 ㅈㄸ.
한지용	담임쌤과 1번 관우부터 31번 석진이까지 모두 감사했고 행복하길 바래요♡

2-06

간재철	잘하자
강동석	내년에는 대학 갈거야 아마두
고태호	수능 1번만 보고 대학 가자
고형준	내년엔 열심히 하자
곽주영	잘했어
권윤재	내년에도 화이팅합시다
김규빈	재수하면 미적분 안 해도 됨 ^오^
김근용	2019?
김민재	아잉
김승수	재수없다
김재홍	전승민 파이팅
류희원	노랑진 종로 재수학원 번호 02-6205-1881 쓸 사람 쓰셈
박은성	보인고 괜히 왔다
석수호	1년동안 다들 수고했어요
양우영	전승민♡차유준
양효원	우웬
우종하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현	수고했습니다
윤재형	탈보인은 지능순
이동훈	간재철 돼지
이세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관	전승민♡권윤재
이승두	수고했다!
이철민	모두 내년에는 승민친구와 친해지길 진심으로 빌어요
전승민	차유준 죽는다
차유준	렛츠 고려대
최은성	양효원은 김승수를 정말로 사랑한다.
최준혁	전승민♡강동석
최호준	보인탈출 솔크탈출
한동화	다들 행복하시고, 수능 끝나고 같이 롯데 ㄸㄸ 오래가길
홍윤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7

윤준형	잘가 ^^
정승진	고생했어
오재우	다들 수고했고 고3이네 ^^
김동우	ㅂㅇ
허정현	좋은대학 가길 바랄게~~
홍승현	행복하자 친구들
성우영	수고했어~~
최성우	모두 수고했어~
장예준	이제 시작이다
김현준	안녕
조성준	미적분 지건 마렵다 ^^
이동희	이제 3학년이다. 잘해라 ^^
이원하	게임 접자
허정민	이제 700일 남았다!
김상우	잘있어
김수중	앞으로 잘하자
강태우	인생은 타이밍!!!!
허예범	고생했어
명연준	3학년가면 공부할 거 같지
박경완	ㅁ
두형서	잘 가
김승재	친구들 이과에서 잘 썩길 바래. 고3 파이팅 ^^
윤강진	내년도 파이팅!!
김경주	성공해서 만나자
박지홍	멋지게 살고 연락해
이성준	재수하지 말고 대학가자!
박준하	1년도 안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자
이호준	1년 함께해서 즐거웠고, 다들 입시 잘 해서 만나자.

고연우	시열아 나 오뎅사주라
곽재민	후회 없는 1년이였다.
권순찬	후회 많은 2학년이였다.
김기배	수고했다 수고했어
김우성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김은일	독도는 우리 땅.
김은찬	이거 쓸 시간에 공부하자!
김태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다!'라 생각하고 겨울방학 파이팅!
김태훈	1년동안 뭐한거지...
김호연	공부 좀 열심히 할걸
맹준성	남은 1년은 더 열심히 하자
박건영	학교 수업을 지해롭게 듣자
박건우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쟁취한다.
박주형	즐거운 1년이였다.
배준용	예원아 사랑해
안종범	건우는 용기가 참 없구나^^
양시열	지호야 넌 3년이야. 연우는 살 좀 빼자
이대규	후회 없는 1년이었어.
이준혁	1, 2학년 다시하고 싶다.
정문수	1년동안 재미있었다.
최지호	상윤아 2년이야.
황상윤	1년 더 남았네
한정환	헤빈아... 오빠는 아직 널 잊지 않았어. 사랑해 ♥ 나중에 홍대에서 보자!



2-09

곽승현	나도 성공하고 싶다.
권현서	아직도 1년이나 남은 것이 믿기지 않는다. 어서 빨리 탈출해야지
김경호	보인고등학교를 2년동안 다녔다는 것이 놀라웠다. 앞으로 남아있는 1년은 2년간의 후회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김동환	1년 동안 공부를 하루도 빠짐없이 계획했는데 계획에 맞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다. 내년에는 계획을 했으면 꼭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두용	인생은 공평한 법. 빠꼬~~
박진한	남은 1년, 최선을 다해 후회없는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자! 그래!
박태춘	학교는 새치기하는 맛으로 다니는거지. G
백승익	내년에는 지각을 덜 해야겠다.
손병민	새치기가 싫으면 너가 막으렴 ^^
송우성	좋은 학우를 만나 행복하다.
신윤수	1년 안에 끝내고 싶다
안준영	정시 파이팅!
염서현	다들 좋은 대학가고 성공해서 어른돼서 좋은차 타고 만나자.
윤동현	재수 안해야지
윤찬진	2학년때 너무 논 것 같아 후회된다.
이다현	꼭 정시로 고려대를 가야겠다. 2-9 파이팅
이민훈	응 다현아 안돼
이준혁	급식 시간에 새치기를 막았으면. 애들이 새치기 할 때마다 얼굴에 주먹을 박고 싶다.
이지원	더 잘 보내려고 했으면 더 잘 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해였다. 내년에는 진짜 아무지게 생활해서 나 자신을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응 다현아 안돼22
전지엽	내 얼굴도 개갈지 위암
정병주	키가 더 크고 싶다. 9반을 통치하고 싶었지만 걸림돌 최재영이 있어서 독재정치를 못하게 많이 아쉽다. 재영이만 없었다면 내가 이 반의 왕이 되었을 텐데 많이 안타깝다. 재영아 3학년 때 보면 머거리 박아^^
조규민	힘나자!
조영탁	수시는 거르고 정시로 가즈아! 1년만 더 고생하자~.
채현우	시작은 항상 좋았지만 끝맺음은 그렇지 않았다. 이번년도를 교훈 삼아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히 생활할 것이다.
최재영	재밌는 친구들 만나서 안좋았다
한유민	남은 1년 열심히 노력해서 후회없는 수능을 치면 좋겠다
함주호	보인고 3년 다닐바엔 남여공학 6년 다닌다.
황제원	남자라면 노빠꾸 정시지.

권양현	제 꿈은 민성이 집 메이트가 되는 것이예요. 기대되네요 ♡
기승현	내가 정시임을 알려준 한 해
김규환	타바 구독자 94명 압수
김동하	박승우처럼 살고 싶다.
김동호	ㅂㅈㅎ=ㅂㅈㅎ (?)
김민성	내 밑에 평생 솔로
김보선	내 밑에 평생 커플
김세준	똥... 아니 분석을 좋아하는 동혁아, 사랑해^^ +블루클럽..[5만원]
김준수	형규처럼 살지 말아야징^^
김형규	난 쓰레기야^^
명재범	수고
박승우	집에 가고 싶다. 보인고 너무 싫고 집에 가고 싶다.
박윤서	열심히 살자
박재호	동호오빠 사랑해요.
박준혁	동호가 뭐 잘못먹었나? 거기로 돌아가고 싶은걸까?
성동훈	내 내신이 폭망한 한해였습니다.
양상혁	앞으로도 잘 자야지
어태경	좋은 대학 가고싶다.
유동주	인서울 가고 싶어요.
이승호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이정빈	파이팅
이종찬	문과갈걸
이종화	sky간다
전동혁	내 성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한 해이자 대학에 대한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게 된 해이다.
전정호	타바 YouTube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
전준하	롤이 하고 싶어요
정민식	대학 오디가누
정현빈	sky간다
차민규	수고했어
하태욱	할 말 없다
홍민택	대학 잘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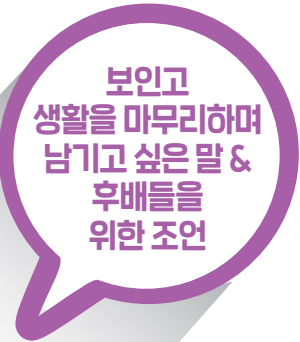


강병욱	정시로 간다!
전출	전학가고 싶다
김관우	3년에 끝내자.
김남훈	박지호 신상엽 응원한다.
김동현	뭐든지 one에 가자
김석현	세상이 덩벼라
김성주	조기호 귀여운 척 그만.
김주원	2019년 2학년 11반 화이팅!
김준섭	동훈아 화이팅!
박익민	아 피곤하다
박준서	정시파이터 가자~
박지호	Hala madrid! 천우성 작작 나대
성태한	1년 후면 끝
송민규	인생 망했누
송재근	답은 정시다
신상엽	내년 이맘때 대학교 불고 클럽에서 XX하고 싶다
신정환	집에 가고 싶다
유예찬	보인, 믿고 있었다구
윤지환	준희 꿀, 기호 꿀, 우성 꿀
이성현	화이팅
이재욱	공부 (하트)
이준희	SEXY
장영욱	보인 초신성이니까 ^^
조기호	인생은 김성수와 조영욱처럼
조영욱	인생은 마커스 래쉬포드처럼
천우성	축구의 신이 되었다
최용준	최용준 화이팅!
최진규	이런 거 쓸 때 공부를 더 하겠다
황민호	2년 말고 1년에 끝내자

김관형	내년에는 포켓몬 마스터가 될꺼임
김도완	피카츄 라이츄 ㅍ..... 어째서 눈물이..... (feat. 소드실드)
김민우	내년에 끝나길...
김민제	고3 나이스~~~
김정석	응 정시
김정우	안뇽
김진수	ㅂㅂ
김현서	서울대 쉽다
박성빈	오늘부터 정시공부
방승재	F = ma
백승혁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어
서준혁	ㅂㅂ
소지원	빠이빠이
양효준	내년에는 뭐가 어떻게 될까. 다들 잘ㄹ으면 좋겠다.
우시현	LOL GO
우진형	원준수 서울대 가면 1++ 안창살 사줄게
원준수	관악에서 보자
유재상	이 시국에 같이 그곳으로 유학 가실 분 구함
이남현	서울대 아님 안감
이승준	1년 동안 즐거웠어
이준원	^^
이준호	서울대감 ㅅㄱ
이준희	잘가, 나중에 웃으며 만나길 기.사.조.아
이진석	라이프 ㄱ?
이호찬	내일 보자 ㅁ
천지민	히히
최민기	아잉
한진우	ㅁ



3학년



3- 1	유대건	건승!
3- 1	이상언	잠은 밤에 자자. 좀비가 너무 많아....;
3- 1	정광희	애들이 3년 동안 수고했고 나중에 웃으면서 보자.
3- 1	조준기	모두 고생 많았고 행복했으면 한다.
3- 2	권경무	공부만이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탈하세 행복하세요. ^^
3- 2	남현우	졸업하고 나서도 연락하고 지내고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3- 2	박정민	1학기 회장으로 말하는데 애들이 1학기 때 내 부하로 지내느라 고생많았어. 으하하하!!!
3- 2	임재혁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먹고살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3- 2	장준환	3학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했어. 그리고 2학기 회장으로 지내며 내말 잘 들어서 고맙다.
3- 2	한다훈	애들이 1년동안 고마웠고 몇명은 내년에도 잘해보자
3- 3	김호준	최소노력의 최대효용 --> Profit!
3- 3	박평준	6보 탈출 네이스~
3- 3	백승준	Dance for me
3- 3	홍성원	행복한 일 년이었다. 영철아... 미안하다...
3- 4	송종원	내년에 살 빼서 오면 치킨 사 줌
3- 4	전승원	군대는 해군으로 와라
3- 4	임민혁	1년 동안 수능 공부 하느라고 다들 수고했어. 모두 꿈을 펼치길!
3- 4	백종원	아스날은 유로파가 딱이야
3- 4	이석희	내후년엔 대학생으로 만나자!
3- 4	하현무	추합 기원 화이팅! 14명 남았다
3- 6	김도현	군대에서 보자 이것들아
3- 6	김민서	다 같이 남고-공대-군대 가자!
3- 6	김승준	동반 입대하실 분 연락주세요~
3- 6	연준모	여러분의 앞날에 빛이 가득하길
3- 6	박다형	너희들은 대단해
3- 6	최지호	몸 상하지 말고 다음에 웃는 얼굴로 무사히 보면 좋겠다.
3- 6	허영호	내년에 후배로 갈게

3- 7	김세직	애들아 고등학교 3학년 즐거-
3- 7	김태현	애들아 고3이 제일 즐거웠다.
3- 7	유현주	라떼는 말이야
3- 7	이준호	난 빠른년생이어서 원래 너네랑 붙는 거였음 ㄱ
3- 7	한지민	야 재수생 왜 울고 있는 거야.
3- 8	노영제	애들아 오빠 오늘부터 보디빌더 준비할게. 내 여친이나 준비해놔
3- 8	박형준	승규야 끼블이는 박흥식이야.
3- 8	유도균	승규 여자랑 1박2일 가요.
3- 8	장승우	도균이 연애해요.
3- 8	조정현	애들아, 대학교 가서 지각하면 안 돼.
3- 10	김재표	3학년 때 놀아야 진짜 재밌어요.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가끔 놀아요.
3- 10	박성수	수시, 정시 중 하나만 선택해서 공부하지 말고 둘 다 하세요. 인생은 모르는 일입니다.
3- 10	박준영	어차피 안 바뀌어요. 하던 대로 해도 절반이에요. 기본에 충실해요. (특히 수학 1번)
3- 10	변준상	수능 공부 백세게 하고 다 끝난 답엔 백세게 놀아요.
3- 10	성준모	진짜 후회 없는 1년을 보내도록 하세요.. 진심으로...
3- 10	신현민	니 인생을 살라.
3- 10	은성원	-연애금지- -일탈 금지-
3-10	최우성	눈술 많이 함들어. 탐구 공부 열심히 해!!
3- 10	한현석	내년에는 꼭 대학에 가자.
3- 12	권용준	알아서 잘 살겠지 뭐. 안녕~
3- 12	김경섭	다들 자기만의 길을 꾸준히 걸어 나가길. 화이팅!
3- 12	손재영	나쁘지 않은 지옥이었다.
3- 12	오민혁	대학 간다. ㄴ
3- 12	이수	길 가다 마주치면 인사하자.
3- 12	최윤석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고3 생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같이 공부하고 놀고 즐거웠었다. 대학생활 파이팅.
3- 12	최재성	지금까지 임시공부 하느라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잘 지내!
3- 12	최형욱	바쁜 1년 보내느라 다들 수고 많았어. 많은 추억을 쌓지는 못했지만, 함께 달려온 고3 한해 꼭 기억할게. 모두들 원하는 일 찾아 행복하길 바랄게. 3학년 12반 화이팅!

<맨발>

문 태 준

어물전 개조개 한 마리가 움막 같은 몸 바깥으로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죽은 부처가 슬피 우는 제자를 위해 관 밖으로 잠깐 발을 내밀어 보이듯이 맨발을 내밀어 보이고 있다.

펄과 물속에 오래 담겨 있어 부르트 맨발

내가 조문하듯 그 맨발을 건드리자 개조개는

최초의 공리인 듯 가장 오래하는 공리인 듯 천천히 발을 거두어갔다.

저 속도로 시간도 길도 흘러왔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어져서는 저렇게 천천히 돌아왔을 것이다.

늘 맨발이었을 것이다.

사랑을 잃고서는 새가 부리를 가슴에 묻고 밤을 견디듯이 맨발을 가슴에 묻고 슬픔을 견디었으리라.

아— 하고 집이 울 때

부르트 맨발로 양식을 탁발하러 거리로 나왔을 것이다.

맨발로 하루 종일 길거리에 나섰다가

가난의 냄새가 벌벌벌벌 풍기는 움막 같은 집으로 돌아오면

아— 하고 울던 것들이 배를 채워

저렇게 캄캄하게 울음도 멎었으리라.

